

#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대욱 · 최인수



---

**저 자** 전대욱, 최인수

연구책임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연구요약

### □ 온천도시 유형화 및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온천도시 유형을 제안하고 온천도시 지정사업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이론·정책을 리뷰하고, 온천지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내 및 일본·유럽의 온천도시 사례분석을 통해 온천도시 유형의 제안
-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온천도시 유형별 공공시설 구축 및 정부지자체 지원방안, 지역산업과 연계·클러스터링 방안 등의 개괄적 추진방안을 도출·제안

### □ 온천도시의 개념과 법제·정책

- 온천도시는 온천이 가진 잠재력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지역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서, 획일화된 온천지구에 차별요소를 특화(브랜드화)하고 의료와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시를 의미
- 「온천법」 제9조의2에 의한 온천도시의 지정사업은 '23년부터 연간 2개소 내외 (총 10개소 선정 목표)로 지정하는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난 '20년 6월 대통령령으로 정하였고, 지난 '22년 12월 제2차 온천발전 종합계획('23-'32, 연구용역안)에 반영하였음

\*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온천도시 지정기준): 1호~5호를 모두 충족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 고려시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 가능한 곳
4. 온천 시설현황·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 고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인정 기준에 부합

○ 온천도시 지정추진에 앞서 지난 '21년 6월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충주시·아산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충주시)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중원·문강온천 등,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 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 연구 추진

\* (아산시) 온양·도고·아산온천 등 소재, 온천욕 운동을 활용한 치유요법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증, 온천수 활용에 따른 건강 현황의 변화에 대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등 추진

#### □ 온천도시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사례분석은 온천도시와 관련되어 온천도시 지정시 후보도시로 볼 수 있는 유명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역사·문화자원, 온천자원, 의료·산업·관광 등 부문별 특성화 요인, 온천지구 및 도시 발전전략 등을 분석함  
 - 온천도시의 시범사업지인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보양온천 지정온천을 포함하고 있는 인 강원 속초시, 문체부의 온천관광지구로 지정된 유명 온천지구인 경북 울진군 및 경남 창녕시 등을 대상으로 함

○ 해외 사례분석은 온천문화가 발전하고 온천도시가 활성화된 일본 및 유럽의 주요 온천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 및 현황, 온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온천도시 발전전략, 성공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함

- 일본 유명 온천관광지(일본 관광경제신문의 '21년 '온천 100선'의 상위권 온천) 중 온천도시로 널리 알려진 유후인(由布市), 벳푸시(別府市), 쿠로카와(黒川)를 대상으로 함

- 유럽의 온천도시는, 지난 '21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럽 7개국 11개 온천도시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 of Europe)" 중 널리

알려진 독일의 바덴바덴(Baden-Baden),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 프랑스의 아벤느(Avene), 비쉬(Vichy) 및 헝가리의 세체니(Szecheny)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국내외 온천도시의 사례분석으로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지역의 역사적 흐름 및 자원을 바탕으로 온천도시의 정체성 확립
  - 차별화된 온천지구를 위한 온천 관련 다양한 기준·정의의 명확화
  - 에이징믹스(Aging-Mix)를 통한 고령화 시대의 온천관광지 활성화
  - 온천도시 인근의 지역자원을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온천 치료관련 대체의학의 효능과 과학성 입증, 의료·레저 및 관광·산업과 종합적으로 연계된 발전전략 필요
  - 도전적인 콘텐츠 도입, 혁신적인 온천문화·산업 콘텐츠 마련 등을 위한 지역 축제 등 홍보·이벤트 노력 필요
  -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온천도시에 특화된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및 유형화 방안

- 온천도시의 특성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온천자원을 통해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온천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리뷰 및 국내외 사례분석 등 메타분석을 실시
  - 온천도시의 발전전략은 온천수를 활용·연계한 의료, 산업, 문화·체육, 관광, 기타 서비스업의 활성화 등을 핵심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고유성 확립) 온천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발굴 및 특성화: 헝가리 온천의 ‘스파티(Sparty)’ 온천문화 차별화 전략, 독일 바덴바덴의 의료, 레저, 여가, 문화 등 복합단지 특화전략
  - (특화상품 개발) 온천 특화상품 개발 활성화: 프랑스 아벤느 온천의 온천수 활용한 화장품 및 을 피부 테라피 체험 연계 특화전략, 체코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음용수 및 관련 연계상품 특화 전략, 일본의 온센타마코 상품개발 등

- (문화·역사·관광자원의 산업화) 온천의 역사·문화·지역 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프랑스의 비시의 나폴레옹 3세 및 아산 온양행궁 등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일본 벳부온천 등 근대역사 및 설화 등과 연결된 관광상품 개발 등
-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에 기반하여, 온천도시의 정형화된 발전모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으로 정형화될 수 있음
  -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 온천역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정 매니아층을 타깃으로 맞춤형 온천관광 프로그램 개발·제공, 온천 휴양단지 조성 등 반영
    - 비즈니스 모임 및 행사 등 MICE 산업과 연계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모형 ②)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 온천수 치료기관 및 보양온천 활성화, 의료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질환 치유 프로그램 특화 등 반영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연계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모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천수 화장품 등 코스메틱 개발, 온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온천시설·제품·서비스 등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 친환경 온천 열에너지 활용,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등 반영
    - 온천수의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열 재생에너지 타운 조성 등 고려
- 온천도시 후보지의 특성(지리적·문화적 및 도시환경 등)에 따라 하나의 온천 도시에서 단일 모형만이 아닌, 3가지 모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추구를 지향해야 함
- 온천도시 발전모형에 따른 온천도시 후보지의 유형화
  - 온천도시 후보지 15개소에 발전모형을 대입한 결과, ▲모형 ①(온천+관광도시) ▲모형 ①+②(온천+관광도시+메디컬도시) ▲모형 ①+②+③(온천+관광도시+메디컬도시+산업도시)로 나눌 수 있음

[표 1] 온천도시 후보지역별 유형화 적용 방안

후보 도시	유형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②: 온천+메디컬도시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부산 동래	①+②	• 동래 온천의 명인제도 운영을 통한 온천관광 상품화	• 동래온천의 척추·관절·통증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집적, 치유센터 등 앵커시설 구축 필요	
부산 해운대	①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온천관광산업 활성화		
대전 유성	①+②	• 교통 편리성 및 인근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임·MICE 온천관광 특화전략 필요	• 노인 요양 전문병원 자생 집적 및 온천수 활용을 통한 유성온천 수증재활 치료 특화	
경기 화성	①	•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강원 속초	①	• 1인·가족 단위 안심형 온천베드타운 조성 및 장기체류형 홈스테이 온천 프로그램 개발 등 워케이션(worcation) 최적화		
충북 충주	①+②+③	• 물의 도시 충주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온천관광 활성화 도모	• 치유숲길·산림요법 활용한 온천상품 개발, 한방온천 치료 중심의 메디컬 온천 도시 특성화	• 지역 농산물·온천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열 활용 인프라 구축
충남 아산	①+②+③	• 온양행궁 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온천도시 브랜드화	• 앵커기관로서의 (재)헬스케어스파진흥원 및 온천 도시 치유센터의 설립·운영	• 산·학·연·병 협업을 통해 피부질환에 특화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생산 등 온천 자원을 활용한 코스메틱 산업 활성화
충남 예산	①+②	• 고령 친화 온천 예코빌리지 조성 및 가족단위 온천 휴양마을 조성	• 고령화 중심의 노인의료 복지시설 집중 운영, 관련 앵커시설 구축 필요	
전남 화순	①	• 리조트 개장·운영 등 온천 관광객 지속 유입을 위한 종합 온천 휴양지 개발		

후보 도시	유형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②: 온천+메디컬도시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경북 포항	①	•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온천관광 프로그램 제공		
경북 경주	①	•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자원 연계한 온천관광산업 추진		
경북 문경	①	•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경북 울진	①+②+③	• 금강송 등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추진, 스포츠 인프라 활용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 연계 관광	• 온천자원·해수자원·산림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치유단지 조성 및 운영, 온천요법과 탈라스테라피 프로그램 구성·운영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와 연계	• 온천수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온천열 화수를 통한 스마트팜 등 활용 가능
경남 창원	①	•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경남 창원	①+②(+③)	• 자연환경 온천요법 활용한 심신 안정 및 정서 장애 프로그램 제공, 인근 우수한 생태자원과 연계전략	• 스포츠 인프라 활용,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와 연계한 온천 치유프로그램	•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친환경 온천열 에너지 타운, 스마트팜 조성 등 가능

#### □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방안

- 온천도시 추진의 기본원칙은 같이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온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여, ▲온천관광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정책사업 연계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 또한 온천도시 추진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강화,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온천도시 활성화 다부처 사업연계 등으로 제시될 수 있음

[표 2]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기본방향	추진과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추진과제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도시 지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li> <li>• 온천 관련 전문적 연구개발 기능 확대</li> <li>• 온천협회를 중심으로 한 온천도시 거버넌스 구축</li> </ul>
	온천법 및 온천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관련 제도개선</li> <li>• 온천도시 특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개선</li> <li>• 행안부·지자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li> </ul>
	공공재로서 온천자원의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원인 온천공의 공적관리 강화</li> <li>• 온천수 정기적 수질검사와 성분검사</li> <li>•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자원 보존과 다각화된 활용</li> </ul>
	온천도시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가 함유하고 있는 열원의 이용 증진</li> <li>• 온천도시에 온천치유센터 설치 및 홍보 활성화</li> <li>• 온천도시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li> </ul>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방안	온천도시 협의회 및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도시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온천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화</li> <li>• 온천도시간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체계 및 시너지 창출</li> </ul>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도시 간 상호 교류 및 방문 활성화</li> <li>• 혁신적인 온천문화 콘텐츠 개발과 온천문화 혁신을 통한 마니아층 형성 노력</li> <li>•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li> </ul>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정부 정책사업의 온천도시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li> <li>•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사업 연계 추진</li> </ul>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방안	온천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낙후 이미지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의 고유한 이미지·브랜드 형성, 온천재생사업 등</li> <li>• 온천도시 인근의 문화·역사·관광자원의 적극적 연계</li> </ul>
	온천업 시설 리모델링 지원 및 주변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와 온천도시의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지원</li> <li>• 온천도시내 유휴공간 전수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지원</li> </ul>
	온천도시 브랜드화와 신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살린 온천도시 브랜드화</li> <li>• 온천 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li> <li>• 온천산업 및 온천상품 개발 활성화</li> <li>•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및 고령화 치료과정 연계</li> </ul>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가 온천 활성화 정책사업과 행사 발굴 및 추진</li> <li>• 온천도시에 다양한 온천 관련 시설자원의 연계</li> </ul>

기본방향		추진과제
	온천도시 정책의 다부처 연계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온천도시 지정확대 및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li> <li>• 인구감소대응 및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통합공모 추진</li> </ul>

○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온천 관련 전문적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능 확대 및 관련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구축, 온천협회 중심 온천도시협의회 구축 등
- 온천법·조례 등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의료관련 법률·보험인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온천관련 시설의 조성·운영 규제개혁 등
- 행안부·지자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인증제 운영에 따른 온천도시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홍보체계 마련(온천의 날 제정, 기존 온천축제 및 온천산업박람회 등의 확대 등)
- 공공재로서 온천자원의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에너지회수 포함): 온천수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오·남용 및 고갈 방지차원에서 온천도시 온천공의 공적관리 시스템 전환 유도, 온천열(지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회수 시스템, 스마트팜 등 구축
- 온천도시 앵커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핵심적인 온천도시 시설로서 치유센터 설립, 관련 도시공원 및 치유연계 여가·레저·스포츠 시설, 온천도시의 컨벤션·MICE 시설 및 문화예술 시설 등

○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 온천도시협의회 등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정 온천도시(및 예비온천도시 포함)를 중심으로 한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 온천도시 포럼 설치 및 활성화: 온천도시 우수관행에 대한 공유 및 확산, 연계 프로그램·상품개발 등 연구개발 촉진, 관련 산업화 및 거버넌스의 확대, 중장기적 학회·연구회로의 발전 등

-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및 다부처 사업 연계
  - 온천도시 브랜드화 및 낙후 이미지의 탈피를 위한 온천업 시설 리모델링 지원 및 온천 주변 환경개선: 개별 온천업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족욕탕, 온천수 및 관련 프로그램 체험관, 전시관 등 앵커시설 중심
  - “온천도시 특구” 지정제도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앵커 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BLT·BOT, 민관합동 온천도시 활성화 기금 및 금융지원 등), 온천도시 상품권 등
  - 인구감소대응기금(사업)과 온천도시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 검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기금사업과 연계한 생활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추진, 행안부 및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유형으로서 온천도시 발전모델의 추가 및 지정 추진 등 등
  - 각종 정부지원사업과의 정책 연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문관부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등 연계 또는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다부처 통합 공모사업 추진 등

# 목 차

##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구성 .....	7

## 제2장 | 온천도시의 개념적·정책적 접근

제1절 온천도시의 개념적 접근 .....	11
제2절 온천도시의 법·제도 분석 .....	13
1. 「온천법」 및 관련 법령의 온천도시 관련 조항 .....	13
2. 온천도시의 선정기준 .....	16
3. 온천도시 정책사업 및 추진 동향 .....	20
제3절 온천도시의 유형 및 발전요인 .....	23
제4절 온천도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	27
1. 온천도시 지정 시범사업 .....	27
2. 온천도시(충주시·아산시) 시범사업 추진 현황 .....	29
3. 온천도시(충주시·아산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	30

### 제3장 | 온천도시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35
제2절 온천도시 관련 국내사례 분석	37
1. 충청북도 충주시(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도시)	37
2. 충청남도 아산시(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도시)	48
3. 강원도 속초시(보양온천)	66
4. 경상북도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	74
5. 경상남도 창녕군(온천관광지구)	84
제3절 온천도시 관련 해외사례 분석	91
1. 일본 온천도시	91
2. 유럽 온천도시	101
제4절 국내·외 온천도시 사례의 시사점	118
1. 국내 온천도시의 시사점	118
2. 해외 온천도시의 시사점	121

### 제4장 | 온천도시 특성분석 및 유형화 방안

제1절 온천도시의 선행연구	127
제2절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및 특성분석	130
1. 국내 온천산업 및 온천도시 쇠퇴 분석	130
2. 해외 온천산업 및 온천도시 사례분석에 따른 특성화	131
제3절 온천도시 유형화를 위한 발전모델	140
1. 모형 ❶ 온천+관광도시 모형	141
2. 모형 ❷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142
3. 모형 ❸ 온천+산업도시 모형	145
제4절 온천도시 후보지에 대한 유형적용 방안	147

## 제 5장 |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	155
제2절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추진과제 .....	162
제3절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	168
제4절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173
<b>【참고문헌】</b> .....	<b>177</b>

## 표 목차

[표 2-1] 「온천법」 상의 온천도시 관련 조항 .....	14
[표 2-2] 온천관광지구의 추진 유형 .....	25
[표 2-3] 온천도시의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	29
[표 3-1]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지역특성 .....	37
[표 3-2]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 .....	38
[표 3-3]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공별 용출온도 및 수질 유형 .....	42
[표 3-4] 충주시 중원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연구 결과 .....	42
[표 3-5] 충주시 온천지구 쇠퇴요인 자체진단 결과 .....	43
[표 3-6]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지역특성 .....	48
[표 3-7]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 .....	50
[표 3-8]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별 특징 .....	55
[표 3-9] 아산 온천관광특구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 .....	61
[표 3-10] 속초시(보양온천)의 지역특성 .....	66
[표 3-11]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지역특성 .....	74
[표 3-12]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온천지구별 특성 .....	78
[표 3-13]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재생 추진 현황 .....	79
[표 3-14] 울진군 해양치유형 쿠퍼오르트 프로그램 구성안 .....	80
[표 3-15] 창녕군(온천관광지구)의 지역특성 .....	84
[표 3-16] 일본 관광경제신문의 '21년 '온천 100선'의 상위권 온천 .....	91
[표 3-17]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 of Europe) .....	101
[표 4-1] 온천도시 지역 특화성장 요인 .....	128
[표 4-2] 온천도시 발전 3개 기본모델 .....	129
[표 4-3] 헝가리의 온천을 위한 협회들 .....	133
[표 4-4] 온천도시 해외사례의 특성화 요인 .....	139

[표 4-5] 온천지구별 특화된 관광자원 및 이벤트 요소에 의한 체험형 프로그램	142
[표 4-6] 생태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144
[표 4-7] 의료인프라 활용 질환 프로그램	144
[표 4-8] 복지사업 활용 치유 프로그램	144
[표 4-9] 온천도시 후보지역별 유형화 적용 방안	150
[표 5-1] 온천도시 활성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추진과제	162
[표 5-2]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방안	168
[표 5-3]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방안	173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의 구성 .....	7
[그림 2-1] 전국 온천자원 분포 .....	15
[그림 2-2] 온천도시 기본모델 도출 프로세스 .....	21
[그림 3-1] 울진군 등수온선도 .....	76
[그림 3-2] 백암온천지구 온천공 현황도 .....	77
[그림 3-3] 부곡온천 입지 및 여건 .....	85
[그림 3-4] 부곡온천 온천공 위치도 .....	86
[그림 3-5] 부곡온천 관광특구 및 관광지 현황 .....	88
[그림 5-1] 전국 온천자원 분포 및 온천도시 후보지 .....	155
[그림 5-2] 온천도시 추진 기본 원칙 .....	156
[그림 5-3] 온천도시 활성화 기본방향 .....	158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구성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행정안전부는 「온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2020년 「온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을 통해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의 온천수 이용 가능 도모
    - 기존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탈피하여 유럽의 지속가능한 온천 문화·산업으로 전환 도모
      -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은 EU 각지에 존재하는 온천중심 도시를 총칭하는 것으로 7개국 11개 도시에 위치한 초국가적 문화유산으로, 2021년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유산에 등재
      - \* 유럽 온천문화 및 산업의 경우, ‘웰니스관광(건강과 치유 목적)’을 산업초점으로 설정하여 건강관리 및 치유·치료 목적으로 온천도시 및 온천지역을 관광하면서 관련된 온천목욕과 여가·휴양, 뷰티(미용) 등을 즐기는 것
    - 동 법률의 개정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온천도시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온천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의 근거를 포함
    - 근거 법령 개정 목적은 건강·뷰티 등 증가하는 웰니스관광, 수증재활치료 등을 활용한 국내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위축된 온천산업에 활기부여 및 재도약을 위한 법률·제도적 기반 마련
  -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 관련산업 육성을 전제로 한 온천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을 실시
    -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법」 제9조의2를 근거로 하며, 온천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온천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함

- \*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온천도시의 가능성과 지정사업의 개선점,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가늠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2021년 3월~5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 및 아산시를 선정(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1.6.7)
  - \* (충주시 시범사업) 중부권 통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방·온천수 치료·치유 및 이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 경관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 등
  - \* (아산시 시범사업) 온천욕 운동을 활용한 치유요법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증, 온천수 활용에 따른 건강 현황의 변화에 대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등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대전 유성온천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4년간('20~'23) 국비 90억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 지원(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20.7.30)
  - 동 사업은 생활환경 변화, 집과 인접한 입욕시설 보급으로 단체 관광객 위주의 온천관광이 감소함으로써 과거 호황을 누렸던 온천지구들이 근래 대부분 쇠퇴하는 실정 해소 및 개선 목적
  - 기존 온천지구에 숙박시설·식당 등 관광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최근 치유와 휴식을 중요시하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웰니스관광 시장이 성장함으로 온천지구는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연구 필요성) 온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필요

- 온천지역의 쇠퇴와 온천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노력 필요
  - 전체적인 온천지구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소규모·미사용 온천공이 증가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경쟁이 격화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행정안전부 온천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2019: 8-9)

- \* 온천지구(구역)은 '21년 현재 전년대비 1개소 감소(375개소), 온천이용업소 12개소 감소(579개소), 소규모 온천공보호구역 증가추세 지속(249개소, 전년대비 5개소 증가), 동네목욕탕 20% 감소(행안부, 2022 전국온천현황)
- 최근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온천이용객이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온천업장의 쇠퇴와 인근 상권 등 지역경쟁력의 심각한 하락 관측
- \* '21년 온천이용자수는 전년대비 18.6% 감소 (34,365천명, 7,834명 감소), 지역별 온천이용자도 전국적 감소추세를 보임(행안부, 2022 전국온천현황)
- \* 대전 유성온천 사례를 살펴보면 입욕객수 및 유성온천수 사용량이 매년 감소 추세 △(입욕객수) 2018년 48만명 → 2019년 43만명 → 2020년 17만명으로 감소세 △(온천수 사용량) 2019년 122만 1,523t(규유공 37만 4,116t, 개인공 84만 7,407t) → 2020년 86만 7,227t(규유공 28만 4,605t, 개인공 58만 2,662t)(충청투데이, 2022.12.14.字)

○ 기존 온천도시 지정제도를 통한 정책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 필요

- 기존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온천도시” 지정제도(온천법 제9조의 2)의 본격적인 실시를 통해 온천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 기존 온천도시 지정 근거 고도화 필요: 우리나라 온천 특성에 맞는 온천도시 유형 및 관련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목적) 온천도시 유형화 및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따라서 본 연구는, 온천도시 지정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온천도시의 유형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지정기준을 검토하며, 온천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탐구·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온천중심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온천도시 유형을 제안
- 둘째, 온천도시 유형별 개괄적 추진방안(공공시설 구축 및 정부지자체 지원 방안, 지역산업과 연계·클러스터링 방안 등)을 도출·제안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연구의 범위

- (시·공간적 범위) 현재 온천법 상의 전국 온천 대상
  - 2023년 현재 온천법에 의해 신고·승인·지정된 국내 온천 대상(현재 영업 중인 온천 중심) 유형화 및 연계 추진방안 연구
  - 유형화를 위한 국·내외의 활성화된 온천도시 사례 연구
- (내용적 범위) 온천도시 유형화 및 추진방안 제안
  -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 지정기준 등을 검토 및 개선 제안
  - 온천도시 유형별 국가역할 및 관련 인프라·공공시설 구축 방안 제안, 온천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연관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성 관련 등 정책대안 제시

### □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한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요인 도출
-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요인별 국내 온천특성 분석
  -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및 관련 이해당사자(온천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의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한 온천도시 유형화 특성분석
- 온천도시 요인별 국내 온천특성 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 도출
  - 유형별 온천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실제적 검증
  - 유형화에 대한 연구진·발주부서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 병행
-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온천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유형화 및 정책제언 고도화
  - 자문회의·세미나 발표 등을 통한 연구결과 피드백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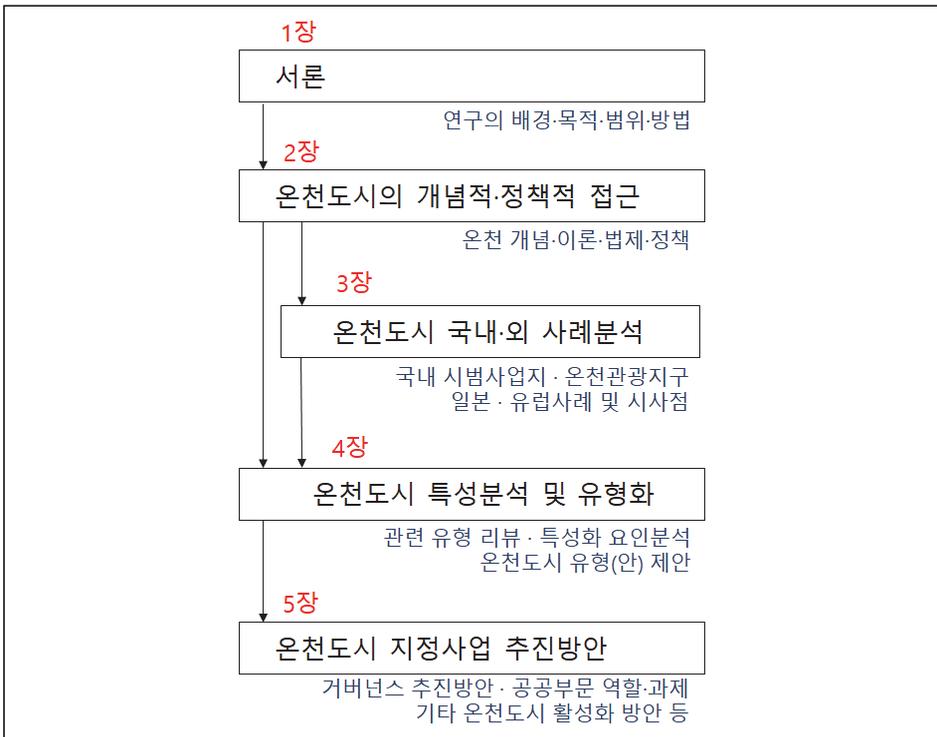
###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구성

#### □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의 구성

○ 본 연구는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절차와 구성을 따름:

- (1장) 연구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
- (2장) 개념·정책적 접근: 관련 이론적 논의 및 법제·정책
- (3장) 온천도시 사례분석: 국내 및 일본·유럽의 온천도시 사례분석
- (4장) 온천도시 특성분석 및 유형(안)의 제안
- (5장) 결론 및 정책대안: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방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 온천도시의 개념적·정책적 접근

제1절 온천도시의 개념적 접근

제2절 온천도시의 법·제도 분석

제3절 온천도시의 유형 및 발전요인

제4절 온천도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 제1절 온천도시의 개념적 접근

## □ 온천도시 개념의 대두

- ‘온천도시’란 용어는 2010년 개정된 「온천법」에 처음 등장
  - \* 「온천법(법률 제100005호, 2010.2.4.일부개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9조의 2에서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온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
  - 지정된 온천도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관련 후속법령이 제정·구비되지 않아 10년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이후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에서 온천도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제정(대통령령 제30795호)
  - 2021년 3월 온천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서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짐(행정안전부령 제241호)

## □ 온천도시 추진배경

- 2020년 온천도시 사업이 10년만에 추진된 배경은 ① 온천 이용인원이 2013년 6천만명에서 2019년 6천 3백만명으로 정체, ② 기존 온천이 대부분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현실인식 등을 반영
- 이를 개선하고자 온천의 의료·산업적 이용 등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필요, 특히 유럽에서 발달한 온천 치료요법 등을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방안 필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1.6.7)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공문에서 유럽의 온천 도시 우수사례 현황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유럽식 의료 및 산업모델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온천 치료요법 확산 및 온천수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 반영

## 제2절 온천도시의 법·제도 분석

### 1. 「온천법」 및 관련 법령의 온천도시 관련 조항

#### □ 온천법의 온천도시 제·개정 비교

- 「온천법」은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으로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
-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일부 개정을 통해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가 신설된 이후, 제9조의2에 관한 법률적 내용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 없이 이어옴

#### □ 온천법 시행령의 온천도시 관련 제·개정 비교

- 「온천법」 시행령은 2020년 6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 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이 신설되고, 2023년 5월 현재까지 신설 조항 유지
- 2020년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 주요 특징
  - 온천도시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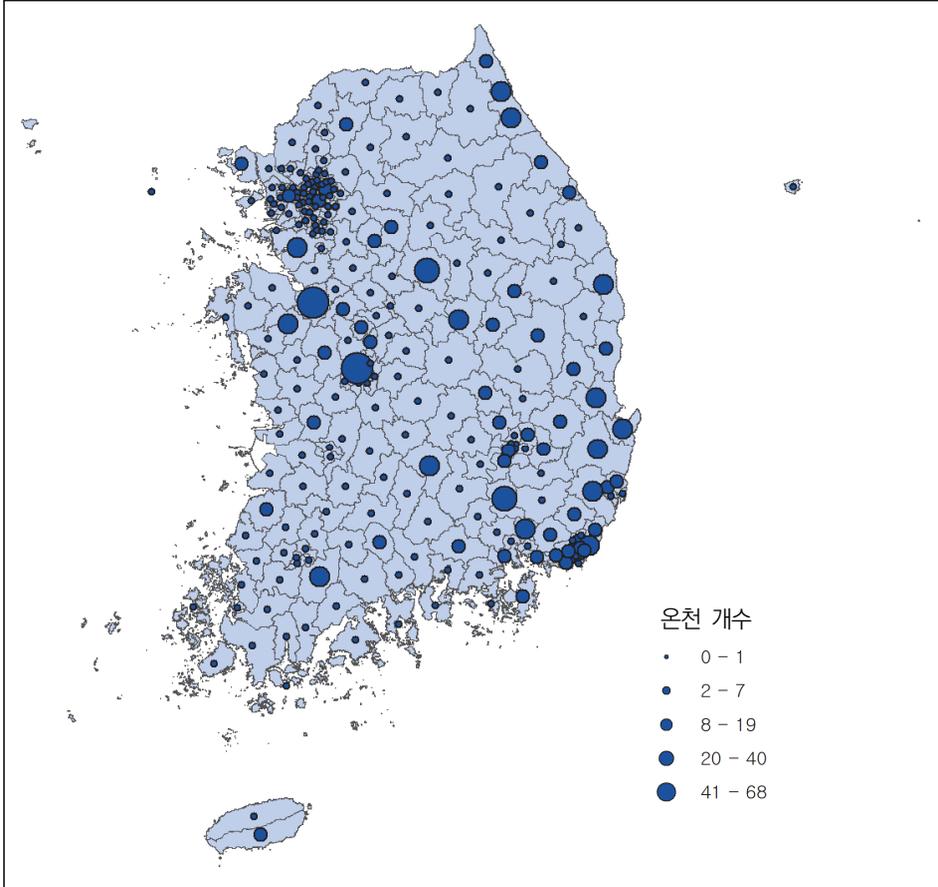
#### □ 온천법 시행규칙의 온천도시 관련 제·개정 비교

- 「온천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1일 일부개정을 통해 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이 신설되고, 2023년 5월 현재까지 신설 조항 유지
- 2020년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명시

[표 2-1] 「온천법」 상의 온천도시 관련 조항

[법률 제10005호] (‘10.2 개정)	[법률 제10732호] (‘11.5 개정)	[법률 제11690호] (‘13.3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 (‘14.11. 타법개정)	[법률 제14839호] (‘17.7. 타법개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 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적행정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 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 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그림 2-1] 전국 온천자원 분포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온천 관련 제도적 현황

- 관련 법령: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1.12, 『온천법령질의해석례』)
  - 온천의 정의, 이해당사자(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 온천전문검사기관 등)의 권한과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온천발전종합계획·온천개발 계획 수립, 온천보호구역·보양온천·온천도시의 지정

- 기타: 개발계획·온천이용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 수질기준·조사, 온천발견 신고, 전략환경평가·굴착허가·동력장치설치허가·원상복구 등 개발사업 이행관련 규정, 온천자원의 보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종사자교육·온천 협회, 관련규제, 벌칙·과태료 등
- 제2차 온천발전종합계획('23-'32; 연구용역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행안부, 2022.12)
  - 비전 및 추진전략: 2040 온천 헬스케어 글로벌 강국 도약
  - 온천치유산업 활성화: 온천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보양온천제도 실효성 강화, 온천 효능검증 연구개발 확대
  - 온천 고부가산업 육성: 온천 산업표준 제정, 온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확대, 온천산업 사업화 지원 확대
  - 온천자원의 신뢰도 제고: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기능 고도화, 온천 정보체계 구축,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 강화
  - 온천활성화 기반조성: 온천도시 지정제도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 \* 합리적 온천도시 선정평가시스템: 지정·심의 절차·평가항목·기준표 마련
    - \* 온천도시 지정 활성화: 온천도시 1개/년 이상 지정, 온천지구별 차별화된 도시조성 계획 수립 독려, 다자간 협의기구 활용 온천도시 특화전략 마련 지원
    - \* 온천도시 인센티브 부여: 온천도시 조성사업 국비 지원, 온천도시 홍보활동 지원, 온천대축제 도시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 온천도시협의회 구성·운영: 주요 온천 8개 시군구와 협의체 구성

## 2. 온천도시의 선정기준

-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에서 규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시행령에 명시된 5가지 충족조건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정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온천도시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

-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제4항에서 1호~5호를 모두 충족해야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과 범위

- 해당 온천지역의 온도·성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온천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세부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보양온천과 같은 온도와 성분에 관한 기준이 없기에 어느 정도가 우수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 \* 참고로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언급한 심사기준(안)에서도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3년 행안부 온천도시 지정 공모계획에 따르면 온도 및 유효성분 등의 기준 제시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정사업 첫해이므로 향후 이러한 기준에 대한 고도화와 탄력적 적용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온천도시의 지정은 온천수의 성분이나 기타 물리적인 기준에 의한다기 보다는,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온천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의지와 정책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온천도시의 지정기준은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 온천 산업 육성에 관한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 정성적으로 제시됨

- 온천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온천자원을 연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정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온천도시의 지정은 특정한 조건에 의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지정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 온천도시의 범위

-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4)에서 온천도시 신청서는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위 행정구역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
- 행정학적으로 도시란 일부 지역에 인구가 대량 정주 또는 집중하여 경제, 사회·문화, 행정·정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생활 중심지를 의미함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광역시)를 포함하여 그 관할지역 내에 있는 시·군·구(기초)가 도시로 분류됨(동법 제10조)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
- 따라서 ‘온천도시’는 온천자원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집중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온천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온천자원이 경제와 생활의 기반이 되어 인구나 자산이 집중된 지역, 구체적으로 온천공이 다수 밀집되어 관련 지역 사회경제가 이에 의존하는 ‘온천 지구’가 우선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온천지구를 통해 온천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천명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시·도나 시·군·구 전체, 또는 온천지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그 일부를 온천도시의 지정범위로 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를 감안하여 자율에 맡겨 그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 '23년 온천도시 지정 공모사업에서 제시된 지정 기준

- 지정기준은 전술한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의 5가지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온천 온도·성분 등의 우수성] 35℃ 이상 고온의 온천 보유, 유효성분\*이 포함된 온천 보유 온천지역(최근 5년 온천자원조사 결과)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인 광천온천이거나, 유황·탄산·실리카·철·구리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온천
    - \* 유황온천: total S-2 성분함량(S-w, HS-, H<sub>2</sub>S 포함)이 0.1mg/ℓ 이상인 온천
    - 탄산온천: 탄산가스(CO<sub>2</sub>)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
    - 실리카온천: 실리카(SiO<sub>2</sub>) 성분을 40mg/ℓ 이상 함유
    - 철온천: 철(Fe) 성분을 10mg/ℓ 이상 함유
    - 구리온천: 구리(Cu) 성분을 1mg/ℓ 이상 함유
- [온천축제 등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의 우수성] 최근 5년간 온천 관련 축제 및 행사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거나, 온천 관광시설 확충 및 홍보 등의 실적이 있는 지자체
- [온천산업 육성 기여 가능성] 활용가능한 온천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온천 이용객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온천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온천 치유, 온천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연구와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온천 시설·자원 연계 수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온천 관련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기타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온천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 하기 4개 기준의 합산 80점 이상인 경우 조건 충족으로 판단:

- [적정성(25점)] 온천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지역 여건 고려 여부 및 차별성 등
- [타당성(30점)] 추진방향에 적합한 계획 수립 여부, 실현가능성, 공익성 여부 등
- [적합성(20점)]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협업체제, 추진역량 등
- [효과성(25점)] 경제·산업적 효과, 사회적 효과,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 3. 온천도시 정책사업 및 추진 동향

#### □ 온천도시 정책

○ 개념 및 지정(온천법 제9조의 2): 온천과 관계된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온천지역을 행안부 장관은 온천도시로 지정 가능(임의조항)

- 온천도시의 지정 기준(동법 시행령 제6조의 4, ④항): 하기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

- \* 해당 온천지역에 소재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성
- \*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 노력이 우수할 것
- \*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 그 밖에 행안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

- 온천도시의 지정해제 기준(동법 시행령 제6조의 4 ⑤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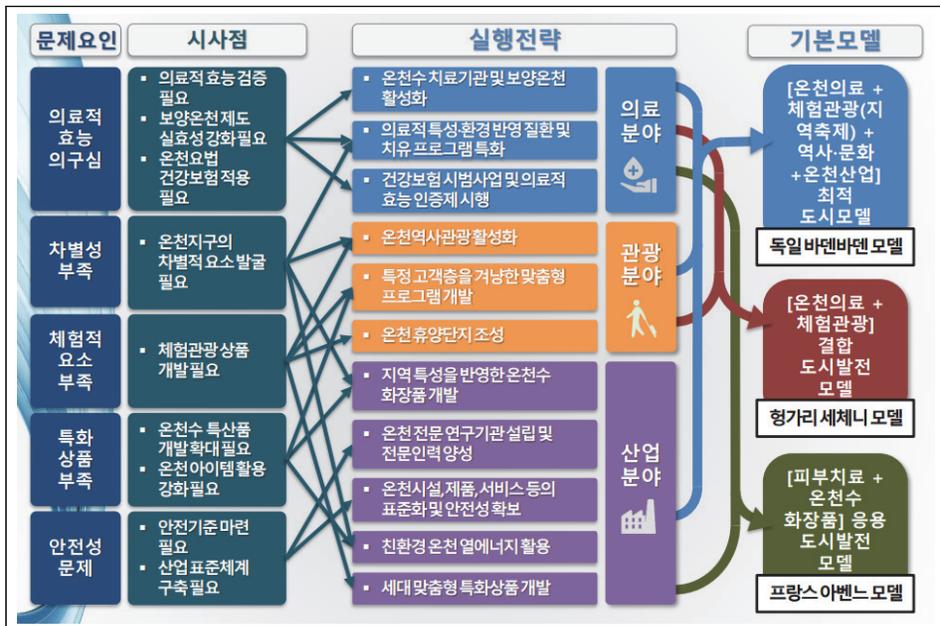
####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정책 추진동향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1. 6. 7.):

-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온천도시 추진체계의 적절한 구성과 지정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21.3월~5월)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충주시·아산시) 선정

- 사업취지: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온천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 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온천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
  - \* (충주시)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중원·문강온천 등.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 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 연구 추진
  - \* (아산시) 온양·도고·아산온천 등 소재. 온천욕 운동을 활용한 치유요법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증, 온천수 활용에 따른 건강 현황의 변화에 대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등 추진

[그림 2-2] 온천도시 기본모델 도출 프로세스



자료: 한국온천협회(2021), 『온천종사자 교육자료』, <http://www.hot.spring.or.kr/>

- 2023년 온천도시 지정계획(행정안전부 지정사업 공모 공문, '23. 6. 1.):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충주시 및 아산시 2개소의 시범사업 이후, 온천 도시를 연간 2개소 내외(총 10개소 선정 목표)로 지정하는 본격적인 실시 계획을 천명함
  -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해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전체 또는 온천시설 분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천도시 범위를 결정하여 신청함
  - 신청시기 및 지정절차: 2023. 6. 1. ~ 7. 7.
    - ① [시·군·구청장]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작성
      - \* 5가지 충족 조건에 대한 증빙 포함 신청서 작성 및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②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행안부로 제출
      -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신청
    - ③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기준 심사 후 확정
      - \* '23년의 경우 7월중 계획, 학계·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사
    - ④ [시·군·구청장] 온천도시 지정사실 공고
      - \* '23년의 경우 8월중 계획, 행안부에서 해당 시도로 결과 통보 후, 시·도는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공보·인터넷누리집 등에 공고

### 제3절 온천도시의 유형 및 발전요인

- 도시(City, Urban)는 인구가 집중하는 특정 장소
  -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소비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
  -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활동의 중심 공간임
  - 따라서 도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고, 현재에도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있음
  
- 도시경쟁력은 도시에 대한 투자, 관광에 대한 선택, 정주 등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도시 시민의 수준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관광 목적지를 결정함에 있어 관광객의 집객력(集客力)을 강화하거나 방문지·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온천과 도시발전 간 발전요인 연구결과 비교 분석
  - 김성진(2005)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 방향 연구”에서 온천지구를 관광·휴양도시로 분류하고 소비도시라고 지칭
    - 소비도시로 지칭한 배경에는 관광객의 유입과 체류 시 관련 관광과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도시의 기능을 단일 기능으로 구분할 때 정치·행정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관광·휴양도시, 산업도시 등으로 구분하거나, 산업별 생산액의 비율을 지표로 하여 생산도시, 소비도시, 교역 도시로 구분
    - 관광·휴양도시의 도시개발을 위해 ①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함 ② 도시관광 요소 ‘집약화’할 수 있어야 함 ③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도시관광 매력물을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고 함

- 이주경(2018)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개발과정과 공간문화적 특성”에서 온천지구 유형을 △생활형 도심 온천 △전원형 온천 △복합리조트형으로 분류
  - 생활형 도심 온천지구는 유명 전통 온천으로 높은 명성과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져 휴양지 분위기가 덜하고 지나친 도시화와 난개발로 자연파괴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통온천의 보전·활용을 강조
  - 전원형 온천지구는 비교적 소규모 온천시설로 형성된 곳을 말하며 온천수 온도나 성분이 좋아 인지도가 높으나,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가 침체하여 시설 유지가 원활하지 않아 온천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역설
  - 복합리조트형 온천지구는 대규모 시설이 건축되어 온천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시되고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건축물로 지역과 융화되지 못함을 지적

#### □ 온천도시와 관련된 추진 유형과 발전 모델

- 이제연 외(2020) “온천 산업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서 온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
  - 온천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① 웰니스 관광(welnes tourism)의 목적지로서 온천관광의 활성화
      - \* 온천은 예로부터 관광 목적의 방문지로서 유명하였으나, 보다 최근에는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을 위해 온천을 여행지로 선택함
      - \* 온천은 현대 사회에서 휴양·레저의 공간으로 관련된 음식·숙박시설, 레저시설, 주변 어메니티 등 복합적인 매력도에 의해 방문객이 유치되는 구조임
      - \* 온천 자원을 활용하여 온천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
    - ②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온천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온천자원 중 열에너지의 회수 및 활용, 의료·건강·미용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온천자원의 활용가능성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 ③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통한 건강·미용상품 등 지역기업 지원
      - \* 온천자원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간 거버넌스에 의한 지원 강화

## ④ 온천의 개발 및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의 개선

- \* 온천자원의 개발·활용 및 신산업의 발굴·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규제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온천 관련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온천수의 의학적 효능검증 확대, 보양온천 활성화 및 지정 기준의 현실화, 온천 의료관광의 개선 방안 등 제안
- \*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보양온천 기준 조정 및 지정 확대, 양·한방 협진을 통한 온천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방안과 관련하여, “올해 찾아가고 싶은 온천 10선” 등 홍보·마케팅 적극 지원 등 제안

○ 이승욱 외(2019) “도시 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서 온천지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온천자원의 활용가능성과 다양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결합한 온천지역 성장모델 제시

- ‘온천+@ 지역성장 모델’은 ① 온천+신산업모델 ② 온천+비즈니스모델 ③ 온천+스마트도시 모델 ④ 온천+자연친화레포츠 모델 ⑤ 온천+헬스케어 모델 ⑥ 온천+도시관광 모델로 구분

[표 2-2] 온천관광지구의 추진 유형

모델 유형	주요 내용
온천과 신산업 결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온천지구의 인근에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역량이 밀집한 지역이 존재하고, 이에 관련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 가능한 도시에 관한 모델로서, 연구개발, 열에너지 활용, 화장품 개발 등의 신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li> </ul>
온천과 비즈니스 결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에 MICE 산업을 유치한 온천자원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모델로서, 블레저들이 비즈니스 이후 온천지구에서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과 MICE 비즈니스 결합 모델</li> </ul>
온천과 스마트도시 결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에 스마트 시티를 적용한 모델로서, 비즈니스 창업 지원공간, 문화·예술·체육 관련시설 등 스마트한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스마트 시티의 첨단기술과 온천의 휴양을 접목시키는 방안 제시</li> </ul>

모델 유형	주요 내용
온천과 자연친화 레포츠 결합 모델	• 온천지구 주변에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적용하는 모델로서, 주간 레저활동과 야간 온천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계된 힐링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제시
온천과 헬스케어 결합 모델	• 온천자원과 헬스케어 산업의 결합을 통해, 고령인구가 접근하기 좋은 교통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위한 모델로서, 건강관리·치유·헬스케어 및 힐링 프로그램, 온천수를 활용한 음료 개발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과 런칭 등
온천과 도시관광 결합 모델	• 온천자원과 도시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도심의 온천지구에 적합한 모델로서, 온천을 즐기면서 동시에 도시 내의 매력적인 상업·서비스업과 결합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델

출처: 이승욱 외(2019: 184)로부터 저자들이 재구성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온천도시 발전 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온천이 가진 잠재력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지역 성장모델 도출 필요
  - 획일화된 온천지구에 차별요소를 특화(브랜드화)하고 의료와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시 발전 모델 구현
  - (온천도시 발전 모델의 지향) ① 소비자 욕구 충족 ② 온천 의료적 효과 제고 ③ 대외 인지도 제고 ④ 지역 경제의 활성화

## 제4절 온천도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 1. 온천도시 지정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온천 이용객의 침체에 따라, 온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목욕용도 중심의 방문목적에서 탈피하여 온천의 의료·산업적 이용 등 새로운 온천활용 지역활성화 모델 필요(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1. 6. 7.)
  - 유럽 등 온천문화의 선진 지역에서 발전해 온 온천관련 치료·치유, 온천자원을 활용한 파생상품(아벤느·비쉬 화장품 등) 등을 통해 온천지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신산업의 육성을 도모

#### □ 제도개선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20.6월)하여 온천도시 지정기준 신설

#### □ 온천도시의 정의와 지정기준

- (정의)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
- 지정기준
  - 온천자원의 온도·성분의 탁월함과 아울러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
  - 온천 이용 및 시설의 현황을 고려할 때, 온천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 □ 온천도시 시범사업의 시행

-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추진에 앞서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21년 3월~5월)를 거쳐 '충주시'와 '아산시'를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충주시: 충주시는 동 사업을 통해 '중부권 통합의료센터'를 기반으로 한방·온천수 및 산림자원 연계 치료·치유 프로그램,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힐링 관광 프로그램과 수안보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련 특화된 경관 조성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
  - \* 충주시에는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중원·문강온천이 있고 탄산·유황 등 다양한 성분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
- 아산시: 아산시는 온천욕 운동을 활용한 치유요법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증, 온천수 활용에 따른 건강 현황의 변화에 대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등
  - \* 아산시에는 온양·도고·아산온천 등 유명한 온천지구가 존재하며, 15세기 조선시대부터 온양행궁을 통해 세종대왕 등 요양을 했던 역사적인 도시임

#### □ 사업개요(행안부 내부자료)

- (사업대상) 2개 지자체(시·군·구)
- (사업규모) 시범도시당 2억원(국비 및 지방비 5:5 매칭)
- (선정과정) '21. 3~5월 지자체 대상 공모, '21. 6월 행안부 심사위 선정
- (선정기준) 온천자원 현황, 활성화 정책노력 및 온천시책의 탁월성 등
- (지정 및 지원) '22년 온천도시 지정 및 예산 지원 추진
  - 2021. 6. 7.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와 아산시 선정 발표(보도자료 배포)

#### □ 향후 추진방안

- 행안부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온천이용의 목욕중심 행태로부터 온천치료·치유의 정착, 온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 등 온천이용의 다양한 활용행태를 발굴 및 확산하고, 추후 온천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

- 또한, 탁월한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특화된 온천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굴을 위해 온천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 등을 지원 예정(행안부 내부자료)

## 2. 온천도시(충주시·아산시) 시범사업 추진 현황

[표 2-3] 온천도시의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구분	충주시	아산시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안보온천의 방문자 감소 등 쇠퇴에 따라 충주위담통합병원을 주축으로 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와 연계한 재생</li> <li>• 통합의료센터의 양방·한방·대체의학 종합 진료, 족욕탕·노천탕 등 관련 시설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적 기회의 모색, 온천 치료·치유요법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테스트 등 전략적이며 통합적인 온천 허브의 조성 필요</li> </ul>
지역온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역) 수안보온천, 능암 및 증원, 문강 온천 등 온천지구 3개소</li> <li>• (온도·성분) 최고 53도천, 수질은 중탄산 나트륨천(유황, 탄산, 실리카 포함)</li> <li>• (이용시설) 38개소 중 목욕·숙박 34개, 의료 2개, 화장품 1개 등 구성</li> <li>• (이용인원) 약 14,210,000명/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역) 온양·도고·아산온천 등 온천지구 4개소</li> <li>• (온도·성분) 최고 49도천, 수질은 중탄산 나트륨천(유황, 실리카 포함)</li> <li>• (이용시설) 58개소 중 목욕·숙박 52개, 화장품 3개, 의료 1개 등 구성</li> <li>• (이용인원) 약 58,000,000명/년</li> </ul>
주요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 프로그램) 중부권통합의학센터가 수행하는 한방·온천치료를 기반으로, 산림치유 및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li> <li>* 한방과 온천수 치료에 산림욕, 역사 및 문화관광, 약선음식 등 결합</li> <li>• (홍보마케팅) 충주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연속형 홍보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li> <li>• (특화경관조성 연구) 수안보 온천특구내 경관, 건축 조사 분석을 통한 수안보의 정체성을 표현할 통합디자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의 과학적 효능 검증) 온천 운동치료를 통한 건강개선 효능 테스트, 온천이용에 의한 건강개선 효과 등 조사</li> <li>• (온양행궁 유산 활용) 조선시대 온양행궁(溫陽行宮) 등 역사적 스토리텔링, 지역대학 연계 관련 디자인 공모전 추진</li> <li>• (온천 산업박람회 개최) 새로운 온천컨벤션으로서 온천도시 시범사업 컨퍼런스 및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과 연계한 온천 산업 특별전 등 개최</li> <li>• (온천 관광·산업 유망테마 도출) 온천관련 SNS 데이터와 trend 분석을 통한 팬데믹 이후 스파관광 및 관련 파생상품의 전략 도출</li> </ul>

출처: 충주시 및 아산시 등 시범사업지 현장조사 및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73-311)으로부터 저자들이 재구성함

### 3. 온천도시(충주시·아산시) 시범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 온천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지에서는 온천자원의 산업적·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문화관광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의료적·산업적 활용에 있어서는 온천의 의학적 효과 등의 엄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며, “치료”보다는 “치유” 수준의 대체의학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적인 의료적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 치료가 아닌 치유로서 의료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아, 의료법 등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음(향후 온천도시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 건의 필요)
  - 또한 산업적 활용에 있어서,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온천수를 이용한 시제품의 개발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상품의 차별화 및 마케팅·판로개척 등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향후 이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따라서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에 있어서는 온천도시의 앵커 시설로서의 온천자원과 연계된 치유센터의 설립·운영, 온천관련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 시범지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쇠락해가고 있는 대형 온천지구의 활성화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함
  -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자원 등 인근의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브랜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에 기인한 지속적인 목록·온천산업의 쇠퇴 여파로 아직은 큰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보기 어려움
  - 온천도시의 주요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온천지구의 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천관광지구의 재생을 통한 지역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하나, 노후화된 시설의 재투자과 관광지구 이미지 개선 등은 고령화 및 민간업자들의 투자유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온천관광지구의 자구적인 노력 차원에서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유치, 지역 브랜딩, MICE산업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향후 온천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향후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온천공 관리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온천수 및 성분 등 온천자원의 고갈·남용을 방지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온천지열 활용 등 에너지 순환 포함)를 도모하는 등 공공재로서의 온천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온천도시의 발전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온천치유센터 등 온천도시의 앵커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한 의료적·산업적 활용의 지속적 견인이 필요하며, 온천 치유 및 관련 파생상품의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이 온천도시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추진전략이 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쇠락해가는 온천지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재생과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부정적이며 쇠퇴하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타 부처의 사업 등과 연계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마중물 전략으로서 온천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의 추진에 있어서 생태·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전시·공연·회의 등의 MICE 산업과의 연계 및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온천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충주시 온천도시 시범사업(노천온천)



아산시 온천도시 시범사업(야외온천)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5038100530>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nxo=606095>



## 제3장

# 온천도시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온천도시 관련 국내사례 분석

제3절 온천도시 관련 해외사례 분석

제4절 국내·외 온천도시 사례의 시사점



## 제1절 분석의 개요

## □ 사례분석의 목적 및 대상

- 온천도시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의 목적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추진모델의 유형화 및 추진전략의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수행함
  - 온천자원(온천공)이 집중되고, 온천자원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특성화가 이루어진 온천관광단지가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사례의 경우,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충주시 및 아산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보양온천 지정제도에 의한 보양온천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사업지 등을 포괄함
  - 충북 충주시 및 충남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 강원 속초시(보양온천), 경북 울진군(온천관광지구) 등을 분석함
- 해외사례의 경우, 일본 및 유럽 등 온천관광이 활성화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천마을 또는 온천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함
  - 일본의 경우, 유명 온천지구 100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 온천지구인 유후인(由布), 뱃부(別府), 쿠로카와(黒川) 등을 분석함
  - 유럽의 경우, 온천마을 및 온천도시의 등재 시스템인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 of Europe)”의 제도적 특징과 아울러, 대표적인 그레이트 스파타운 사례인 독일의 바덴바덴(Baden-Baden),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 프랑스 아벤느(Avene), 비쉬(Vichy), 헝가리 세체니(Szecheny) 등을 분석함

## □ 사례 분석틀 및 시사점 도출

- 온천도시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은 온천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에 준거하여 분석을 수행함(단, 해외사례의 경우 관련 문헌자료가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첫째,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시설·부존자원 등 대형 온천지구 중심의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함
  - 둘째, 온천지구의 온천수 및 성분 등 온천자원의 특성을 제시하고, 관련 지역 사회의 역사·문화적 변천과정과 관련 스토리텔링을 분석함
  - 셋째, 온천지구의 활성화 노력을 위해 산업적 및 의료적 자원 및 환경과 관련 정책적 노력의 추진 동향 및 현황을 분석함
  - 넷째, 온천지구 활성화 노력의 차원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온천자원을 연계한 온천지구의 재생, 온천지구 발전전략 등을 분석함
  - 다섯째, 이상과 같은 지역 및 온천자원 특성분석,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및 문화·관광 등의 발전전략을 포괄하여, 온천도시 추진모델의 유형 및 추진전략의 도출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제2절 온천도시 관련 국내사례 분석

### 1. 충청북도 충주시(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도시)

#### □ 종합 특징

【표 3-1】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지역특성

구분	주요 내용
충주 온천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리한 교통(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숙박 시설 부족 등으로 당일치기 관광객이 주류(체류형 관광객 부족)</li> <li>편중된 평요리 요식업, 획일화된 숙박과 목욕 시설로 다양한 관광객 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li> <li>온천수 중앙 집중관리, 온천 도시 시범사업 선정 등 온천지구 재생에 대한 지자체 의지가 강함</li> </ul>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안보 온천지구 내 충주위담통합병원, 재활병원 설립·운영</li> <li>주원 역사문화레포츠 특구 지정(2005)</li> <li>폐쇄된 와이키키 재생을 위한 민간 회사와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li> </ul>
지방자치단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 공공 공유공간 조성, 걷고 싶은 수안보 조성 및 관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행정안전부 온천 도시 시범사업 선정</li> </ul>

출처: 시범사업지 현장조사 및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73-285)로부터 재구성함

#### □ 부문별 특징

##### ○ 의료 부문

- 한방 온천치료 중심의 메디컬 시티
  - \* 수안보 온천지구 내 충주위담통합병원 등 우수 한방의료시설과 전문인력 보유
  - \* 한방 온천치료법 개발로 노인성 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메디컬 시티로 도약
- 온천+산림치료 연계 한국형 크나이프 모델 개발
  - \* 병원과 치유 숲길을 활용하여 온천+산림요법이 결합된 치유법 개발
  - \* '한국형 크나이프 요법' 개발로 온천요법의 외연을 확장하고 종합적인 의료상품 제공

○ 관광 부문

- 레포츠 테라피가 결합한 온천휴양 도시로 특화
  - \* 온천자원, 자연환경, 그리고 다양한 레포츠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패키지 상품 개발 제안
  - \* 레포츠 관광객 유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등 보완 필요

○ 산업 부문

- 탄산온천수 및 사과 특산품을 연계한 화장품 관련 제조업 육성
  - \* 충주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양성 탄산온천수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제안

□ 지역 특성 분석

- 충주시는 인근 경기도, 경상북도 및 강원도 지역과 연접해 있어 국토의 중앙 부문에 위치
- 서울 및 대전 등 인근 대도시와 약 140km 정도의 거리이며, 충북내 청주·제천·문경 등 도시와는 약 50~70km 떨어진 위치에 있고, 광역 교통망에 따라 서울과 경북 및 제천과 청주간 연결도로가 교차하고, 철도의 경우 충북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임
- 충주 온천지구에는 수안보 온천지구를 비롯해 문강온천, 능암온천, 증원온천 등 4개 온천지구가 있음

**[표 3-2]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

온천지구명	소재지	온천자원현황		이용 개수	이용자수 (천명)
		온천공수	온도(°C)		
수안보	충주시 수안보면 물당 2길 17	7	36~53	31	1,800
능암온천	충주시 양성면 새바지길 37	3	26.2~27.3	1	160
문강온천	충주시 살미면 팔봉로 1061	3	26.4~28.3	2	31
증원온천	충주시 양성면 가곡로 1457	3	25.4~29.3	3	90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74)

- 행정안전부(2021) 「온천업무편람」에 따르면 온천 관련 이용시설은 총 36개소이며, 2020년에 총 208만 명(수안보 123만 명, 중원 6만 명, 능암 10만 명, 문강 2만 명)이 이용

#### □ 지역 특성 분석

- 겨울을 나기 위해 온화한 지역을 찾던 용이 병을 치료하고 승천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한겨울에 수안보를 지나던 한센인(문둥병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에 거처하며 겨울을 나던 중 땅에서 물이 나와 씻었더니 병이 치료됐다는 설화가 있음
- ‘수안보’의 유래는 조선시대 초기 안부(安富)온정 또는 온천이라 불리던 이 지역에 농사용 저수지인 보(淤)를 조성한 이후, “보의 안쪽 물탕 거리”를 일컫는 ‘물안보’가 후일 한자로 ‘수안보(水安保)’로 기록된 것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함 (culturecontent.com)
- 수안보 온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권지 14, 용제 총화 권지 9 및 읍지 등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용제 총화 권지 9에는 “泉微溫, 不甚暖”이라 기록되어 옛날에는 미온천이었을 것으로 추정
-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있음. 「청풍 향교지」에 숙종 임금과 권람, 권상하, 연창위 등의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온천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이규경이 집필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수안보 지역의 물의 온도와 수질의 우수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함
- 1832년 일본인에 의해 온천공이 개발되었고, 1908년에는 노천식 온천으로 개발하였다가 1916년에 근대 건물을 설치함. 1929년에는 일본인이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여 온천수를 뽑아 사용함

- 일제강점기인 1927년 다데이와의 보고에 의하면 2~3m 심도의 장방형 목욕탕의 바닥에서 직접 온수가 용출하였으며, 수온은 약 4℃로 보고함
- 해방 후 온천 중심대(구 관광호텔 정문 경비실 옆)에서 250m 심도의 시추가 수행되었으나 균열과 냉수의 유출이 심하여 온천개발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막대한 양의 시멘트로 그라우팅을 한 결과 온천대수층까지 막아버려 결국 폐공 처리
- 그 후 원래의 용출지 중심(구 관광호텔 입구)으로부터 떨어진 현재의 온천탕들의 부근에 처음으로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m와 87.8m 깊이의 시험시추를 시행하였는데 195m에서는 50℃, 82m에서는 53℃의 온천수를 발견
  - 온천지(1983, 내무부)에는 1971년에 상기 2개 온천공이 있음을 기록함
- 1964년부터 충주시에서 맡아 온천수를 공급·관리함. 197년 1월 18일에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대가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함. 2021년 6월에 옛 수안보 야구장 부지에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인 충주 위담통합병원이 개원함

#### □ 자연적 특징 ①: 온천공 현황

- 수안보 온천지구에서 이용 중인 온천공은 5개, 미이용공은 7개이며, 미이용공 중에 1호공은 비상 예비공. 온천공들은 온천지구 내 40m×40m 넓이에 고루 분포. 이용 중인 온천공(붉은색)은 북서-남동 방향에 분포
  - 이러한 온천공들의 분포를 볼 때 온천수가 저류된 심부 지질구조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됨

#### □ 자연적 특징 ②: 온천수 사용량 및 온천수위 변화

-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온천수 사용량 조사 결과, 2017년 6월에 사용량이 가장 적고(약 1,861톤/일), 2017년 4월에 사용량이 가장 많음 (2,552톤/일)
  - 이 기간에 평균 온천수 사용량은 약 2,226톤/일이었음

- 1990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온천수 사용량 조사 결과, 1990년도에는 일일 약 2,492톤/일 사용하였으며, 이후 사용량이 감소하여 2007년에는 1,111톤/일로 1990년도에 비해 약 45%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온천수 사용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온천 수위는 온천수 사용량이 많은 1996년도에는 약 130m이었으며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서히 상승하여 2007년도에는 80m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에는 170m까지 하강하였음

#### □ 자연적 특징 ③: 용출온도 및 수질

-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 용출수인 온천수로서,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약알칼리성 온천 원액에는 인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네랄(리튬, 칼슘,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이 함유됨
- 수안보 온천지역은 옥천계의 천매암층에 해당하며, 퇴적암계인 맥반석이 주된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로, 원적외선을 포함하여 탄산 및 각종 광물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
- 수안보 온천에서 사용하는 5개 온천공에 대한 용출온도 및 수질은 양수시험 시 관측된 용출온도는 46.0~53.7℃이며, pH는 7.96~8.16으로 약알칼리성을 보임
- 수질 유형으로 양이온은 Na, 음이온은 HCO<sub>3</sub>가 가장 많은 Na-HCO<sub>3</sub> 형으로 분류되며 모든 온천공에서 SiO<sub>2</sub>가 40mg/l 이상인 실리카 온천에 해당함

[표 3-3] 충주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공별 용출온도 및 수질 유형

공번	양수량 (톤/일)	용출온도 (°C)	pH	전기전도도 (uS/cm)	수질유형	비고
8	700	49.1	8.16	410	Na-HCO <sub>3</sub>	실리카온천
12	700	47.2	8.05	450		
14	600	53.7	8.13	430		
15	700	46.6	7.96	470		
16	700	46.0	8.10	460		
평균	680	48.5	8.08	444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77)

- 국내 유일의 중앙집중관리방식(충주시)으로 깨끗한 수질 유지(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
  - 조례에 의해 5개의 온천공에서 집수한 온천수를 탱크에 보관 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이 온천수를 퍼 올려 사용하는 타 온천지구와 달리 지구내 업장에서 동일한 온천수 제공

[표 3-4] 충주시 증원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연구 결과

질환군	실험방법	치료효과
고혈압 환자 20명, 대조군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 (실험군은 탄산온천욕, 대조군은 담수욕)으로 나눔</li> <li>• 약 14일간에 걸쳐 총 10회의 입욕을 통한 실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산 온천욕의 경우 고혈압에서 의미 있는 혈압 강하 효과가 있음</li> <li>• 총 콜레스테롤 및 나쁜 콜레스테롤 (LDL) 저하, 좋은 콜레스테롤(HDL) 제고 효과 동반</li> </ul>

출처: 대한온천학회(2009)

□ 지역적 특성

- 2005년 여주와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주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했으나, 숙박 및 관광 지원시설의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거 2008년 연 270만 명 수준의 관광객 규모가 2019년 연 180만 명으로 하락함 (행정안전부, 2020). 중심상권 내 분포하는 숙박 시설의 이용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평 요리 위주의 요식업 메뉴 편중으로 관광수요 대응에 실패함  
숙박과 목욕 등 획일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이 거의 없음
  - 1980년대 초 수안보 지역에서 개발된 평요리가 현재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음(1994년 박명자 씨가 평 요리 기능보유자로 지정)
- 와이키키 호텔이 폐업한 2002년, 스키장이 폐업한 2016년을 기점으로 방문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 수안보 온천의 깊은 침체기를 맞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수안보 관광지구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은 86.5%로서, 건축물 대부분이 온천관광 호황기였던 70~80년대에 지어짐
- 충주시에서는 관광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실패가 지역 쇠퇴를 가속화 하는 것으로 자체 진단

[표 3-5] 충주시 온천지구 쇠퇴요인 자체진단 결과

외부적 쇠퇴원인	내부적 쇠퇴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법」 개정 및 해외여행 자율화</li> <li>•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li> <li>• 워터파크 중심의 온천관광 트렌드 변화</li> <li>•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으로의 수요계층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이키키,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폐업</li> <li>• 핵심 콘텐츠(온천수)의 관광 자원화 미흡</li> <li>• 낙후된 관광인프라 및 상업서비스</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78)

#### □ 온천지구 재생 추진 현황

- 1975년 온천지역 내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군 주도로 온천수저장 탱크의 건설과 중앙관리 시스템 정비
- 충북도와 충주시에서는 수안보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사업과 민간자본 유치 활동 추진

- 2018~2020, 3년간 약 260억(국도비 포함) 정도의 예산이 투입하여 크고 작은 현안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이랜드의 와이키키 관광 개발 사업은 자금력 한계로 포기
- 2019년 9월에 ‘THE 수안보’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
  - 수안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❶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사업 ❷ 걷고 싶은 수안보 조성사업 ❸ 수안보 온천 특화공간 조성사업 ❹ 공공 공유공간 조성사업 ❺ 관광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방침
- 2021년 6월 행안부 온천 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충주위담통합병원)의 한방·온천 치료와 연계한 의료관광 및 역사·문화관광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수안보 온천 특구 내 특화경관 조성 연구 추진

## □ 도시발전 전략

- 의료부문 ❶: 한방 온천치료 중심의 메디컬 시티
  - 충주 수안보 온천지구는 지역 내 충주위담통합병원 등의 우수한 한방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온천지구와 비교되는 강점
    - 전통 온천요법은 우수한 한의 기술로써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피부질환 등의 예방·치료가 가능한 수치료 방법임
    - 서양의학(양방)과 어우러져 치료의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
    - 그 밖에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음
  - 충주위담통합병원을 통해 한의사로부터 온천 처방을 받아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한방 온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검증하고 전통 水치료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질병예방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한방 온천치료법으로 노인성·만성질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메디컬 시티로 도약할 것을 제안

- 충주위담통합병원 중심으로 온천 한방요법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온천 중심의 통합의학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선도적 역할 기대



출처: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8/2021060801242.html](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8/2021060801242.html)

#### ○ 의료부문 ②: 온천의료+산림치료 연계 한국형 크나이프 모델 개발

-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지구 활성화와 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 충주시에서는 충주위담통합병원의 인근에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마련하고 도시 내 유휴·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하고자, 2022년까지 수안보 온천지구 내 생태학습터, 습지원, 탐방로, 전망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 온천요법, 산림요법 등 대체의학을 접목한 한국형 크나이프 요법 개발을 제안
  - 치유 숲길이 조성될 경우, 온천요법, 산림요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법 개발이 가능할 것
  - 충주위담통합병원에서 시행하는 한방 수치료 프로그램에 산림요법(산책·트레킹·요가·기공법 등), 그리고 아로마테라피·명상·최면·아유르베다 등의 대체요법을 적절히 적용하면서 효능이 탁월한 테라피를 개발하면 좋을 것임
  - 이른바 ‘한국형 크나이프 요법’을 개발하여 온천요법의 외연을 확장하고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와 힐링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상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

## ○ 산업부문 ①: 레포츠 테라피가 결합한 온천휴양 도시로 특화

- 자유시간이 확대되고 여가 생활화가 확산함에 따라 단순 소비 활동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광행태가 증가하고, 시간 소비적인 스포츠나 위락 등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시장도 생태관광, 문화관광, 모험 관광, 주제 관광, 체험 관광 등으로 다변화됨
- 충주시는 문화관광레포츠 도시조성을 위해 충주시 남한강로 일대, 탄금호, 충주호 주변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인프라(운동 오락 시설, 휴양문화 시설, 숙박 시설, 상가시설 등)와 프로그램을 구축·운영
- 충청북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는 충주호로써 쾌속 관광선과 대형유람선을 운항하는 중이며 매년 여름에는 카약, 고무보트, 수상자전거 등의 수상레저 체험 행사를 운영
- 충주 온천지구가 가진 온천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 그리고 다른 온천지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양한 레포츠 운영 노하우 및 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키지 상품 개발 필요
- 온천과 레포츠를 한데 묶은 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음악회, 등산대회 및 각종 동호회 이벤트 등을 부대행사로 개최하여 방문객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것을 제안
- 레포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레포츠 장비(자전거, 수상레저 용품 등)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스포츠 활동을 한껏 즐긴 관광객에게 썩 요리, 울갱이, 산채, 생선찜 등으로 보양할 수 있도록 식당가를 웰빙형 먹거리촌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사과, 고구마, 밤 등의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함

## ○ 산업부문 ②: 탄산사과·온천수 화장품 산업 육성

-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수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음

- 충주시는 ㈜에네스티, (사)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와 MOU를 체결(14.9월) 하여 온천수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노력으로 현재 ㈜에네스티 제품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등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 중이며, '2017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온천수 화장품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충북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온천수 화장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충주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탄산가스와 철분이 다량 함유된 양성 탄산온천수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을 제안
  - 탄산온천의 유리탄산 기포가 피부에 흡수되며 혈관의 확장을 통해 원활한 산소 공급 및 혈액순환 개선, 모공 속 유해 요인들을 제거, 피부탄력 개선 등에 효능이 있어 이를 활용한 탄산수 함유 화장품 출시
  - 충주 사과 추출물과 양성 탄산온천수가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지역 온천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을 제안



출처: <http://www.suanbo.or.kr/>

## 2. 충청남도 아산시(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도시)

### □ 종합 특징

【표 3-6】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지역특성

구분	주요 내용
아산 온천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온천역사와 조선 시대 왕들이 머물었던 행궁이 있던 역사적 온천명소임</li> <li>•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지구인 온양, 도고, 아산온천과 충무 온천지역이 근접해 있음</li> <li>• 다른 온천지구와 비교해 외국인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음</li> </ul>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양 온천지구는 수도권 전철역에 가깝고 주변 상권이 잘 발달하여 있으나, 도시화가 이루어져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설 확충이 어려움</li> <li>• 2022년부터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아산온천지구 내 이전 예정</li> </ul>
지방자치단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양온천역, 신창역까지 수도권 전철 운행, 온양온천 구도심 정비 및 장미마을 조성사업 시행</li> <li>• 국내 유일 온천 전문기관인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운영</li> </ul>

출처: 시범사업지 현장조사 및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86-311)로부터 재구성함

### □ 부문별 특징

#### ○ 의료 부문

- 피부질환 효능 온천으로 특색 강화
  - 피부질환은 온천수의 직접적인 질병 치료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질환임
  - 아산시는 피부질환에 대한 우수 연구진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품개발과 상품화 연계에도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지님
-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실시
  - ‘건강보험 시범사업’ 도시로 지정하여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 시행 제안

#### ○ 관광 부문

- 대한민국 온천역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온양행궁 재현
  - 온양온천의 역사적 의미 고취 및 온천명소로 재탄생
  - 낙후·협오 시설 철거 및 테마거리 조성,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등

- 외국인 온천 휴양·치유의 명소화
  - 평택기지 주한미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천프로그램 특화
  - 외국인 관광 위탁시설 확충, 외국어 홍보 강화, 외국인 숙박 시설과 음식점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
  - 소멸하는 온천유물의 수집·보존·전시·교육·관리 및 온천 전문지식과 제공을 위한 박물관 건립

#### ○ 산업 부문

- 유행/아토피 전용 온천수 화장품 특화
  - 도고 유행 온천수의 우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하여 브랜드 화장품 개발 및 세계적 명품 화장품 도시로 도약
- 온천 융·복합 산업의 허브 도시 육성
  - 아산시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HESPA)에서 다양한 온천산업 진흥 사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 온천산업 표준화를 위한 중추 도시
  - 온천 제품·서비스, 재활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성능, 안전성 시험법 개발과 기업 기술지도 확대

#### □ 지역 특성 분석

- 아산시의 면적은 542.24km<sup>2</sup>이고 충남 천안시, 공주시 및 당진시, 충남 예산군, 경기 평택시와 연결해 있음
- 수도권 전철, KTX, 장항선 등이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제2서해안고속도로,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관광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 광역교통망(KTX/SRT고속전철 경부선·호남선 경유·장항선, 수도권 전철)으로 서울, 강남, 대전으로부터 20분대 접근성을 보이며, 평택당진항 30분, 청주 공항 40분대의 접근성을 보임

- 충남 아산의 온천지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양, 도고, 아산 온천지구를 비롯하여 인근의 충무 온천지역이 있음

[표 3-7]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

온천 지구명	최고 온도	주요 성분	특이성분	연간허가량 ('21년 1월 기준)	연간사용량 ('20년 1~12월)	연간이용인원 ('20년 1~12월)
온양	49.36	Na-HCO <sub>3</sub>	실리카온천	4,492톤	872,291톤	3,489,164명
고도	28.75	Na-HCO <sub>3</sub> Ca-HCO <sub>3</sub> 황화수소	유황온천	3,572톤	236,128톤	944,512명
아산	27.67	Na-HCO <sub>3</sub>	-	2,464톤	320,755톤	1,283,020명
충무	37.50	Na-HCO <sub>3</sub>	-	594톤	35,274톤	141,096명
총합	-	-	-	11,122톤	1,464,448톤	5,857,792명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88)

□ 역사적 특징 ①: 온양온천

- 온양온천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소재하며 국내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삼국시대를 거치며 탕정군(湯井郡) 또는 탕정주, 고려시대 온수군(溫水郡) 등으로 불리우다가 조선 세종의 온양행궁 이후 온양군으로 명칭이 변경됨
  - 세종의 안질 치료를 위한 온양 행차 이후 현종부터 정조, 흥선대원군까지 등 후세의 조선왕조의 왕가에서 온궁을 조성하고 각종 질환의 치료와 휴양을 위해 방문한 이후 관련 역사 유적이 풍부함
- 온양온천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세종실록지리지」를 포함하여, 「용제총화」(9권), 「동국여지승람」(19권), 「문헌비고」(21권) 등이 존재함
  - 기록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온양온천은 삼국시대(백제)부터 알려진 온천으로,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온양에 욕장을 만들었고, 흥선대원군은 이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고 알려짐

- 자연적으로 용출되던 온천수는 이후 현재 온양온천지구 내에서 1920년 무렵부터 온천공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일본인에 의해, 이후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온천공들이 시추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짐

- 온양온천 지구에서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 의해 기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 후반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前 국립지질조사소)에 의해 온천조사가 이루어졌음

#### □ 역사적 특징 ㉒: 고도온천

- 도고온천(道高溫泉)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하며 유황이 다량 함유된 온천으로, 학이 도고온천에 다친 다리를 담가 낫는 것을 보고 아픈 아버지의 다리를 낫게 했다는 소녀의 전설도 전해짐
- 신라 시대 때부터 약수로 이름났으나,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5년에 파라다이스 호텔(현 파라다이스스파도고)이 들어서면서부터임
  -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온천도시의 컨셉에 부합하는 치유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중심의 테마 공간으로서, 프리미엄 보양 가족온천으로 알려져 있음

#### □ 역사적 특징 ㉓: 아산온천

- 아산온천(牙山溫泉)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와 음봉면 신수리 일대에 있는 온천으로, 1987년 발견 이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내 온천시설과 더불어 온천 치료 시설, 워터파크, 눈썰매장 등이 조성된 온천 테마파크인 아산스파비스가 있음
  - 국내 최초의 온천수를 활용한 테마온천으로서 수치료 바데풀,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인 키즈풀, 계절에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실외온천 풀 등 약 7천명 수용 규모임
  - 아산스파비스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약초·특산품(인삼, 쑥, 딸기, 허브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탕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온천 테마파크와 별도로 대중탕인 아산온천탕 등의 시설이 존재함

### □ 자연적 특징 ①: 온천공 현황

- 38개의 온천공이 온양 온천원보호지구에 존재하며, 현재 사용 중인 온천공은 25개, 미사용 온천공은 13개가 존재함
- 온천공은 행정구역상 모두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분포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약 9,000m<sup>2</sup>의 범위 안에 있음
- 온천공은 약 17~25cm의 직경이며, 현재 사용 중인 온천공은 모두 20cm 이상으로서, 대체로 온천공들은 평균심도 240m(그 분포는 120~310m)에서 굴착되었으며, 온천수의 양수는 온천공 내부 약 30~50마력의 모터로부터 이루어짐
  - 온양 온천지구의 총 허가 상한량은 약 4,492톤/일로서, 각 온천공에 대한 허가 상한 양은 86톤/일부터 309톤/일까지 분포되어 있음

### □ 자연적 특징 ②: 온천수 사용량

- 온양 온천원보호지구에서는 각 온천업소에서 사용하는 25개 온천공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그 사용량을 자동적으로 측정 및 수집하고 있음
  - 총 25개의 온천공으로부터 사용된 온천수의 일평균 사용량은 2017년 현재 약 2.7천톤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용량으로 기록된 해는 2014년도로서 약 3.3천톤에 달함
- 온천공별 사용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이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2018호공은 신천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공이며, 두 번째로 온천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2호공은 온양그랜드호텔 소유의 온천공임

### □ 자연적 특징 ③: 온천 수위관측

- 온양온천지구의 10여 년간의 온천수 수위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온천 수위는 지상 펌프를 사용했으므로 지하 10m 이내에 온천 수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지하 160m 미만으로 낮아짐
  - 온양온천은 발견 당시 현재의 지구 내에서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용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 시추와 등을 통한 온천수의 자연적인 용출량을 증가시켰다고 알려짐

- 초기 자연적으로 용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당시의 온천수의 수위는 지상 또는 지표로부터 가까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이후 온천공의 시추 및 양수 등을 통해 온천수의 수위는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지상 펌프를 사용하던 시기는 지표로부터 가까운 10m 이내에 그 수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1960년대 이후 수중 펌프가 사용되면서 더 많은 온천수를 양수함에 따라 그 수위는 급격히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관측한 온양 온천원보호지구 5개 온천공 수위는 아래와 같음.
- 최고수위는 약 130m 정도이고 최저수위는 약 169m이며, 1년 주기로 수위 하강과 수위 상승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겨울철 성수기 때 온천수 사용량이 많으면 온천수위가 하강하고, 여름철 비수기 때 온천수 사용량이 적으면 온천수위가 상승하기 때문

#### □ 자연적 특징 ④: 온천수의 수질

- 온양온천 지역 온천수의 용출온도는 약 38~55℃, pH는 7.7~9.0으로 나타났고, EC는 295~460 $\mu$ S/cm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온천수의 수질 유형은 Na-HCO<sub>3</sub>형이 주를 이루며 일부 온천수는 Na(Ca)-형 또는 Na-(Cl)형으로 분류됨
- 도고온천의 수온은 섭씨 25~35℃ 정도로 음용 가능하며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위장병에 효능을 보이며, 기타 다양한 질환(관절염, 신경통, 피부병, 부인병 등)에 효과를 보임
- 아산 온천수는 중수산나트륨을 포함한 알칼리성으로서, 약 20여 종의 인체에 바람직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부미용에 좋고, 세포의 재생과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며, 다양한 질환(고혈압, 뇌졸중, 신경통,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지역적 특성 ①: 전반적 특징

- 아산시는 지자체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은 온천관광객이 찾은 곳이고, 3개(온양·아산·도고)의 차별화된 온천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입금이 즐긴 온천 도시의 역사성, 대표 온천지구 이미지 등의 긍정적 순기능을 보유하여 과거 유명 온천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관련 시설의 쇠퇴, 관광 선호도의 변화, 주변 상권의 정체 및 노후화 등으로 유희 및 저활용 시설이 증가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 입지 여건상 수도권과 근접하고, 수도권 전철 운행과 숙박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저가형 관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관광도시 재생에 대한 염원이 지배적임
  - ‘아산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 아산시민은 관광·휴양(45.2%), 첨단산업단지(20.8%), 환경생태(14.0%) 순으로 집계되어 온천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휴양도시에 대한 갈망 있음

## □ 지역적 특성 ②: 온천지구별 특징

[표 3-8] 아산시(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의 온천지구별 특징

온천지구	주요 특징
온양온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전철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경쟁력을 갖춤</li> <li>•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수도권 지하철), 인지도가 높은 온천자원으로 수요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로서 도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li> <li>• 거점 공간을 조성할만한 유흥시설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관리상태 열악하며, 관광 콘텐츠가 부족</li> <li>• 물리적 노후화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온천지구로서의 매력력이 저하되고 원도심 쇠퇴로 이어져 온천지구가 갖던 관광 응집력까지 붕괴하고 있음</li> </ul>
고도온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고온천의 유황 성분을 활용한 수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양 온천으로서 온궁한의원 스파 도고를 개원하여 메디컬 스파 프로그램 개발한 적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온천에 한방치료를 결합하여, 노인분들은 한방진료와 온천수 치료, 중년층은 휴식과 건강검진, 피부관리 프로그램, 아이들은 온천 물놀이, 수중운동 교실 등 세대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li> </ul> </li> <li>• 외지의 대기업 및 거대자본이 투입된 워터파크 중심의 운영과 관광객 쏠림현상으로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소상공인 상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li> <li>• 2020년 이후 불거진 팬데믹 위기로 인해 온천관광이 급감하였고, 아울러 관련 시설의 휴업 등으로 이용객이 90% 이상 감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음</li> </ul>
아산온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온천은 아산스파비스의 물놀이 시설의 특성이 강해 '워락시설', '이벤트 및 축제' 등 워락적 요인이 관광객에게 중요한 매력적 요소로 작용</li> <li>• 도고온천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온천(스파) 테마파크로 인해 숙박·음식·기념품 등 거의 모든 소비가 단일공간에서 이루어져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94-295)에서 재구성

## □ 온천지구 재생 추진현황

- 2008년 12월에 충남 천안시까지 운행되던 수도권 전철이 온양온천역을 경유하여 신창(순천향대)역까지 연장 개통
- 아산시는 온천과 의료관광을 접목한 온천 의료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2011~2015년 6년간 대전대학교 등에 온천 의료관광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 2015년에 아산시는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온양온천역, 구 온양 사거리, 온양관광호텔 사거리, 온양고등학교 사거리, 국도 21호선 아파트 초입 부분 등 온양시가지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의 간판, 가로수, 안내판 등의 도로 주변 경관 개선 추진
- 2017년부터 아산시는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의 마케팅 및 온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천산업 활성화하고자 온양온천역의 방문객 센터 내에 온천 뷰티 체험센터 운영
- 2019년 ‘온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파라다이스 도고와 함께 성인 온천 운동 교실, 보건소 연계 온천 운동 교실, 주말 온천 스트레칭 교실, 온천 운동 프로그램 워크숍 등 추진
- 2019년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온천지구 내 집창촌이던 ‘장미촌’과 유흥업소를 매입·철거하여 양성평등 거리로 탈바꿈 중
- 2020년 온천·재활 헬스케어 융복합 산업을 촉진하고자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 수행
- 2021년 6월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도고 온천지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고면 기곡리 옛 ‘청수장’을 매입(19억 원 투입)하고 지역 상권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청년 레지던시, 도고온천기록관 조성 등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발표함

## □ 도시발전 전략

- 의료부문 ❶: 피부질환 효능 온천으로 특색 강화
  - 피부질환은 온천수의 직접적인 질병 예방·치료가 기대되는 대표질환으로써 명확한 효능 검증연구 필요
    -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건조증·소양감·홍반·부종·삼출·가피 등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동반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유전적 배경에서부터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면역학적 이상·피부 장벽의 이상·환경적·사회적 인자 및 심인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남(장문희 외, 2013)

- 아토피 피부염 치료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면역 억제제가 사용됨. 그러나 실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장기간 사용으로 부작용과 역치 값의 상승이 나타남
- 온천요법은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데 아직 그 기전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음. 다만 광천수의 효과와 목욕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온양온천수, 도고온천수를 이용하여 동물모델 또는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한 연구에서 피부질환(아토피피부염 등) 효능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
  - 동물모델(아토피 피부염을 발현시킨 NC/Nga mouse)을 이용해 유향 온천인 도고 온천수로 치료효능을 연구한 결과, 피부 발진 점수, 혈청 내 면역글로블린-E 수준, WBC 내의 호중구 및 단핵구 빈도(%), Eoxatin 2와 CCR3 mRNA 유전자 발현 등 유의성 있는 결과 도출(장문희 외, 2013)
  - 온양온천수(신천탕 온천수)를 화장품 제형에 적용하여 피부 자극 테스트한 결과 8.56%의 경피 수분함유량의 증가와 -67.74%의 상대 경치 수분 증발량 감소가 나타나 피부 개선 효과 확인(심승보·전용진, 2010)
- 아산시는 피부질환에 대한 우수 연구진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품 개발·상품화 연계에도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지님
  - 도고온천지구와 인접한 곳에 온천 피부질환 검증에 전문성을 갖춘 순천향 대학교 PMC 센터 피부 인체 적용시험연구소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16~2019년 수행한 ‘온천수 기반 코스메틱제품 명품화 사업(2016-2019)’ 등에 따른 전문인력 및 우수한 시설·장비 외에 피부질환 테스트에 관한 노하우 겸비
  - 아산온천지구에 건립되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HESPA)에 첨단 이화학 분석 장비(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가 도입될 예정으로 온천수 화장품 기업 및 스파 기업에서 요구하는 피부질환 검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아산시에는 온천수 화장품으로 유명한 (주)아로마뉴텍, (주)정코스메틱 등 대표 기업이 있고, 충청남도에는 90개의 화장품 제조기업(전체 기업의 4.4%, 전국 5위)과 165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전체 업체의 2%, 전국 6위)가 있어 피부질환 제품개발로 인한 사업화·마케팅의 시너지 효과 기대

#### ○ 의료부문 ②: 온천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실시

-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 요구 증대,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정책변화 필요
  -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젊은 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거 급성질환 치료중심이던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급증, 기술발전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주목
-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온천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을 이미 적용(이제연·임태경, 2020: 104)
  - 온천요법의 일부 또는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유럽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 독일은 주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온천시설이용비, 치료비와 이용비, 교통비용을 받음
  - 프랑스는 질병관련 보험급여비 항목 중 온천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온천치료 관련 비용의 약 70%가 지급됨
- 건강보험 도입의 성공을 위한 점진적·전략적 접근 및 시범사업 시행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온천 건강보험정책 도입방안 연구(김순양 외, 2008)를 통해 증가하는 노인층의 의료비 절감, 온천 치료가 지진 예방

의학적 가치, 보험제도를 통한 지방 온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 도입 필요성 제기

- 동 연구에서는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도입 필요성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외국 사례를 통해 온천치료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급성 입증과 온천 건강보험 도입방안 및 보험급여 비용 최소화 방안 등을 제안
- 아산시를 '건강보험 시범사업' 도시로 지정하여 문제점·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시행
  - 온천요법 건강보험 제도를 일시에 시행하기보다 질환, 적용시설, 대상자 및 보험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도입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별 마찰과 시행착오를 회피할 필요가 있음. 즉, 온천치료의 효능별, 빈도별, 대상자의 연령별, 온천수의 수질 및 시설 등을 고려한 순차적인 도입과 확대가 바람직함
  - 아산시는 온양, 아산, 도고 등 온천지구가 도시 전역에 걸쳐 있어 접근성과 의료기관이 양호하며, 풍부한 온천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행의 강력한 후보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 도입의 비용-편익 분석, 온천치료 수요자 파악,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능 테스트, 온천 건강보험 관리체계 모니터링, 기타 개선 사항 및 온천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
  -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덕산 온천지구, 충주 수안보지구로 확장하여 교통여건, 병·의원시설 등을 기준으로 지역 등급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관광부문 ①: 대한민국 온천역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온양행궁 재현
  - 온양온천의 역사적 가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온천역사를 가졌다는 것과 세종대왕을 포함한 조선 시대 왕들이 행궁을 설치하여 오랜 기간 머물러 온천 치유를 받았다는 것
  -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대한민국 온천역사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행궁이 있던 온양온천역 주변을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온천명소로 재탄생시킬 필요

- 김시중(2016)은 온양온천의 도시발전과 관광객 재방문을 제고를 위해 △온천 기반 시설의 투자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이미지 변화 유도 △온천수 이용의 다양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강화 △가족 휴식공간 확보 및 온천연계 문화시설의 확충 △보양 온천 개념의 공간 확보 및 건강 테마를 가미한 특색있는 온천욕 문화 창조 제안
- 그러나 1세대 온천지구인 온양 온천지구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고, 구불구불하며 개인용 숙박 시설이 많음. 온천지구 재건을 위해 가로정비, 시설 확충 및 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온양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온천지구임을 상징하고 구심적 역할을 해 줄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랜드마크가 도시의 특성이나 성격을 잘 표현하고 단기간에 인지도 높은 공간·시설 조성이 가능하므로, 체코의 핫 스프링 콜로나다(Hot Spring Kolonada)와 같은 온양 온천지구의 역사성·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도입을 검토 필요
  - 영국의 바스(Bath), 일본 유노미네 온천마을 사례를 참고하여 조선 왕의 흔적이 가득한 온양 온천지구 일대를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관광도시에서 세계적 문화유적 도시로 인정 받을 것을 추천

## ○ 관광부문 ②: 외국인 온천 휴양·치유의 명소화

[표 3-9] 아산 온천관광특구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

년도	합계(명)	내국인(명)		외국인(명)	
		방문객수	전년대비 증감	방문객수	전년대비 증감
2016	3,226,147	3,215,911	375,005	10,236	29,826
2017	3,507,601	3,496,869	280,958	10,732	496
2018	3,678,041	3,663,907	167,038	14,134	3,402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03)

- 타 온천지구와 비교할 때 충남 아산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음
- 아산온천관광특구의 외국인 방문객수는 3년간 평균적으로 1.1~1.2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수에 비해 소수의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이용한 외국인 방문객은 2016년 210여명, 2017년 680여명, 2018년 1,370여명으로 집계
  - 아산시 소재 온천시설 중에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외국인 수용태세가 좋아 외국인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음. 외국인 대상 국내 인기 여행지로 인정받고 있음
- 평택기지 거주 주한미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의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식점 이용을 위한 영어 메뉴판을 확장하는 한편 외국인 가족 방문을 활성화하도록 홈스테이 숙박시설 또는 게스트 하우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 외국어 안내 책자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곳곳의 숙박, 교통, 레저, 식당 및 음식, 편의시설, 치안, 쇼핑, 환경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외국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외국인 안내데스크 및 환전소를 설치하고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안내인 상주. 인근 대학생(예, 순천향대학교) 활용을 위해 자원봉사 제도 또는 인턴제도를 도입·운용 방안도 바람직함

- 아산 지역 3대 온천지를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투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장기간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어 체류 관광을 유도

#### ○ 관광부문 ③: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

- 도고 온천지구로의 관광객 유치와 온천휴양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유희부지에 '온천박물관' 건립 제안
  - 온양 온천지구는 높은 인지도를 비롯하여 수도권 전철역에 가깝고 전통재래시장 등 주변 상권이 잘 발달해있어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지만, 도고 온천지구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고, 교통이 불편하며 온천 이외에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 어려움이 있음
  - 온양 온천지구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도고 온천지구는 유희부지와 유희시설이 충분하여 새로운 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적합. 도고 온천지구는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유래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고, 지리적으로도 온양-아산-도고-덕산 등 충청남도 대표 온천지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의미미
- 소멸하는 온천유물을 수집·보존·전시·교육·관리하여 후손에게 전달하고 일반인에게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
- 이미 일본, 대만 등 세계적 온천을 보유한 국가는 자국의 온천 역사를 알리고 온천유물 등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온천박물관을 운영 중

#### ○ 산업부문 ①: 유황·아토피 전용 온천수 화장품 특화

- 아산시와 대학교 간 협력을 통해 도고, 아산, 온양 온천수의 효능에 관한 연구 개발 시도
- 천수는 물속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 성분의 작용으로 혈액순환, 진통완화, 진정작용,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청운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아산, 도고, 온양 온천수 등을 조사한 결과, 세 곳의 온천수가 각기 다른 미네랄을 함유하였고, 피부자극테스트 등을 통해 수분량과 수분증발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

- \* 호서대학교 한방화장품 연구팀에서는 도고온천수의 유황, 아산온천수의 중수산 나트륨, 온양온천수의 마니타온 성분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시도
- \* 이처럼 지역 특산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온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젊고 생동감 있는 온천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음

○ 도고 유황 온천수의 우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화장품 개발 및 화장품 명품도시로 도약 기대

- 유황(Sulfur)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로써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구성요소. 특히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결핍 시 피부 노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
- 유황 온천수에서 목욕하면 황 성분이 체내 흡수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 천연 유황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은 각질 제거, 피부트러블과 피부톤 개선, 피부 보습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제품개발 활성화
- 국내 온천수 화장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음. 앞으로 제품개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프랑스 비췌(Vichy)와 같이 피부 연구소 또는 스파 체험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
-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힘입어 세계적인 힐링 코스메틱 품목을 개발하여 온천 화장품 도시로 도약 기대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bodrium/products/2291381469#REVIEW>

○ 산업부문②: 온천 융·복합 산업의 허브 도시 육성

- 아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스파(온천) 기반의 산업거점 사업을 중점 추진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산업역량 고도화 및 다각화, 쇠퇴하는 주력사업의 재생 및 전환 등을 도모
- 아산시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재활헬스케어 부문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020-2022)’에 선정됨에 따라 국내 유일 온천·스파 전문 진흥기관을 설립하고 스파·재활 헬스케어 산업 관련 플랫폼 구축, 거점센터(지원센터) 구축, 장비도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자원 등 추진
- 풍부한 온천자원과 고도화된 산업시설이 집적된 아산시는 스파·재활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최적
  - 아산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약 2배 정도로 높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관련 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이 지역에서의 스파 및 재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음
- 온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온천 제품과 서비스 산업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천산업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는 종합 허브 도시로 육성
  - 전술한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020-2022)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가칭)리빙랩 기반 스파·재활 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지원 사업(2023-2025)”을 계획하면서, 더욱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업지원을 준비함으로써 향후 온천 산업발전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전망



출처: <http://hespa.or.kr/main/>, <http://online.hespa.or.kr/main/>

## ○ 산업부문 ③: 온천산업 표준화를 위한 중추 도시

- 온천(스파) 제품의 호환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안전·건강·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서 온천산업 표준화 및 제품의 시험검사·인증 체계 필요
  - 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온천(스파)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창출되나, 스파 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품의 성능·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 의한 영세한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제품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천(스파) 분야의 산업 표준



출처: [https://www.asan.go.kr/tour/develop/m\\_tour/?m\\_mode=view&pds\\_no=2019111514555721637](https://www.asan.go.kr/tour/develop/m_tour/?m_mode=view&pds_no=2019111514555721637)

### 3. 강원도 속초시(보양온천)

#### □ 종합 특징

[표 3-10] 속초시(보양온천)의 지역특성

구분	주요 내용
속초 온천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 주변으로 바다, 산, 호수가 있어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li> <li>• 설악산, 해수욕장, 대포항 등의 대표 관광지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온천지구로의 유인력은 상대적 부족</li> </ul>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자연 관광지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 증가</li> <li>• 속초 여성 관광객 증가세 뚜렷</li> <li>• 고속도로, KTX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아 워케이션 최적지 부상</li> </ul>
지방자치단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휴양, 레저시설을 갖춘 척산온천 관광지개발 계획 수립(제6차 강원도 관광 개발계획)</li> <li>• 설악동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설악동 재건사업' 진행 중(2024년 까지 총 264억 원 투자)</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38-348)로부터 재구성함

#### □ 부문별 특징

- 여성·가족이 안심하고 체류하는 온천 베드타운 조성
  - 솔로 여성, 가족이 안심하고 온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객실과 온천장 조성
  -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숙박 시설과 노천탕을 갖춘 온천 베드타운 조성
-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온천지구로 특화
  - 늘어나는 워케이션 수요를 반영하여 온천지구 곳곳에 광대역 통신망 설치하고 장기체류를 위한 홈스테이 상품 개발
  - 온천지구 내 유희시설을 공유 오피스, 공유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워케이션 최적지로 개발

- ‘한철 여행지’가 아닌 ‘사계절 웰니스 스파 관광지’로 전략화
  - 속초는 ‘머무는’ 단일 관광지보다 ‘이동하는’ 여행지로의 인식 팽배
  - 장시간 머물면서(체류) 마음과 정신이 힐링, 공감, 위로, 치료받는 도시가 되도록 웰니스 관광 요소 극대화

#### □ 지역 특성 분석

- 속초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바다·하천·호수(청초호, 영랑호), 온천수,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
  - ‘80년대 초까지 속초의 대표 관광지는 설악산으로 제주도, 해운대, 대천해수욕장과 함께 동해안 대표 피서지로 주목
  - ‘80년대 후반부터 속초 해수욕장에 관한 관심 증가
  - ‘90년대 온천지구 내 대기업 워터파크가 건립되면서 호캉스(호텔+바캉스) 관광 주류
- 속초시 내 주요 온천지구는 척산, 설악, 설악 한화프라자 등이 있음

#### □ 역사적 특징 ❶: 척산온천지구

- 이 지역은 “학사평”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부상당한 학이 이곳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로 그 상처를 치료했다는 설화가 존재함
- 척산온천이 있는 노학동은 예로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우물(溫井)’이라는 뜻을 가진 ‘온정리’라 불림. 한겨울에도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아 마을 빨래터로 애용
- 1970년대 온천수가 대량으로 용출되며 척산온천이 세간에 알려지며, 1973년에 강원도내 1호 온천으로 척산온천이 개장. 1976년 10월, 강원도는 척산 온천 지역,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을 유원지 시설지구로 정함

#### □ 역사적 특징 ❷: 설악한화프라자 온천지구

- 1970년대 정부 주도로 개발된 이후, 1980년대까지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단과 신희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주목받음. 1986년 한화그룹에서 인수

- 1990년대 들어 자연공원법 등 과도한 규제와 관광트렌드의 변화 등에 밀려 쇠퇴기로 접어들
- 2009년 7월 13일, 국내 최초로 보양 온천으로 지정·승인

#### □ 자연적 특징 ①: 척산온천지구

- 척산온천수는 라돈과 불소 성분이 함유된 강알칼리성 온천으로, 지하 450m에서 수온 43~53℃도 정도로 일평균 약 4천여톤이 용출됨
- 척산온천수의 감촉은 매끄럽고 물빛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특히 피부 및 소화기 관련 질환,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고,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치아 건강 및 안과 질환 및 외상 등에 효과가 있음

#### □ 자연적 특징 ②: 설악한화프라자 온천지구

- 설악 한화프라자 온천지구의 '한화 호텔&리조트' 온천은 속초시 장사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4년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운영
- 온천공은 모두 4개 공이 골프장 주변에 개발되어 있으며, 굴착 심도는 최고 754m까지 굴착되었으며 이용허가량의 총량은 3,367톤/일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양은 4개 온천공에서 각각 90~1,059톤/일 사용. 1일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총량은 1,701톤/일
- 한화 호텔·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온천수에 대한 용출온도 및 간이수질
  - 온천수 용출온도는 34.3~50.7℃로 관측됐으며, 수소이온농도는 8.25~8.80으로 약알칼리성 내지는 알칼리성의 수질특성을 보임
  - 4개 온천공 모두 양이온은 Na가 우세하며, 음이온은 HCO<sub>3</sub>가 우세한 Na-HCO<sub>3</sub>형을 보여주고 있음
  - 온천수 내 SiO<sub>2</sub>가 40mg/l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실리카 온천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1호공, 2호공 및 3호공이 실리카 온천에 해당

## □ 지역적 특성

- 속초는 강원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관광지임
  - \* 내비게이션 티맵 데이터를 활용한 2020년 검색 건수 상위 관광지에서 강원도 내 관광지 4곳(속초관광수산시장, 경포해변, 속초해변, 낙산사)이 10위권을 차지
  - \*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 2020년에 속초관광수산시장이 8위 → 4위, 속초해변이 12위 → 9위로 상승(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http://datalab.visitkorea.or.kr))
- 속초 관광지 매력은 설악산, 동해바다, 온천, 청초호, 영랑호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 강원도의 관광 매력도는 무엇보다도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을 손꼽을 수 있으며, 주로 가족 또는 연인, 친목모임 등 다양한 관광객에 의해 휴양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울까지 이동 거리가 175.4km에서 150.2km로 25.2km가량 줄면서 서울까지 이동시간도 종전 2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대로 40분 단축
  - 기존 경춘선을 확장하여 춘천까지 연장하는 고속철도가 '27년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속초역까지 1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속초 방문객 연령층은 20대~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40대~50대 방문객이 다수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http://datalab.visitkorea.or.kr))
- 설악산 국립공원, 척산온천, 동해항·해변 등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속초는 바다, 산, 호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경관, 생태적 건강성을 지닌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자연 관광지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 속초 관광객이 크게 증가

- 현지 소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비대면 캠핑과 차박의 유행으로 관광 소비는 오히려 감소
- 설악산, 해수욕장, 대포항 등의 대표 관광지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온천지구로의 유인력이 상대적 부족하다는 지적
  - 온천지구로의 관광객 이동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 확대 필요

#### □ 온천지구 재생 추진 현황

- 1985년에 척산온천휴양촌을 준공하고 2009년 5월에 척산 온천관광지구로 지정
  - 2009년 ‘온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 2012~2016년 설악동을 4계절 국민휴양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온천 휴양마을 조성
  - 2012년에 야외 족욕 체험시설, 온천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휴게시설 등을 갖춘 척산족욕공원 개장
- 2017년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해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하여 속초시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공동급수에 대한 계약·공사·시설분담금·사용료·급수제한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2017년 2월 강원도는 제6차 강원도 관광 개발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척산온천 관광지를 종합적인 휴양, 레저시설을 갖춘 4계절 종합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발표
  - 148,00㎡ 부지에 헬스케어 접목한 고급 레지던스와 온천과 연계된 풀빌라 리조트를 조성하는 ‘속초 복합 주거·휴양단지’ 개발 추진
  - 1단계로 주거단지에 20실 규모의 고급 레지던스(생활형 숙박 시설) 시설 조성하여 척산온천수를 방마다 공급
  - 레지던스 조성과 함께 외국 유명 휴양지에서 볼 수 있는 단독 풀빌라도 20여개 동 조성. 풀빌라에는 독립적인 수영장과 함께 척산온천 천연 스파시설 및 테마별 산책로 등을 만들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

- 설악동의 특색있는 시설조성 및 전반적인 환경정비, 성수기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결 등을 위하여 2024년까지 총 264억원을 투입하여 '설악동 재건사업'을 추진할 예정

## □ 도시발전 전략

### ○ 여성·가족이 안심하고 체류하는 온천 베드타운 조성

- 여성은 여행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함. 그리고 여행 장소를 선택하는 데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침
  - \* 가족여행 시 남편은 여행 상품(패키지, 에어텔 등)을, 아내는 여행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여행신문, 2020.3.26.)
- 속초 관광객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5년간 관광객 증가율은 남성이 6.1%, 여성은 12.3%), 속초지역의 온천과 관련된 검색량 비교('20.1~'21.6)의 비교 결과 역시 여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결혼하지 않는 싱글족의 증가, 자유롭게 훌쩍 떠나 '혼행'을 즐기는 사회문화 확산 등으로 혼자 떠나는 여성 여행객이 증가 추세
  -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솔로 여행을 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온천과 스파(spa)는 피부미용, 수족냉증이나 부인병에 좋고 청결과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어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지이나, 여성 혼자 떠나는 여행의 제약요인(유흥·향락문화 중심 등)의 극복이 온천관광의 과제로 볼 수 있음
  - 구성원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거리환경 조성
  - 퇴폐와 향락문화로 얼룩진 온천문화를 건전한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의 장, 자연과 하나 되는 쉼터로 탈바꿈하도록 객실과 온천장을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도록 개조 필요
- 여성과 가족의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속초 온천지구만의 특색을 갖는 인프라 확충 필요
  - 온천욕과 함께 스파, 마사지, (모래) 찜질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거나, 여성 또는 가족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 같은 레저시설 확충

### ○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온천지구로 특화

- 과거에는 일과 여가를 뚜렷하게 분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일상화되면서 일터와 집의 경계가 무너지고 원격근무가 체계를 잡음
  - 코로나 장기화로 집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서 집과 사무실이 아닌 점휴양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색관광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
  - 강원도 주요 시군별 워케이션 선호도는 속초, 강릉, 고성, 평창, 정선 등의 순으로 알려짐(강원도민일보, 2022. 3. 25.일자 황선우 기자, “쉬며 일하며 휴양지 출퇴근...강원 ‘워케이션’ 인기”)
- 늘어나는 워케이션 수요를 반영하여 온천 관광도시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 추진 필요하며, 온천지구 전범위에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하여 어디서나 원격근무가 가능하게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장기체류를 위한 홈스테이 상품 개발 등이 요구됨

### ○ ‘한철’ 여행지가 아닌 ‘사계절 웰니스 스파 관광지’로 관광상품 전략화

- ‘관광지 체류 기간’은 관광객의 소비 지출액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 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져 지역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킴
- 교통이 발달하고 SNS가 보편화하면서 하나의 목적지만을 지정·방문하던 점(點)형 형태의 관광에서 지역 연결노선(동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방문하는 선(線)형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
- 강원도 관광은 인근 도시의 유명 맛집과 명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시군을 넘나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속초와 함께 강릉·고성·양양 등을 하나의 코스로 인식
- 속초가 단순 먹거리 체험이나 경관 감상 위주의 ‘스쳐 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장시간 머물면서(체류) 마음과 정신이 힐링·공감·위로·치료받는 도시가 되도록 웰니스 관광 요소를 극대화할 필요 있음
  - 속초 온천지구가 속한 강원 영동권은 전국 산림면적의 21.5%, 강원도의 82%를 차지. 리조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파 및 온천시설이 구축되어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과 수자원을 보유

- 입지적 특성을 살려 약초와 허브 등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해양자원(해양심층수 자원 포함)과 온천자원을 활용한 수치료 프로그램 등 웰니스 상품을 개발·운영 필요
- 산악자원(봄·가을)·해양자원(여름)·온천자원(겨울) 등의 웰니스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계절별 편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사계절 고른 방문을 유도하도록 속초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프로그램 마련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759>

#### 4. 경상북도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

##### □ 종합 특징

[표 3-11]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지역특성

구분	주요 내용
울진 온천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진군은 동해의 '해수욕', 금강송 군락지의 '산림욕'과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삼욕(三浴)의 고장으로 불림</li> <li>• 울진군이 보유한 8기 원전(한울 원전 6기와 신한울원전 2기)으로 인한 원전 도시 이미지가 강함</li> <li>• 광역 고속 교통망이 부재하여 서울에서 5시간 이상 소요돼 관광객 유인에 어려움이 있음</li> </ul>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관광요충지로 관심 증가</li> <li>• 전국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천혜의 청정 도시</li> </ul>
지방자치단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진온천 특화 관광지구 조성 계획 수립(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li> <li>• '울진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해수욕·온천욕·산림욕을 즐기는 종합관광 콘텐츠 구축 추진</li> </ul>

출처: 울진군 현장조사 및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60-373)으로부터 재구성함

##### □ 부문별 특징

- 한국형 쿼어오르트 온천 해양 치유도시로 발전
  - 독일의 쿼어오르트(치유단지)와 같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온천·해양 치유도시로 도약
  -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도 의료기반이 취약한 경북·강원 일대에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치유 관광을 토대로 부가가치 창출
  - 우수 해양 레포츠 시설 활용 마린 스포츠 선수 및 관광객을 겨냥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블루 온천 치유를 위한 프라이빗 도시 인증제 도입
  - 울진 온천지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

- ‘원전 도시’에서 ‘청정 웰니스 스파 관광도시’로 리포지셔닝
  - 청정 도시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하여 원전 의존형 도시에서 매력적 힐링 온천 지구로 탈바꿈
  -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지역 내 의료시설 또는 명상, 요가 등의 웰니스 시설 확충,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온천휴양의 인지도를 높이고 웰니스 관광의 수용태세를 높이는 데 주력

#### □ 지역 특성 분석

-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동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서쪽으로는 봉화군과 접하여 낙동강의 지류인 초항 천의 경계가 되고, 남쪽은 영덕군, 서남쪽은 영양군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시를 접하고 있음
- 울진 온천지구는 울진군 북쪽 끝에 자리한 덕구 온천지구와 남쪽 끝에 자리한 백암온천관광특구로 구성
  - 죽변 해심원 온천지구는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온천지구로서 기능이 제한적이고, 성류 온천지구는 아직 미개발된 상태
- 울진군에는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을 중심으로 관광호텔 3개소와 콘도미니엄 2개소 등 경상북도 전체 객실 수의 1.7%인 712개의 객실 보유

#### □ 역사적 특징 ❶: 덕구온천

- 고려 말기 사냥꾼들이 사냥하던 중에 상처를 입고 도주하던 멧돼지가 계곡에서 몸을 씻고 활기차게 도망친 것을 기이하게 여기다가 땅에서 온수가 용출되는 온천을 발견했다는 설화가 존재함
- 1979년에 덕구온천개발(주)에서 무동력으로 송수관을 통해 온천수를 개발
- 1981년에 울진군은 덕구온천개발(주)에 국유림 사용을 허가, 덕구온천개발(주)은 울진군에 송수관로 등 시설물 기부채납함. 1983년에 온천지구 군립공원으로 지정. 2015년에 덕구온천이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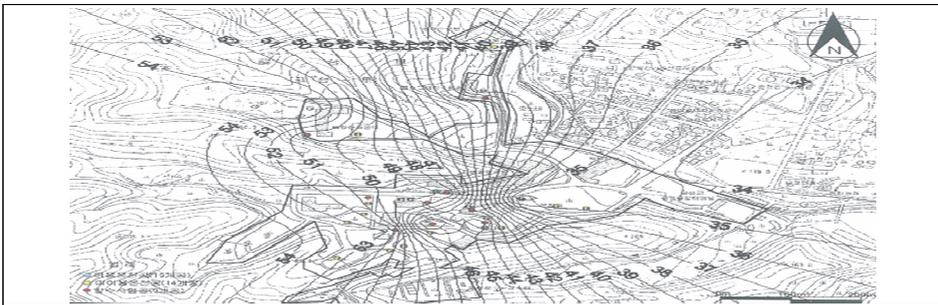
### □ 역사적 특징 ②: 백암온천

- 신라 시대 사냥꾼이 창상을 입은 사슴을 추격하다가 해가 저물고 다음날 사슴이 뜨거운 물에 상처를 치유하고 도망치는 것을 발견했다는 설화가 존재함
- 조선 광해군 시절인 1610년에 '판중추부사 기자헌이 풍질치료를 위해 평해 땅 온천에서 목욕하기를 청하니 광해군이 잘 다녀오라며 휴가를 주고 말을 지급했다'라는 문헌이 전해 내려옴
- 1931년에 일본인이 최초의 현대식 일본 여관인 평해 백암온천 관을 신축. 이때 사용한 상호가 오늘날의 백암온천으로 전해짐. 1979년 12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종합 휴양단지로 발전. 1997년 1월 18일에 관광특구로 지정

### □ 자연적 특징

- 덕구온천은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 있으며, 해발 290여 미터에서 자연용출하여 계곡 아래에 있는 온천시설까지 온천수가 공급
- 덕구온천은 「온천법」 제정 이전, 이미 개발된 온천으로 1983년도에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및 보양온천으로도 지정
- 자연용출하는 온천공은 모두 5개 공으로 구성, 온천공의 굴착 심도는 80~30m이며, 굴착 구경은 75mm

[그림 3-1] 울진군 등수온선도



출처: 울진군 내부자료

- 덕구온천에서 개발된 온천공은 모두 5개 공
  - 1호공, 2호공, 3호공은 한 개의 배수관을 이용하여 온천수가 이동
  - 4호공, 5호공은 각기 다른 배수관 이용
  - 온천공별 자연 용출량을 측정한 값으로써 1호공, 2호공, 3호공을 합한 34호공이 일일 약 1,18톤/일이 자연 용출
  - 35호 공이 약 561톤/일, 36호 공이 431톤/일 자연 용출
  - 5개 온천공에서 자연 용출되는 총량은 약 210.3톤/일
- 덕구온천에서 자연용출 시 관측된 용출온도 및 간이수질
  - 용출온도를 보면 42.3~42.5℃로 3개 온천공 모두 비슷한 용출온도를 보임. pH 값은 8.49~8.53으로 약알칼리성 내지는 알칼리성의 특성
  - 전기전도도 값은 202~208uS/cm의 범위를 나타냄
  - 용출온도 및 간이수질의 특성으로 볼 때 3개 온천공 모두 같은 대수층의 온천수로 추정
- 주요 양이온, 음이온별 수질 유형을 해석한 것으로서 덕구온천의 모든 온천공이 Na-HCO<sub>3</sub>형이며, 수소이온농도로 볼 때 34호공, 35호공은 약알칼리성, 36호공은 알칼리성 온천으로 분류

[그림 3-2] 백암온천지구 온천공 현황도



출처: 울진군 내부자료

□ 지역적 특징

- 울진군은 광활한 동해에서의 ‘해수욕’, 태백산맥 자락 금강송 군락지에서의 ‘산림욕’, 심신을 녹일 따뜻한 물이 솟구치는 온천에선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삼욕(三浴)의 고장으로 불림
- 울진군은 해양·산림·문화·레저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온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과, 성류굴·불영사 계곡 등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편
  - 웰니스 트렌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방문객이 연중 고른 편이나,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피서객이 편중됨
- 광역 고속 교통망이 부재하여 동서로는 국도 36호선과 8호선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으로는 확장하고 있는 7호선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동서 간 교류가 어려운 편임

[표 3-12]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온천지구별 특성

구분	지역적 특성
덕구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단 한 곳뿐인 자연 용출 천으로서 온천수를 퍼 올리기 위한 전기시설 없음</li> <li>• 약알칼리의 온천수로서 수질 좋음</li> <li>• 온천 주변에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등산로를 갖추어 계곡 트레킹을 통해 산림욕을 즐길 수 있음</li> <li>• 산책로 코스에는 전 세계 곳곳의 교량을 재현한 산책로, 효자샘, 용소폭포, 연리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하고 원탕에서의 족욕을 즐길 수 있음</li> <li>• 덕구 관광호텔·리조트만이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며 테마시설 없음</li> </ul>
백암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1990년대 초까지 동래, 유성, 수안보, 부곡온천 등과 함께 전국 5대 온천의 하나로 불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탕 고려호텔, 성류파크관광호텔, 백암스프링스호텔, 한화리조트 등 대형 온천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음</li> </ul> </li> <li>• 대형 시설과 달리 일반 숙박업체는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급감함에 따라 폐업 속출. 인근 주변 상가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곳이 많음</li> <li>• 구불구불한 진입 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관광객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63-364)로부터 재구성함

### □ 온천지구 재생 추진현황

- 1992년에 백암지구를 국민 여가 지대 관광거점 도시로 개발하며, 휴양형, 체류형의 다양한 여가 공간조성을 위해 내륙과 산악 및 해안 간을 연계하는 여가 축을 형성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 1995년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을 통해 울진은 경북 북부권으로 분류하여 영덕, 울릉, 포항 등의 연계지역과의 주요 관광벨트 설정
- 2015년에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족 체험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진에 온천특화 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 발표

[표 3-13] 울진군(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의 재생 추진 현황

구분	온천지구 재생 추진
덕구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덕구 온천수 활용 지역 향장 제품개발 및 홍보 지원 추진</li> <li>• 주민 예술촌 힐링 공원 조성을 통해 덕구온천과 연계한 문화체험, 놀이 및 힐링 공간을 마련</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체험관 리모델링(1,020㎡): 예술전시관, 다목적 강당, 로비, 예술체험 공방, 교육실 등</li> <li>- 예술작가 레지던스 시설 설치(90㎡) 예술가 공동 및 개인 작업실, 회의실, 공용부엌</li> </ul> </li> <li>•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울진군 북면 덕구리 일원에 2024년까지 주민소득증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li> </ul>
백암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암온천 르네상스를 위해 온천지구 옆에 백암 숲 체험교육장, 백암온천 생태공원, 백암산 치유의 숲 등을 조성 중</li> <li>• 백암온천 관광지 체류형 복합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백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행</li> <li>• 백암온천 활성화센터 개선사업 추진 계획 중</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64-367)로부터 재구성함

### □ 도시발전 전략

- 한국형 쿠퍼오르트 온천 해양 치유도시로 발전
  - 울진군은 동해안 최초로 해양자원을 이용해 치유 관광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병행하고자 2023년 완공 목표로 ‘해양치유센터’ 건립

-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이용해 신체와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일본, 유럽에서는 치유산업으로 인정
- 특히 독일은 산림, 해양, 온천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재활 치료하는 쿠어오르트(Kurort, 치유단지)가 발달
  - \* 쿠어오르트는 지역에서 나오는 광천수(온천), 바다, 기후, 크나이프 요법 적용 등 4가지 영역을 치료 영역으로 활용하도록 조성된 지역
- 울진군에 접해 있는 경상북도, 강원도는 노인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골절 등 각종 노인질환, 교통사고,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나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
- 덕구·백암온천 등 울진의 자연 자원과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쿠어오르트형 프로그램 마련 필요

**[표 3-14] 울진군 해양치유형 쿠어오르트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원리	종류	활용자원 등
온천요법 (balneotherapy)	온천수 성분과 천연가스 등을 치유 인자로 활용	입욕, 흡입, 운동 등	백암온천, 덕구온천
수치료 (hydrotherapy)	물의 온도, 수압, 부력 등을 치유 인자로 활용	크나이프 요법, 마사지, 운동 등	
해수요법 (thalasotherapy)	바다의 기후, 온열, 미네랄 등을 치유 인자로 활용	해수욕, 기후요법, 해조 요법(algotherapy)	해변, 해수욕장, 스킨스쿠버
산림요법 (forest Therapy)	산림환경에서 산림 치유 인자를 활용	숲속 일광욕, 풍욕, 공기욕, 산림욕, 압화, 산림명상 등	왕피천 생태탐방로, 금강 소나무숲길, 통고산자연휴양림, 구수곡 자연휴양림
식이요법 (Dietetic therapy)	균형잡힌 식품 선택과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질병의 개선	보양식, 영양식	산더덕, 울진송이, 고초령 산양삼, 울진대게 등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369)

- 울진이 자랑하는 청정해수, 해송림(금강송) 등의 산책에 해수욕, 요트 체험 등의 해양레저, 붉은 대게, 송이 등의 보양 음식, 그리고 온천 스테이 연계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권장

-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와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양 온천프로그램을 받게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유 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우수 해양 레저시설을 활용한 해양 레포트 기반의 온천 치유 상품개발 필요
  - 울진군은 해양레포츠센터, 요트학교 등 해양 레저 인프라가 매우 우수함.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덕구 온천지구 내 실내 서핑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어 해양레저관광 일번지 입지화 전망
  - 마린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와 행사를 관람하는 관광객이 온천휴양과 스포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단체 관광객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거나 온천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자연스레 온천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

#### ○ 코로나-블루 온천 치유를 위한 프라이빗 도시 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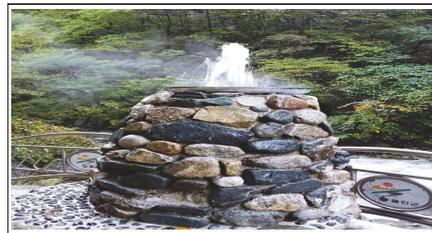
- 울진 온천지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온천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장소
  -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2016. 1.~2021. 6.), 코로나 이후 온천관광의 수요는 대중탕 → 가족탕으로, 리조트 → 풀빌라로 변화 추세
  - 울진 온천지구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를 간직하여 복잡한 도시를 탈출하고픈 현대인들에게 천혜의 안식처 제공,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픈 도시인의 심터로 적합한 공간
  - 울진 온천지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
  - 일본 미나미토호쿠(南東北)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언택트형 온천 관광도시로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 필요
    - \* 코로나 전·후의 사회적 변화로 온천 관광지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변화
    - \* 일반적으로 온천 관광지는 '교통 편의성'을 최우선 요소로 손꼽았음(문제홍, 209). 각 지자체는 저마다 관광지에 역,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투자 추진

- \* 해외 온천관광 경험이 있거나, 1~2시간 정도로 잠시 머물고 가는 이용객에게 ‘교통 접근성’은 온천 관광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사회 풍조가 확산하면서 관광객들로 붐비는 장소보다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 머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행지가 주목받음

○ ‘원전도시’에서 ‘청정 웰니스 스파 관광도시’로 리포지셔닝

- 울진군은 2020년을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원년의 해’로 정하여 새로운 사업 발판을 추진
  -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그린 경제를 실현하고자 3,680억 원 규모로 수소에너지 실증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차세대 에너지 개발 중
  - 원자력학회(2018)에 따르면 울진 경제의 원전산업 직접 의존도(협력업체 포함)는 약 35%이나, 식당·숙박업 등 2차 파급경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60%가 원전 경제에 의존
  - 지나치게 높은 원전 의존도를 탈피하여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자 해양과 치유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계획 수립
- 울진군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고, 청정 1급수인 왕피천이 흐르는 등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천혜의 청정 도시(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울진( $1\mu\text{g}/\text{m}^3$ ), 전국( $19\mu\text{g}/\text{m}^3$ ), 환경부 2021년 1월)
- 울진온천의 가장 큰 장점은 쉬지 않고 데우지 않는 바로 ‘자연 그 자체’라는 점이 특징
  -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온천지구별로 감성 키워드(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맛있다 등)를 분석한 결과, 울진 온천지구는 대표적으로 “아름답다”, “멋지다”, “물 좋다”, “맑다” 등의 감성어가 도출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풍성한 산림을 활용하여 청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 있음
- ‘울진=청정도시’를 이미지화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웰니스 휴양도시로 리포지셔닝 해야 함

-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회 삼아 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울진의 자연 자원기반으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확립하는 전략이 필요
- 온천지구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역 내 의료시설 또는 명상, 요가 등의 웰니스 시설을 확충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온천휴양의 인지도를 높이고 웰니스 관광의 수용태세를 높이는 데 주력



출처: <http://www.seniorm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7>

## 5. 경상남도 창녕군(온천관광지구)

### □ 종합 특징

[표 3-15] 창녕군(온천관광지구)의 지역특성

구분	주요 내용
창녕(부곡) 온천 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남도 중앙 북단, 창녕군 최동단 및 최남단에 위치</li> <li>북으로 대구, 동북으로 울산, 동남은 부산, 서남은 창원과 인접</li> <li>중북내륙고속도로, 국도 79호선 및 지방도 1008호선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도시로 접근 용이</li> <li>-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통 및 대합 산업철도 구축 예정</li> </ul> </li> </ul>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곡하와이 폐업에 따른 랜드마크 부재</li> <li>연인·가족 중심의 고급 숙박시설 등 최근 관광 트렌드 부흥시설 미흡</li> <li>온천·스포츠파크 연계 플랫폼 부족</li> <li>온천·숙박·음식점 편중으로 온천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li> </ul>
지방자치단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축제 개최를 통한 부곡온천 활성화</li> <li>- 온천이용업소 지도·점검 실시</li> <li>- 온천 종사자 교육 실시</li> <li>- 온천관련 시설물 점검</li> </ul> </li> <li>스포츠 인프라 활용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온천이용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스포츠파크 조성 및 전국규모 축구대회 지속 유치 노력</li> </ul> </li> </ul>

출처: 경상남도 내부자료를 재구성함

### □ 부문별 특징

-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330만명에서 2013년 38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
-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발생, 2017년 부곡하와이 폐업,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지속 감소
  - 최근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라 동계전지훈련 및 연계 관광객 증가세
    - 관광객 현황: ('08년) 330만명 → ('13년) 388만명 → ('17년) 310만명 → ('19년) 280만명 → ('21년) 262만명 → ('22년) 264만명

- 부곡온천 관광특구 내, 등록업소는 2019년 기준 265개 업소로 ▲관광숙박업 4개소 ▲공중위생업 54개소 ▲식품위생업 205개소 ▲체육시설업 5개소로 파악
  - 부곡온천 관광특구 내, 숙박업소는 2019년 기준 24개소로 1,54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 특성 분석

- 부곡온천관광특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초 온천이 발견된 것은 1973년 1월 10일이며, 1997년 1월 18일 온천관광 특구로 지정됐으며 범위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부곡리 일원이 온천특구지역이고 면적은 4,819,382㎡
  - 관광객 및 수용능력을 살펴보면 ▲관광객은 평일 1만명·휴일 2만여명으로 연평균 40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1일 숙박은 최대 8,740명, 목욕은 1일 2만명이 이용 가능
  - 온천시설 현황(2022.12.기준)

온천명	전체 이용시설	목욕·숙박업소	의료시설	화장품 제조시설	유원 시설업	족욕장	기타
부곡 온천원 보호지구	26개	24개	-	-	-	2개	-

[그림 3-3] 부곡온천 입지 및 여건



출처: 창녕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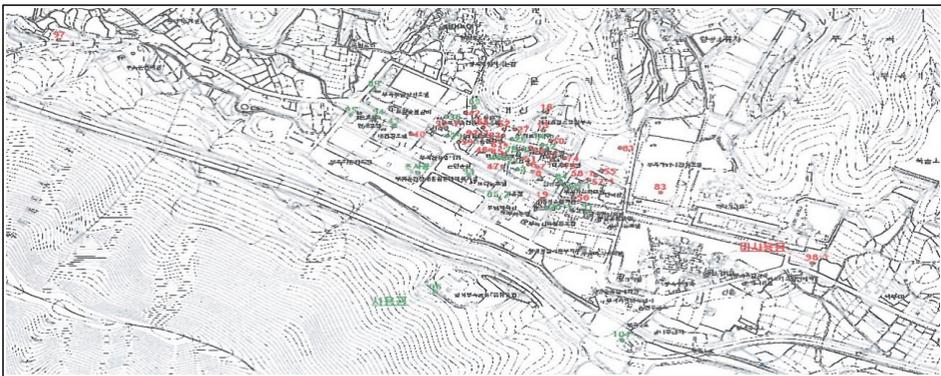
□ 역사적 특징

- 부곡온천은 예부터 가마솥처럼 생겼다 해서 부곡이라 불렸고, 마을(온정리)에 옴샘이라고 불리던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짐
- 옴 환자 및 나병 환자 등 피부질환자들이 부곡온천에 와서 치료를 하는 등 온천 수질이 타 온천보다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지금에 부곡온천이 개발된 것은故신현택 옹이 부곡면 거문리에 겨울눈이 바로 녹고 물이 따듯하여 한겨울에도 빨래를 할 수 있는 샘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72년 6월부터 온천굴착을 시작. 1972년 12월 28일 지하 63m지점에서 온천수가 솟아오른 것으로부터 시작(창녕군 홈페이지)
- 1977년 6월 29일 국민관광지로 지정, 1981년 9월 30일 온천지구지정(1981년 6월 1일 「온천법」시행), 1997년 1월 18일 4,819,382㎡관광특구로 지정·고시

□ 자연적 특징(온천수 현황)

- 온천이용허가 현황
  - 온천이용업소: 25개 업소, 41개공(군유 9개공, 사유 32개공), 허가량: 5,300㎥/일

[그림 3-4] 부곡온천 온천공 위치도



출처: 창녕군 내부자료

## ○ 부곡온천의 특징점

- 최고 78℃의 국내 최고 온도와 유황이 함유된 양질의 온천수 보유
  - 피부노화 방지 및 성인병 치료,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
  - 1972년 개발, 1977년 국민관광지, 1997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온천 관광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1970년대~1980년대 국민 대표 신혼여행지로 널리 알려짐
-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 창녕스포츠파크, 창녕국민체육센터, 골프장 등 관광특구와 인근지역에 종합체육시설 구축

## ○ 온천수 이용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m<sup>3</sup>/일)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량	3,315	3,748	3,875	4,284	4,130	4,052	3,647	3,296	3,332	2,819	3,058	3,081

## ○ 온천수 수위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m)

연도	1982	2009	2014	2019	2021	2022
수위	85	276.94	318.9	312.61	228.54	235.74

## □ 온천지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 ○ 온천관광 활성화

- 온천축제 개최를 통한 부곡온천 활성화
  - 매년 4월 경, 부곡온천 축제를 통해 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부곡온천 홍보를 통해 부곡온천 활성화에 기여
  - 2011년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천대축제 개최

- 온천이용업소 지도·점검 실시
  - 온천이용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및 수시 점검으로 온천위생상태 및 온천수 이용 상황 점검·지도하여 온천자원 관리
  - 수위측정관 등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미설치 업소, 수질검사성적서 미게시 업소, 온천수 초과 사용업소 등에 대해 시정조치
- 온천 종사자 교육
  - 온천수 절약, 친절도 향상, 기타 온천수 보전에 관한 공지 및 교육으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온천관리 시설물 점검
  - 온천수 수질 및 사용량 관리
  - 관내 온천업소(연 1회)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수질검사
  - 정기온천자원검사(5년마다)로 허가량 재조정, 성분 분석 등 온천자원의 관리 철저
  - 온천원보호지구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

[그림 3-5] 부곡온천 관광특구 및 관광지 현황



출처: 경상남도 내부자료

## ○ 온천산업 육성

- 창녕관광코스 연계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를 다양화하고, 온천수를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곡온천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
  - 부곡온천 관광특구 진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1.10.), 부곡관광특구 온천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2020.6.), 부곡온천 관광특구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2019.9.) 등

## ○ 스포츠 인프라 활용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온천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

- 창녕 스포츠파크 조성
  - 부지면적 178,200㎡으로 축구장 7면, 야구장 2면, 주차장 등 마련
- 방문스포츠팀(전지훈련, 대회참가 등) 유치 노력

연도	팀수(팀)	인원(명)	연인원(명)
2021	163	5,881	61,846
2022	158	5,870	53,857

## □ 도시발전 전략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도, 창녕군) 시행('23. 7. ~ '23. 12.)
  - 사업성·경제성 분석 및 도입시설 제안 등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신청('23. 하반기)
- 기획재정부 '국비펀드 민간투자사업' 참가('23. 하반기)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온천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 우포늪 등 창녕군 생태자원 연계, 장·단기 휴양 등



출처: [https://www.korearank.com/tour/tour\\_detail.php?uid=25325](https://www.korearank.com/tour/tour_detail.php?uid=25325)

### 제3절 온천도시 관련 해외사례 분석

#### 1. 일본 온천도시

[표 3-16] 일본 관광경제신문의 '21년 '온천 100선'의 상위권 온천

순위	온천명	비고
1	구사쓰 온천(군마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째 온천 순위 1위 유지</li> <li>• 일본 최대 자연용출량을 자랑하며 46℃~48℃로 고온 유지</li> <li>•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반복적으로 몸을 담가 질병을 자연치유하는 목욕법인 지칸유로 유명</li> </ul>
2	오이타현 벳푸 온천	-
3	기후현 게로 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년의 역사를 지님</li> <li>• 매끈한 촉감으로 '미인의 물'로 칭함</li> </ul>
4	효고현 아리마 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li> <li>•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휴양차 자주 방문한 온천</li> </ul>
5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온천	-

순위	온천명	온천명	비고
6	에히메현 도고 온천		-
7	가나가와현 하코네 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온천</li> <li>• 100년 역사의 온천마을인 '하코네 유모토' 보유</li> </ul>
8	효고현 기노사키 온천		-
9	홋카이도 노보리베쓰 온천		-
10	오이타현 유후인 온천		-

참고: 구사스, 아리마, 게로 온천을 일본 3대 온천으로 꼽음

출처: 헤럴드경제(2021. 1. 22.)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 □ (사례 ①) 유후인(Yufu City, 由布市)

### ○ 지역 특성 및 현황

- 일본 큐슈 오이타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후인은 산지에 있는 조그만 도시로서 정주민구가 1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온천도시로 유명
  - 유후인의 면적은 3,610,000㎡이며, 1970년대부터 온천마을로 활성화
  - 유후인은 연간 4백만명 이상의 외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깨끗한 생태환경과 우수하고 풍부한 온천자원, 전통문화가 보존된 거리와 숙박시설, 청결한 온천욕 시설 등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

### ○ 온천 활성화 내용 일본의 유명 관광온천지

- 외부의 대기업이나 자본에 의한 온천개발이 아닌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온천중심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온 내발적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짐
  - 지속가능한 온천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작지만 주민 주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온천마을을 문화와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시켜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천산업의 성장과 주민소득의 제고를 이루어왔음(이제연·임태경, 2020: 91-93)
- 온천마을의 마케팅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
  - 유후인 온천마을의 청정 자연환경과 온천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딧불 축제, 음식 문화제, 영화제, 마라톤 대회 등 주민 중심의 행사·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소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제연·임태경, 2020: 91-93)
  - 아울러 이러한 널리 알려진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행사·이벤트를 수행함으로써 고급 휴양온천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대중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장소 마케팅을 수행함
  - 예컨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의 작품 “이웃의 토토로” 등과 같은 작품에서 유후인을 배경으로 제작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온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킴



출처: <https://www.japan.travel/ko/spot/707/>, <https://likewind.net/881>

- 유후인의 온천도시로서의 매력도는 온천관광에 있으나, 유후인에는 관광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존재함
  - 온천마을은 노천탕과 가족탕을 갖춘 고급 전통 료칸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과 족욕탕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광 자원은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함
  - 유후인 온천마을은 그 상징과 같은 낭만적인 긴린코(金鱗湖) 호수와 유후다케(由布岳) 산 외에도, 유후인 거리를 구성하는 소규모 상점과 공방, 전시관과 미술관,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레저·스포츠와 동시에 동화같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온천도시가 구성되어 있음

○ 성공요인 및 특징

- 주민주도적인 온천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온천·휴양과 레저·문화를 연계한 온천마을로서의 지역정체성 및 이미지의 구축
  -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고 온천자원의 오염 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꾸준한 관리 노력과 아울러 전통문화에 기반한 매력적인 온천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음
  - 이러한 지역정체성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민주도로 온천마을의 발전 전략과 온천 관련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 온천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외의 기업이나 거대자본을 통한 대규모 리조트의 개발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 및 도시관리를 수행 중임(이제연·임태경, 2020: 91-93)



출처: <https://thegate12.com/kr/article/98>

#### □ (사례 ②) 벳푸시(Beppu City, 別府市)

##### ○ 지역 특성 및 현황

- 벳푸시는 큐슈 오이타현에 소재한 활화산 아소산 인근의 오이타현 중동부 지역에 소재한 온천도시이며, 호리타 온천·벳부 온천 등 8개의 온천마을(벳부핫토, 別府八湯)로 알려진 온천도시로서 면적은 약 125.1km<sup>2</sup>에 달함
  - 약 2,200여 개의 온천공으로부터 일일 8.3만여 리터가 용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벳푸 온천은, 풍부한 온천원수를 관광 및 산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온천 관광도시로 유명한 벳부온천에는 연간 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일본 최고의 온천도시로 볼 수 있음

##### ○ 온천 활성화 내용

- 풍부한 온천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설립한 다양한 지역 중소기업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 및 교류형 관광산업 등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재생이 이루어짐
  - 체험 및 교류형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문화인 다케가와라 온천(竹瓦温泉) 거리 관광을 주민주도로 시행한 것을 계기로, 5~30명 규모의

소규모 그룹투어를 기반으로, 천연온천수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지역의 음식문화 체험, 휴양·레저 및 경관관광 등 다양한 범위에서 백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94-97)

- 다양한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중, 일본 특유의 온천문화로 자리잡은 “온천 순행(温泉巡り)” 프로그램에 기반한 “온천도 명인(温泉道名人)”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벳부지역의 전통적 온천욕장 또는 숙박시설의 온천 등 벳부핫토(別府八湯) 등록 목욕업소 150여개소 중 88개소를 경험한 온천 매니아에게 벳부 시청과 벳부관광협회에서 인증하는 “온천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벳부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명의 온천매니아들이 참여
- 그 외에도 자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 온천의 체험과 건강” 프로그램, 지역고유의 문화와 접목한 웰니스 건강 프로그램으로서의 “건강, 휴양, 미적, 체험, 풍경 프로그램” 등이 운영됨 (서만식, 2014)
-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전통거리를 걸어서 여행하는 워킹투어 형식의 “지역의 역사화 문화탐방” 프로그램, 기타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벳부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서만식, 2014)



출처: <https://likejp.com/3559>

## ○ 성공요인 및 특징

- 벧푸시의 사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하에 공공주도적인 온천도시 활성화 사례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온천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벧푸시 지역주민들은 ‘지역고유의 문화에 근거한 독자적인 온천기획’을 수립해 운영함으로써 국토교통성으로부터의 관광카리스마 지역으로 선정됨(이제연·임태경, 2020: 96)
-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이벤트와 연계된 홍보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온천자원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 매년 개최되는 “벧부핫토((別府八湯) 온천축제(온파쿠)”와 함께 2001년 이래로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는 “벧부핫토 온천박람회(別府八湯 温泉泊覽會)”를 통해 지역 여관조합 및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NPO 조직이 형성되면서 전술한 다양한 온천관광 프로그램들과 접목되어 온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온천축제(온파쿠)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온천관광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소통과 통합, 온천관광 활성화의 앵커로서의 역할로 발전하였음(이제연·임태경, 2020: 96-97; 서만식, 2014)
  - 온파쿠를 통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소득창출과 연계시켰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인재 육성과 추진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온천도시 활성화의 핵심적인 추진동력이 됨(서만식, 2014)
  - 현재 이 플랫폼에는 18여개의 지역에서 3,800여건의 관련 서비스·제품과 2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임(이제연·임태경, 2020: 96-97)



출처: <https://likejp.com/3559>

## □ (사례 ③) 쿠로카와(Kurokawa, 黒川)

### ○ 지역 특성 및 현황

- 일본 규슈 칼데라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인근의 구마모토현 미나미오쿠니마치에 소재한 쿠로카와 온천(黒川温泉)은 일본 온천 중에서도 가장 좋고 인기있는 온천으로 손꼽히는 곳임
  - 여타의 온천마을에 비해 대규모의 시설 없이 조용한 산 속(고도 700m)에 30여 개소의 전통료칸이 존재하는, 전통온천 문화에 기반한 휴양 온천관광 활성화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온천마을은 400년의 전통을 지닌 온천으로서, 20세기 초부터 료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를 이어 온천여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온천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노천탕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관련 온천산업이 발전함 (이제연·임태경, 2020: 89-91)

### ○ 온천 활성화 내용

- 산 속의 조용한 휴양온천의 컨셉 하에 노천온천과 동굴온천 등 개성적인 온천탕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함
  - 1970년대부터 쿠로카와 온천마을의 신세대(2, 3세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온천여관 시설들이 발전됨(쿠로카와 온천관광 협동조합, [www.kurokawaonsen.or.jp](http://www.kurokawaonsen.or.jp))

- “온천순행(温泉巡り)”의 일환으로 “뉴토테카타(入湯手形)”라는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온천마을 아무 료칸의 온천욕장 3개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익의 일부는 사업자에게, 일부는 료칸협동조합의 운영경비로 환원함
- 온천관광을 주 업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공동체로서 “쿠로카와온천 관광여관 협동조합”을 설립
  - 온천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주도한 마을공동체로서의 “쿠로카와온천 관광여관 협동조합(黒川温泉 観光旅館 協同組合)”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온천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특산품 산업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27개의 여관과 숙소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온천콘텐츠의 지속적인 홍보와 이윤의 공유 등 지속가능한 온천관광을 위해 1986년부터 조합을 결성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구로카와 온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여관으로 서로를 연계하는 “구로카와 온천 하나의 료칸”의 개념으로 공동체를 형성함(1980년대 200여개의 개별 간판을 제거하고 하나의 통일된 간판을 게재(쿠로카와 온천관광 협동조합, [www.kurokawaonsen.or.jp](http://www.kurokawaonsen.or.jp))
-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순환버스의 운영
  - 쿠로카와의 온천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천마을과 상업시설 등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를 운영하여 큐수 지역내 연계형 관광을 도모 (이제연·임태경, 2020: 89-91)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oy630&logNo=221197156532>

## ○ 성공요인 및 특징

- 지속가능한 온천마을의 발전을 위한 온천마을의 주민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해, 하나의 단일화된 온천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공동으로 지역 마케팅 및 온천관광 이미지 구축
  - 온천시설은 물론,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런칭하는 등 산업화 연계,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친환경 발전전략 등 지역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
- 산 속의 한적한 전통료칸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노천탕과 동굴탕 등의 차별화된 온천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고, 이를 기초로 꾸준한 명품 온천마을의 브랜딩을 시도
  - 2000년 이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온천마을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온천마을 주민들의 대를 이은 시설현대화와 투자,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온천마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방문객을 증가시켜 옴(쿠로카와 온천관광 협동조합, [www.kurokawaonsen.or.jp](http://www.kurokawaonsen.or.jp))
- 협동조합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차세대 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인 “쿠로카와 주쿠(黒川塾)”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세대 마을만들기의 주역을 모집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쿠로카와 온천관광 협동조합, [www.kurokawaonsen.or.jp](http://www.kurokawaonsen.or.jp))



출처: <https://digthehole.com/3728>, [https://www.kyushuandtokyo.org/spot\\_121/](https://www.kyushuandtokyo.org/spot_121/)

## 2. 유럽 온천도시

###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 of Europe)

- 그레이트 스파타운은 유럽 전역에 있는 온천도시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7개국 11개 도시에 위치한 초국가적 문화유산이며, 2021년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UNESCO)에서 문화유산에 등재됨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총 7개국

[표 3-17]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Great Spa Towns of Europe)

연번	국가명(소재국)	도시
1	오스트리아	바덴바이빈(Baden bei Wien)
2	벨기에	스파(Spa)
3	체코	프란티슈코비 라즈네(Františkovy Lázně)
4	체코	카를로비바리(Karlovy Vary)
5	체코	마리안스케 라즈네((Mariánské lázně)
6	프랑스	비시(Vichy)
7	독일	바트 엠스(Bad Ems)
8	독일	바덴바덴(Baden-Baden)
9	독일	바트 키싱엔(Bad Kissingen)
10	이탈리아	몬테카티니 테르메(Montecatini Terme)
11	영국	바스(Bath)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heritage.unesco.or.kr)에서 재구성

### ○ 등재 가치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은 18세기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절정에 달했던 유럽의 온천(spa) 열풍(European spa phenomenon)을 나타내는 유산으로서 그 문화적 보존가치를 지님

- 유럽전체를 아우르는 유산은 오스트리아의 바덴바이빈, 벨기에의 스파, 체코의 프란티슈코비라즈네, 카를로비 바리, 마리안스케 라즈네, 프랑스의 비시, 독일의 바트 엠스, 바덴바덴, 바트키싱엔, 이탈리아의 몬테카티니 테르메, 영국의 바스 등 7개국 11개 온천도시들로 구성됨
- 유럽의 온천 열풍에 기여했던 수많은 온천도시 중, 가장 세련되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온천중심 도시발전의 전성기 특징을 보유함
- 각 온천도시들은 서로 다르지만 천연 광천수 온천자원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공통점과 치유·치료·휴양 등 사회경제적 기능을 포괄하는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함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들의 온천시설들은 천연 광천수라는 온천자원을 활용하여 목욕과 음용 등의 실제적 목적을 반영하여 욕탕, 음용실, 양수실, 치료시설, 회랑 등이 갖추어진 형태로 발전됨
  - 그 외에도 숙박시설, 회의실, 공연장, 카지노(casino) 등은 물론 온천수 배관체계, 소금 생산시설부터 철도 및 케이블카 등의 운송시스템까지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종합적인 치유·재활 활동을 가능하게 함
  -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 시설과 동시에 치유숲, 자연공원, 정원 및 산책로, 스포츠시설 등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환경을 포함한 도시계획은 온천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 도시공간과 건축물 등은 도시전반의 경관과 시각적이며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치유와 관계된 신체활동 및 레저·여가활동을 보조하고 있음
- 그레이트 스파타운의 등재기준
  - 유럽 그레이트 스파타운은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전반부까지 의학과 온천 치료·치유에 관한 대체의학, 여가 활동이 발전하면서 그 혁신적인 구상을 구체화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스파타운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천연 광천수 온천자원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특화된 도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각 국가 및 여타 지역에서 온천도시의 열풍을 이끌었고, 그 결과로 온천 치료·치유를 발전시킴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은 방문객의 선호도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을 통해 유사한 기능의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험적인 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치유중심의 온천도시를 발전시킨 주체는 온천수에 관심을 둔 의사 등 의료업계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온천자원 및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의 구성에 건축가·토목전문가 및 조경전문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음용 및 목용용 자원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쿠어하우스·쿠어살(Kurhaus·Kursaal: 19세기 스파타운 다목적 건축의 전형으로, 근대 MICE·문화 중심시설), 펌프실, 음용실(trinkhalle), 주랑·회랑 등 온천 건축의 전형들을 설계해왔고 발전시켜왔음
  - 유럽의 그레이트 스파타운의 원류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이후 18세기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절정에 달했던 유럽 스파 열풍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볼 수 있음
    - 온천수를 통한 치료 및 치유 활동은, 목욕을 통한 외용 또는 음용 등의 내복을 통해 치유 및 재활 치료 등의 활동을 통해 매일 주기적으로 행해지던 고도화된 탕치요법을 주로 하여, 공연·문화예술 등 여가·문화 활동과 온천도시의 자연과 경관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결합하여 발전되어 왔음
    - 온천도시는 이와 같이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스파건축물(spa architecture)의 형태와 기능 등을 최적화시켜 발전되어 왔으며, 자연환경과 조경물 등을 활용한 공원·산책로 등은 온천치유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간의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여 온천문화를 발전시켜 옴
- 그레이트 스파타운의 보존과 관리
- 그레이트 스파타운의 보조과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국가와 국가와 지방정부(예: 독일의 경우 주정부(Länder)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
  - 스파타운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 등은 해당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과 도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공적인 또는 사회공동체적인 소유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각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자산관리자 또는 조정자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관리계획(Local Management Plan)에 해당 자산관리계획(Property Management Plan)과 그 실행계획이 포괄되어 지역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
  - 이러한 자산관리계획은 온천도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개별 온천도시가 소재한 국가별로 세계유산중심담당자(World Heritage Focal Points) 및 기념물·유산을 보존과 관련된 정부담당자로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11개 온천도시로 구성된 “그레이트 스파타운 관리위원회(Great Spas Management Board, GSMB)”는 전술한 정부간 위원회와의 협업 및 협의를 통해 관리를 조율하는 등 유산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그레이트 스파타운 관리위원회”는 종합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실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감시 △연차보고서의 감수 및 발간 △사무국의 구성·운영 △기타 온천도시 관련 활동의 지원 등을 수행
  - 지역 매니저그룹(Site Managers Group)에는 개별 스파타운의 도시 매니저와 사무국, 컨설팅 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매니저그룹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집단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토론과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그레이트 스파타운 관리위원회’에 컨설팅을 수행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출연한 사무국을 통해 국가간 공조 등을 지원
- 개별 스파타운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 및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을 지속시키며 온천자원과 도시 전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온천도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자원의 적절한 공급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설정함
- 현존하는 온천도시의 가능유지를 위해 환경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변화 차원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 관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지속적으로 온천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스파타운의 구성인자와 이해당사자, 완충지역과 공유공간, 그 자연적 배경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도시 및 경관의 관리가 필요함



The Roman Great Bath and Abbey - City of Bath



Hot Spring Vřídlo - Karlovy Vary



Thermes of Spa - Spa



Large spa establishment - Vichy



Hall of springs - Vichy



Singing Fountain and Spa Colonnade - Mariánské Lázně

출처: <https://whc.unesco.org/en/list/1613/gallery/&maxrows=21>

## □ (사례 ①) 독일의 바덴바덴(Baden-Baden)

### ○ 지역 특성 및 현황

- 독일의 바덴바덴은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슈바르츠발트(Schwarzbald) 산지 북서쪽 기슭에 있는 인구 5만의 소도시로서, 19세기초부터 온천 휴양업을 팔두로 관광과 온천, 회의·문화 산업 등을 연계한 온천치료·치유관련 도시로 널리 알려짐
  - 독일의 바덴바덴 지역은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카라칼라(Caracalla) 황제가 즐겼던 유서깊은 온천으로, 당시의 시설과 유적지 등이 남아 있으며, 온천관광의 특성에 맞게 casino의 탄생지로도 유명함
  - 로마시대부터 이어진 목욕문화는 과거 로마시대의 유적을 현대식 온천시설로 개조하여 목욕장 및 관련 치료시설 등의 부대시설로 재탄생함
- 독일의 바덴바덴이 의미하는 바는 온천 중에 최고의 온천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를 보유하여, 로마시대부터 관절염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온천이었다고 전해지며, 현대에도 그 명성에 부합하는 온천 치유 및 휴양의 메카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온천도시임

-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 숙박 및 부대시설, 잘 구비된 치료·치유·의료시설 및 인프라 등은 물론 도시 내에 다양한 온도의 목욕장 및 탄산온천탕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5-77)

#### ○ 온천 활성화 내용

- 독일의 바덴바덴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관광과 헬스케어를 연계한 “건강관광(Health Tourism)”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산업과 온천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바덴바덴 온천도시에서는 전세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십여 가지의 다양한 온천 치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물질이 다량 함유된 소금·머드 등을 활용한 해양요법 치료 프로그램과 레저·스포츠에 특화된 메디코비탈센터 등이 특징적임(이제연·임태경, 2020: 75-77)
  - 또한 1990년 점진적인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폐역을 개조하여 만든 “바덴바덴 페스티벌극장(Festspielhaus Baden-Baden)”의 설립을 통해 문화공연과 연계된 지속적인 지역축제를 통해 문화와 사교, 건강과 치유의 중심지로서 온천도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바덴바덴 페스티벌 극장 등 바덴바덴 지역의 온천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나, 반면 유럽연합과 지방정부의 지역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자본 및 인적자원에 관한 투자 등으로 바덴바덴의 온천관광 및 연계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온천관광업은 물론 관련 전·후방 연계산업으로 온천관련 상품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R&D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적 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이제연·임태경, 2020: 75-77)

## ○ 성공요인 및 특징

- 온천관광과 연계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지역내 온천관광업소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면서, 지역자원을 발굴·결합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함
  - 풍부한 광물질을 활용한 특화된 재활치료와 해양요법 치료 프로그램, 대중적인 프로그램부터 고급화를 시도한 다각화된 온천 치료요법 등 “건강관광”에 특화된 다양한 온천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및 사교, 레저·스포츠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온천도시를 지향
  - 관련 문화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온·오프라인·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음
- 온천관련 산업 및 헬스케어 유관 산업을 동시에 발굴·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온천도시의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의 바덴바덴은 온천관광업을 비롯하여 온천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파생상품을 발굴·육성하고 단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온천도시를 지향함
  - 관련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유관 연구기관·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된 인적자원을 지역 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5-77)



출처: <https://www.baden-baden.com/en/wellness/thermal-water>

## □ (사례 2) 독일의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

### ○ 지역 특성 및 현황

- 바트 나우하임은 타우누스(Taunus) 산맥의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크 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서 북으로 약 35km 떨어진 독일 헤세(Hesse) 주 베테라우크라이스(Wetteraukreis) 지역에 있는, 인구 약 32,000여명의 대표적인 온천도시임
  - 바트 나우하임의 온천지구는 약 2km<sup>2</sup>에 달하며, 온천수의 온도가 30℃를 상회하는 이온과 미네랄이 풍부한 우수한 온천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지역임
  - 식염천(salt springs)으로 특히 심혈관계 및 신경계통의 질환에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가장 많은 유리탄산을 함유한 탄산천의 소재로서 발포성 온천의 기원이 되기도 함
- 바트 나우하임 온천도시는 7종의 다양한 온천수에 기반하여 목욕, 음용 및 호흡용, 재활 등 다양한 용도로 19세기 중반부터 웰스케어를 시작하였음(www.bad-nauheim.de)
  - 수온 30℃ 중반의 식염성분의 온천수는 목욕 및 음용 외에도 의료용으로 목욕 및 염분성분을 활용한 호흡치료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중 심폐기능 및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브랜치(Max-Planck-Institut für Herz- und Lungenforschung)가 입지함
  - 18세기 중반부터 독일에서 발전되어 온 크나이프 요법(kneipp therapy) 과 소금온천(食鹽泉, common salt spring) 등 2007년 이후 스파치료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음에 따라, 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체류를 통한 치료·치유 및 재활을 유도하고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7-81)

### ○ 온천 활성화 내용

- 바트 나우하임 지역에서는 온천자원과 전문적인 치료·치유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의료 전문기관(12개소)을 결합하고, 관련된 공공부문의 주도 하에

휴양·운동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온천수 전문 치료·재활과 여가 활동을 접목시킨 특화된 온천도시를 발전시켜 왔음

- 바트 나우하임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은 의료진 및 전문가에 의해 수치료, 운동, 소금온천을 이용한 호흡법, 식이요법 등 다양한 치료가 접목된 크나이프 요법(kneipp therapy) 및 소금온천 치료 등 온천자원을 이용한 수치료형 의료관광의 성공적 모델로 볼 수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7-81)
- 바트 나우하임의 대형 의료기관 12개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심·혈관, 호흡기, 근·골격계, 신장 및 청각 장애 및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에 최적화된 의료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신경계, 심인성 또는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학, 종양학 또는 재활 전문가 등 모든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디렉토리로 연계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www.bad-nauheim.de)
- 또한 레저와 휴식을 위한 친환경 공간, 100년 이상된 온천도시의 건축,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개최되는 세계적인 온천 휴양도시로 유명함(www.bad-nauheim.de)
  - 바트 나우하임은 베테라우(Wetterau)와 포겔스베르크(Vogelsberg)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숲 및 도시공원에서 산책, 자전거, 하이킹, 수상활동 등 휴양 및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이 가능
  - 전통적인 아르누보(Art Nouveau) 건축양식으로 유명한 “스푸루델호프 테르메(Sprudelhof Therme)”는 “공원(Therme am Park)” 등 유명 스파가 있으며, 또한 엘비스 축제, 장미축제, 아르누보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 성공요인 및 특징

- 전통적으로 치료·치유 효과로 널리 알려진 지역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치유와 휴양을 위한 온천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를 구축함
- 로마시대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의 음용을 통한 건강관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18세기 중반부터 전통적인 온천 치유시설(Sool- Badeanstalt

등)이 문을 열었고, 19세기에는 온천도시의 호칭인 “Bad”를 부여받는 등 이후 심·혈관 및 순환기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온천치료의 핵심적인 사례로 부각됨

- 바트 나우하임은 독일 크나이프 스파 및 크나이프 헬스 리조트 협회가 혁신적인 크나이프 서비스와 뛰어난 서비스로 돋보이는 리조트 또는 스파에 수여하는 “크나이프 프리미엄 클래스(Kneipp Premium Class)” 인증을 받음([www.bad-nauheim.de](http://www.bad-nauheim.de))



출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71026010008634>, 산림청 『숲과 건강(2010.8)』

-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들과 함께, 대형클리닉 등의 의료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들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치료·치유·휴양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등 온천 의료산업의 혁신적인 성공적인 모델로 볼 수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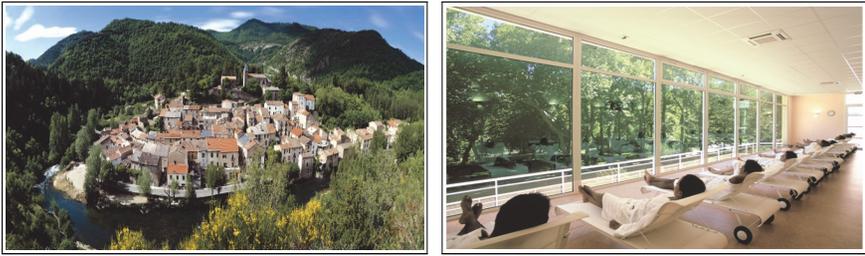
출처: <https://www.discovergermany.com/bad-nauheim-2/>

- 스파치료와 연계한 다양한 온천관련 시설의 조성과 의료보험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
  - 바트 나우하임에는 수많은 물놀이 공간과 목욕 시설, 어린이를 위한 크나이프 수영장(Kneipp pool) 등의 목욕시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공원과 피트니스 트레일 및 약용식물이 가득 찬 헬스가든 등이 조성되어 있어, 온천치료·치유 시설 외에 연계된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
  - 아울러 온천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진의 온천치료에 대한 처방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치료와 체류 및 여행비용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독일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에게 온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릴 경우에만 의료보험 적용 허가가 나며 허가와 진단서를 받은 환자는 온천시설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와 이용비, 교통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77-81)

#### □ (사례 ③) 프랑스의 아벤느(Avene)

##### ○ 지역 특성 및 현황

- 프랑스 남부 세벤느에 위치하고 있는 아벤느 온천센터의 면적은 약 4,970m<sup>2</sup>이며, 프랑스 정부가 공공자원으로 공식 인정한 5대 온천수 중에 하나임. 특히 피부질환 치료효과가 우수한 온천으로 유명
  - 1736년 후작 로코젤(Rocozels)이 아벤느 지역 Saint Odile spring에서 사육한 말들 가운데, 피부병을 앓던 말이 해당 온천수에서 목욕한 후 피부병이 사라졌다는 계기로 아벤느 온천산업이 시작됐으며, 이 사례가 유럽 여행자들에게 알려지게 됨(이제연·임태경, 2020: 84)
  - 1,000명 미만의 아벤느 지역 인구는 온천마을로 유명. 아벤느에는 다수 온천수원이 존재하고, 약 400년 이상 다양한 광물과 닿으며 지하수를 관측한 온천수를 확보
  - 아벤느 온천센터는 피부질환(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건선, 화상 등) 치료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500명 요양자를 수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출처: <http://www.spajournal.net/21/avene.html>, <https://www.insidersguidetospas.com/features/taking-the-waters-avene-les-bains/>

### ○ 온천 활성화 내용

- 집중케어(민감성 피부 질환) 프로그램 제공
  - 아벤느 온천센터에 피부 트러블을 가진 사람이 의사 처방에 의해 방문할 경우, 3주간 피부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운영 중이며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85)
  - 동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토피 치료에 특화되어 의사 처방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함
  - 아벤느 온천센터에 매년 2,800명의 피부 질환 환자가 방문하며, 의과학에 기초한 수치료 시설 및 피부과 의사 상주를 통해 피부 케어를 받음
- 프랑스 피에르파브르(Pierre Fabre, 약국전용화장품업체) 그룹은 아벤느 지역의 온천수 성분을 활용하여 ‘오 페르말’ 화장품 등 개발·판매
  - 피에르파브르 그룹이 개발·시판한 화장품 제품은 140여개 나라로 수출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이제연·임태경, 2020: 84)
  - 아벤느 화장품은 온천수 성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습진·손상케어 부문에 특화 및 개발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짐
  - 피에르파브르 그룹은 총 매출의 약 10%를 제품 개발비에 투자하며, 아벤느 온천수의 긍정적 효과 및 특효에 대해 지속적 홍보를 추진함

### ○ 성공요인 및 특징

- 피부과 의사·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가 검증됐으며, 온천수 활용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탁월

-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현대적 시설의 스파 센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숙박 및 체육시설 등 복합적인 휴양지의 면모를 갖추
- 아벤느 온천센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를 승인 받은 공식 피부과 치료 기관임. 따라서 의사 진료 후, 온천센터에서 치료 허가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외국인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아벤느 지역 인구는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을인 반면, 온천수를 기반으로 코스메틱(화장품)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상품으로 발전시킴.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창출 및 프랑스 대표적인 건강중심 여행지로 지역이미지를 부각 시킴으로서 매년 다수 관광객 유치 중
  - 아벤느 온천 관련 생산 공장 및 수자원 연구소는 지역 내 생태 보존 구역 인근에 설립·운영하고 있음. 이들 기반시설은 온천관광산업과 더불어 천연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업종이 지역 중점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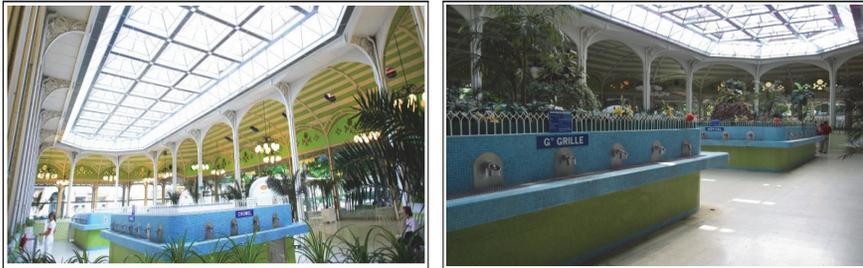


출처: <https://www.beautyeq.co.nz/new-blog/2019/9/18/avne-hydrotherapy-center-in-france>

## □ (사례 4) 프랑스의 비쉬(Vichy)

### ○ 지역 특성 및 현황

- 비쉬(Vichy)는 프랑스 주부 알리에(Allier) 주에 있으며 휴양 온천도시로서 면적은 약 1,138,683㎡임. 고대 로마시대부터 온천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곳임(이제연·임태경, 2020: 87)
  - 유명세를 떨치게 된 사례로 나폴레옹 3세 방문 및 작가 마담 세비네의 손 마비 증상을 온천수로 치료했다는 일화가 있음. 이를 계기로 유럽 지역 상류층 방문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대표 온천도시로 자리매김함
  - 각기 다른 효능을 지닌 15가지 온천수를 보유한 비쉬는 온천욕·스킨케어·피트니스 등을 고루 즐길 수 있는 세계적 휴양지로 유명함
  - 15가지 테마형 온천수를 음용 치료용 온천수, 마사지용 온천수, 피부병 치료용 온천수 등으로 특색 있게 운영



출처: Auvergne-Rhône-Alpes Tourisme, <https://www.france-travel-info.com/vichy/>

### ○ 온천 활성화 내용

- 테마형 온천수 특색에 맞춘 건강프로그램 기획·운영. 그중 메디컬 스파 및 마사지 프로그램이 유명하며 연간 1만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함
  - 피부건강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한 스파 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을 위한 탄산온천수 및 해수목욕 시설 유명
  - 대표적인 마사지 프로그램으로 온천수 온도·압력을 활용한 마사지가 유명하고, 비쉬 온천수를 활용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 온천수를 통한 치료 프로그램은 단기 체류형(1주 코스)과 중·장기 체류형(2주~3주 코스)으로 구분하여 진행
- 비쉬는 지형학적 특성상 화산지대의 다양한 암반층으로 만들어진 천연상태의 기포를 내포한 탄산수가 존재함. 비쉬는 이 탄산수를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여 프리미엄 탄산수로 개발하여 상품화함
- 1931년 알레 박사(프랑스 피부과 전문의)는 'VICHY' 코스메틱 브랜드를 설립. 비쉬 탄산수 개발·비쉬 미스트·비쉬 클렌징·비쉬 화장품 등 개발.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 개발·출시를 통해 비쉬를 대표하는 관광 마케팅 상품 판매(이제연·임태경, 2020: 88)

#### ○ 성공요인 및 특징

- 비쉬의 루카스 온천수(특징: 지하 4,000m에서 분출)를 활용한 수치료(水치료, hydrotherapy) 프로그램을 특화·운영
  - 주요 사례로 피부 염증 환부에 루카스 온천수를 5일 동안 꾸준히 바른 화자들을 조사한 결과 염증의 51% 정도 감소.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온천수 치료 효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관광객 유치
  - 융·복합한 온천-건강테마형 상품을 지속개발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진행
  - 비쉬 온천수를 음용할 수 있는 퍼블릭센터 설립. 치료용 온천수(루카스)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무료 공급함으로써 홍보 효과 제고
- 비쉬온천 특징인 탄산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 지역의 부가수입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비쉬의 고유성·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파생 상품으로 탄산수, 뷰티·헬스 상품 개발. 관광객의 소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긍정적 파급효과로 확대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691753#home>, <https://blog.naver.com/hilander/220418237736>

## □ (사례 5) 헝가리의 세체니(Szecheny)

### ○ 지역 특성 및 현황

- 헝가리 세체니는 부다페스트 14구에 위치. 네오바로크(Neo-baroque) 양식을 갖춘 유럽 최대의 온천도시임. 헝가리 정부 주도 하에 2010년부터 의료관광중심지로 본격 개발(이제연·임태경, 2020: 82)
  - 유럽 3대 온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체니 온천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 온천단지형태로 운영
  - 세체니 온천은 물놀이·수영, 헬스케어 등 복합적인 온천서비스를 제공. 규모는 약 20,750㎡이며 황산염·칼슘·마그네슘·중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됨. 이와 같은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온천의 물리치료 산업을 특화시킴(이제연·임태경, 2020: 82)
- 1913년 지그문드 밀모트가 온천수(現 시민공원 맞은편)를 발견하면서 작은 온천을 개발했고, 현재 시(市) 소유로서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 및 운영 중

### ○ 온천 활성화 내용

- 2010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세체니의 온천의료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 이를 위해 온천수를 활용한 의학 치료(척추치료·물리치료·수압마사지 등)를 활용한 산업 추진
  - 성 안드레아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중심의 물리치료 운영이 특화되었으며, 유럽 중부지역으로부터 메디컬 관광객을 주요 수요층(타케팅)으로 스파 의료관광산업 육성 진행 중

- 온천수를 활용한 의학 치료를 원하는 사람과 더불어 온천 자체를 즐기려는 관광객에 대한 운영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온천 산업의 소비자 범위를 확대 운영
  - 부다페스트 시내에 약 100여개 온천 운영 중. 동유럽의 대표 온천 특화 도시로서 이미지 확립
  - 네오바로크 양식의 건축물(Neo-baroque architecture)과 노천온천이 조화를 이루어 있으며 수영복 착용 후 온천에서 수영·물놀이를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

#### ○ 성공요인 및 특징

- 온천과 더불어 연계된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동시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
  - 사례로 부다페스트에서 무료 관광투어 버스 운행하여 세체니 다리-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겔레르트 언덕 등 관광 주요 지점에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운영(이제연·임태경, 2020: 83)
- 세치니 온천지구는 시내 교통인프라와 원활한 연계성을 갖추고 있어(지하철 역 바로 옆에 위치) 접근성이 우수함. 세치니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마차시성당·다뉴브강·중앙시장 등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 및 관광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음(이제연·임태경, 2020: 83)
  - 트램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주변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기에 온천 관광 전·후로 타 관광지(명소)로 쉽게 이동 가능



출처: <https://szechenyibath.com/>

## 제4절 국내·외 온천도시 사례의 시사점

### 1. 국내 온천도시의 시사점

#### □ 지역의 역사적 흐름 및 자원을 바탕으로 온천관광지구의 정체성 확립

- 우리나라에서 온천을 이용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신라시대부터 기록되어 있고, 일본의 온천문화와 유사하게 목욕 및 요양 등 목적으로 이용(이승욱 외, 2009: 161)
  - 최근, 온천 효능에 대해 각광을 받아 온천 휴양지·온천 관광자원으로 개발 진행
  - 우리나라 온천의 경우, ▲전통적인 목욕탕 ▲기능적·형태적으로 큰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온천만의 고유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
-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국(지역)의 온천은 다양한 정체성(이미지·문화 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온천에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음(이승욱 외, 2009: 161)
  - 우리나라 온천관광 및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단계)으로 지역의 역사적 특징·흐름·자원을 기반으로 온천관광지구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 차별화된 온천관광지구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

-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온천에 대한 명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음. 각 업종 및 업소마다 온천탕에 대해 녹차탕, 거품탕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음(이승욱 외, 2009: 161)
  - 다채로운 명칭·호칭은 이용객(방문객)에게 혼란을 야기시킴
  - 온천만이 지닌 고유성·특수성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온천’과 ‘온천탕’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정의 및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에이징믹스(Aging-Mix)를 통한 고령화시대의 온천관광지 활성화

- 우리나라의 온천은 전라로 입욕하는 방식이 대부분
  - 온천 이용객의 연령층 확대를 위해 테마파크형 온천을 조성하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할 수 있는 근본적 접근 방식은 아님
- 온천의 대중화 및 보편화를 위해 특정연령대(연장자) 혹은 특수목적(육체적으로 취약한 분류) 만을 위한 전략에서 벗어나야 함(이승욱 외, 2009: 161)
  -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온천문화 프로그램 기획·마련 필요

#### □ 온천관광지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신산업 육성

- 온천 및 온천수를 활용한 의학 분야(기법)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의학으로 분류
  - 그동안 충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체의학의 과학성·대중성을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온천은 천연자원에 국한된 사업요소(영역)이 아닌 종합산업으로 시각 전환 필요. 즉 의료업계-레저산업-관광산업-숙박시설-식·음료산업이 상호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 힐링산업임
  - 따라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해 각 업계 간 협업 및 정보교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 혁신적인 온천문화·산업콘텐츠 마련 및 지속적인 온천문화 혁신을 통해 지지층 구축

- 우리나라의 온천관광지구 역시 연례 축제와 지역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획일화된 행사구성과 온천과 연계성이 부족한 콘텐츠로 인해 한시적인 관광객 유치에 그치고 있음
- 중심지로서 온천관광지구의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자원과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적 콘텐츠와 온천문화 혁신 필요

## □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제반시설 확충 및 우리나라 고유 온천문화 구축·확산

- 우리나라 대다수 온천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 지역관광도시의 온천 방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해외 방문객)에 대한 홍보·유입 필요(이승욱 외, 2009: 164)
  - 외국인이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의 온천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고속·시외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영어권·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교통편의성 마련 시급
  -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영어 및 타 언어로 쓰인 안내판·표지판을 보기 어려움. 따라서 온천관광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쓰인 정보·홍보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온천문화를 체험·즐기기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함을 체감할 것임
-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우리 특유의 목욕문화(전라 입욕)에 대해 생소함·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이승욱 외, 2009: 164)
  - 이와 같은 생경함·거부감 등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의 경우, 수영복 착용을 통한 대중적 온천문화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온천문화에 변화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면 온천관광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리적 특성을 지닌 온천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여가시설, 편의시설 등을 시대 흐름 및 전세대를 아우르는 시설공간으로 재편할 필요 있음. 또한 온천과 연계한 지역행사·축제와 접목함으로써 온천에 따른 문화적·사회적·여가적 기능을 개발할 필요 있음

## 2. 해외 온천도시의 시사점

### □ 온천지역의 역사 및 온천자원을 기반으로 온천관광지역의 정체성 확립

#### ○ 일본 벳부 온천

- 벳부 온천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천을 비롯한 주변에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꾸미는 것을 최소화함
- 벳부 온천이 지닌 세월 및 역사를 오롯이 보존한 지역공간으로 구성하여, 단순 온천관광이 아닌 일본의 문화·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로서 온천 지역을 만듦(이승욱 외, 2009: 164)

#### ○ 독일의 경우,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천수가 지닌 전통적인 의학적 효능(예: 각종 질병 치료 등)을 보존(이승욱 외, 2009: 164)

- 의사국가시험에서 온천의학을 선택과목으로 편성
- 꾸준한 임상실험 및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적 의료체계 정립 진행

#### ○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은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온천공간 구성 및 제공(이승욱 외, 2009: 164)

- 온천을 단순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관광객)이 다양한 선택권을 지님으로써 입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교류 및 휴식의 장으로서 온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

### □ 차별화된 온천관광지구 구축을 위한 위한 법적 규제 강화

#### ○ 독일·헝가리의 경우, ▲고온탕-열탕 ▲저온탕-미온탕 등 온도에 따라 온천 명칭이 달리함

#### ○ 일본 역시, 온천 발생원에 따라 온천을 구분하는 명칭이 상이하고, 온천 온도 및 수질기준을 높임으로써 일본 온천에 대한 차별성·전문성 확립(이승욱 외, 2009: 164)

#### □ 에이징믹스(Aging-Mix)를 통한 고령화시대의 온천관광지 활성화

- 일본 온천은 일반적인 노천탕처럼 인위성을 배제하고, 일본 온천 고유의 온천문화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함(이승욱 외, 2009: 164)
  - 예를 들어 온천수를 이용한 찜요리 체험, 미용 체험 등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연령층을 낮추고자(대중화) 노력 중
- 일본 벳부온천은 전 연령이 즐기는 관광지로서 기능과 함께 노화·장애 등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이용객들에게 보편적인 온천관광을 제공하고자 무장애 시설 개발
  - ‘Japan Sun industry’를 중심으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이승욱 외, 2009: 164)
- 독일은 온천수를 활용한 질병예방·치료과정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 유도 및 다양한 연령층의 온천 방문객 유치 중
- 헝가리의 온천의 경우, 우리나라 온천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님(이승욱 외, 2009: 164)
  - 양국간 큰 차이점으로 온천이용객층에 대한 타겟팅 연령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 온천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따라서 실제 이용 타겟팅 연령층·이용객이 고령층 대상임. 이는 지역 내 온천산업으로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반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은 젊은층이 좋아할 온천테마와 관련 문화 콘텐츠, 다양한 온도의 온천탕을 제공함. 이는 보다 넓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온천 문화·온천산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지속적으로 개선함

#### □ 온천관광지역 및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한 신산업 육성

- 최근 건강-미용-휴식을 결합한 ‘Health & Wellness Tourism’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천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 추세
  - 오랜 세월 동안 일본·독일·헝가리·한국 등에서 역사적으로 온천은 치유와 요양, 휴식을 목적으로 활용. 각국의 온천문화에 따라 현재의 온천모습에 이르게 됨

- 일본 온천은 탕치(湯治)문화로부터 발전. 무사(武士)와 군인(軍人)을 위한 요양 시설이 조성됨
  -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치료과정·탕치체험관광 등이 파생되어 현대 일본인들의 니즈에 부합한 온천 형태로 발전
- 독일 온천은 예방·치료 및 재활 목적의 온천의학으로 발달
  - 의학분야와 더불어 국립관광청을 중심으로 독립호텔, 웰니스 뷰티 등 관광 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독일 온천을 신산업으로 발전·확장
- 헝가리 온천은 전통적인 광천수요법 및 온천수 음용을 활용한 의학 요법 발달
  - 다양한 온천시설 구비, 독자적인 온천수 성분 기반의 관광산업 발달, 온천과 의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학 요법 개발

#### □ 도전적인 콘텐츠 도입 및 온천문화 혁신을 통한 마니아층 형성

- (일본 벳부 온천) 온천관광 장려를 위해 온천 명인 및 온천 마라톤 프로그램 운영(이승욱 외, 2009: 164)
  - 벳부시가 지정한 유서 깊은 온천장과 당일 입욕이 가능한 호텔 및 전통여관을 순회한 이용객에게 ‘온천명인’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온천순례’라는 자체적인 제도 운영(이제연·임태경, 2020: 95)
  - ‘온천명인 프로그램’은 온천 마니아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벳부 시내 다채로운 온천을 즐기고 경험하여 일정수의 도장(스탬프)를 모으면 상장·부상을 부여
- (독일 바덴바덴 온천) 온천 발달과 함께 주변에 즐길거리(카지노, 무도장 등)와 먹거리(세계 수준의 레스토랑 및 카페), 체험거리(침단의료시설, 요양시설 등) 등이 온천욕 이외에 매력적인 콘텐츠로 등장 및 분포하고 있기 때문
-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 독일 바덴바덴 온천과 유사하게 다양한 온천 시설 (수영장·터키식 열탕·온수풀 등)뿐 아니라 스파티(Sparty: 온천파티)와 시네 트립(Cinetrip), 체스, 일광욕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 제4장

# 온천도시 특성분석 및 유형화 방안

제1절 온천도시의 선행연구

제2절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및 특성분석

제3절 온천도시 유형화를 위한 발전모델

제4절 후보지에 대한 유형적용 방안



## 제1절 온천도시의 선행연구

## □ 온천도시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

- 온천관광지구 및 온천도시 관련 선행연구에서 유형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온천도시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함
- 앞선 개념적 고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온천관광지구 및 온천도시와 관련해서는 온천자원을 통해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천수를 활용·연계한 의료, 산업, 문화·체육, 관광, 기타 서비스업의 활성화 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온천자원이 풍부하여 온천지구를 형성한 지역에서는 의료, 산업, 문화·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한 온천도시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특성화 요인별 추진전략과 방향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온천도시를 추진하는 경우의 가능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고자 함

## □ 이제연·임태경(2020): 온천산업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반시설 등 물리적 요소(하드웨어) 보다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천 관련 콘텐츠(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시 활성화 제시
  - 전문적인 스파 및 헬스케어를 통한 웰니스 온천산업·도시화
  - 온천웰니스·온천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도시화 전략

□ 이승욱·정연준 등(2020):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총 6가지 온천연계 지역성장 모델(온천+@ 지역성장모델) 제시
  - 6가지 모델은 이용자(수요자)의 니즈와 선택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델화
  - 온천 기반으로 지역성장요소를 부가하여 지역활력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활성화, 유관 지역투자 활성화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 온천연계 지역성장 모델

[표 4-1] 온천도시 지역 특화성장 요인

모델	적용 지역 및 기능
① 온천과 신산업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연구소·기업 등 혁신역량이 밀집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지역</li> <li>• R&amp;D 등 연구개발, 신산업육성, 온천열에너지 활용 등</li> </ul>
② 온천과 비즈니스(MICE)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온천관광지구 주변 MICE 산업 수요 지역</li> <li>• 소규모 회의장·전시장·각종 회의 및 행사 계획</li> </ul>
③ 온천과 스마트시티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창조계층, 트렌드세터,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지역</li> <li>•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공연장 등 스마트 혁신공간 확충</li> </ul>
④ 온천과 자연친화 및 레포츠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관광지구 주변 우수한 자연환경, 다양한 레포츠 기능</li> <li>• 자전거 코스, 스키장, 수상레저, 캠핑 등</li> </ul>
⑤ 온천과 헬스케어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층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li> <li>• 음용수개발, 헬스케어 상품, 힐링 체험, 건강·치료 프로그램 등</li> </ul>
⑥ 온천과 도시관광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과 함께 쇼핑·먹거리·즐길거리가 있는 도시 내 온천관광지구</li> <li>• 쇼핑센터, 전통시장, 먹자골목,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 등</li> </ul>

출처: 이승욱 외(2020: 5)

## □ 대한온천학회·(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온천의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온천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모델을 총 3가지로 유형화

[표 4-2] 온천도시 발전 3개 기본모델

모델	기능	적용지역
① 온천의료+체험관광 +온천산업	• 온천의료와 관광, 산업 등이 복합적·유기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의료·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li> <li>• 오랜 온천역사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유물, 설화 등)을 보유한 지역</li> <li>• 주변 스포츠 등 레저활동 가능하거나 관광요소가 다양한 지역</li> </ul>
② 온천의료+체험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 또는 유기물(유익균 등)을 활용하여 피부 개선 효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화장품 등 개발</li> <li>• 화장품 연구·제조·판매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연구소·기업 등 혁신역량이 밀집하고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가능한 지역</li> </ul>
③ 피부치료 +온천수 화장품	• 온천치료에 오락적 요소(즐거움)를 가미한 체험관광으로 지역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양온천지 중심으로 온천지구가 발전한 지역</li> <li>• 워터파크·테마파크 등이 있거나 다양한 축제·이벤트를 개최하는 지역</li> <li>• 주변 우수한 자연환경·관광지</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64-272)에서 재구성

## 제2절

##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및 특성분석

## 1. 국내 온천산업 및 온천도시 쇠퇴 분석

## □ 온천에 대한 의료적·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 국내 대부분 온천지역에서 각자 효능을 홍보하나, 온천 효능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연구 부족
- 지역·지리적 온천특성에 맞는 의료적 효능 규명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개발 필요
  - 투자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의 산발적 연구에 그치는 수준
  - 사람 대상의 온천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희박
- 관광·레저 위주의 온천문화에 치료 및 요양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양온천 제도 시행
  - 효능 근거 부족으로 보양적 측면보다 고급화된 리조트 시설(위터파크, 부대 시설, 파도풀 등)이나 온천수 상태(고온, 자연용출 등)를 강조하는데 치중
  - 이는 온천문화를 관광요소의 관점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태 반영

## □ 온천산업 쇠퇴 현상 가속화

- 우리나라 온천지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고유 특색 및 차별화 부족
- 온천 체험관광 및 특화상품이 부족하여 지역 상권으로 연결성이 저하됨에 따라 온천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음
-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획일적인 개발과 타 지역사례 베끼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감소 추세
- 장기 경기 침체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워 온천시설 노후화 및 산업적인 장기 침체 도래

### □ 온천 산업표준 및 시험검사 기준 부재

- 소비자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온천 산업도 서비스 중심에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
  - 변화가는 온천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집행과 지원을 위해 정교하고 공신력 있는 통계 구축과 데이터 제공이 필요
  - 온천관련 통계는 온천을 이용하는 목욕시설과 호텔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천관련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온천법」 시행규칙에 온천수 수질검사와 성분검사에 대한 간략한 검사 주기와 검사항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명확한 시험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부재
  - 성분 검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온천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수요자(의뢰자) 요구에 맞추어 시험 분석하고 각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

## 2. 해외 온천산업 및 온천도시 사례분석에 따른 특성화

### □ (고유성 확립) 온천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발굴 및 특성화

-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의 차별화는 ‘스파티(Sparty)’를 통해 DJ·레이저쇼,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 및 라이브 음악 연주 등을 통해 젊은 온천객과 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데 있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의 입지적 특징
    -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수도이며 유럽연합에서 10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
    - 상업·금융, 미디어 및 예술·패션, 연구 및 교육 등 발달한 글로벌 도시
    - 약 40개 대학들이 부다페스트에 모여 있고, 혁신적인 자원이 풍부하며 해외 관광객은 연간 440만명 유치
  - 부다페스트 온천관광지 특징
    - 부다페스트 온천수 특징은 용출수가 어떤 표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약효 결정. 다양한 수질·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이승욱 외, 2009: 149)

- 다양한 온도·성분의 온천수는 풀 형태로 조성하여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 치료·건강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음용수(약용)로 제공
- 헝가리 온천문화의 특징은 관광청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량 및 변화 추구. Wellness Tour 목적으로 하는 고령 관광객과 스파티(Sparty)를 즐기려는 젊은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온천관광지 형성

#### ○ 부다페스트 온천지역의 경쟁력

- (다양한 온천 제공) 여러 형태의 온천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온도의 온천 이용 가능 및 온도별 온천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온천파티) 부다페스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온천파티는 헝가리 온천의 독특한 문화산업임. 온천파티의 공식명칭은 스파티(Sparty)이며 매해 2월~12월에 개최 및 야간에만 제공
  - 스파티와 유사한 시네트립(Cinetrip)은 일 년에 두 번 개최하며 스파티보다 시각적·미적 재미를 더 끌어올리며 규모가 더 큼(이승욱 외, 2009: 153)
- (독특한 온천문화) 부다페스트의 야외온천에서 온천객들이 수영·체스·일광욕 등을 하며 온천을 즐김
  - 우리나라 온천과 다른 풍경이자 온천문화임. 한국온천은 목욕탕과 비슷한 모습(전라 입욕)을 지닌 반면, 부다페스트 온천은 수영복을 입고 남녀노소가 온천에서 수영, 체스 등 레저·일광욕 즐김
- (고유의학요법 홍보) 온천을 이용한 다양한 의학 요법이 존재하는데, 광천수 요법이며 스파에서 주로 행해지는 전통적 의학 기술인 목욕으로 질병을 완화시키는 요법임
  - 부다페스트에서 현재까지 많은 간행물들이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를 발표
  - 연구 결과 중, 열광천수가 미네랄워터의 질적·정량적 구성과 관계 없이 서로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결과(이승욱 외, 2009: 155)

- 부다페스트의 온천은 대체로 온천수의 성분표를 공식 사이트에 기재. 치료 목적이 요구되는 이용자에게 전문적·구체적인 의료정보 제공

○ 헝가리의 온천과 연계한 활성화 전략

- (헝가리 온천 문화의 날) 헝가리가 온천(수) 및 약수로 유명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사. 자국민들의 인식 제고뿐 아니라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함
  - 오랜 시간동안 헝가리의 온천 문화는 지속됐으며 온천 문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미래 세대들이 온천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헝가리 온천 문화의 날 개최
  - 동 행사에 지역 온천관계자들은 다채롭게 참여하고 온천을 이용하려는 관광객을 위한 제공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상호 논의(이승욱 외, 2009: 157)
- 온천을 위한 다양한 협회

[표 4-3] 헝가리의 온천을 위한 협회들

기관명	내용
헝가리목욕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식 전통적인 목욕양식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협회이다. 부다페스트를 포함한 헝가리 스파 문화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 개발, 건설 및 공급에 적극 참여</li> <li>• 1998년부터 '유럽 스파협회'의 정회원</li> </ul>
헝가리 스파관광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멤버들에게 전문적인 유익한 정보를 제공</li> </ul>
헝가리 관광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헝가리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인 'WOW 헝가리'를 출범</li> <li>• WOW 헝가리의 WOW는 경이로움의 원천(Wellspring of Wonders)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어의 감탄사를 연상</li> <li>• 통합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일환으로 헝가리 관광청은 13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영국, 중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WOW 헝가리 슬로건을 이용해 광고 진행</li> </ul>

출처: 이승욱 외(2019: 157-158)에서 재구성

- (의학과 온천의 연계성) 부다페스트 온천에는 다양한 형태의 온천이 존재하며, 그 중 의학 관련 온천욕이 가장 발달함. 약수·온천수의 특성으로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온천과 더불어 공공숙박, 병영 등 주위 시설(관광)을 즐길 수 있음(이승욱 외, 2009: 158)
  - 인증 받은 약수(온천수)를 제공하는 의료 및 웰니스 호텔의 수요 증가 추세
  - 온천과 연관된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도 생겨남으로써 온천을 중심으로 온천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독일 바덴바덴 온천지역은 인근에 병원, 쇼핑시설, 카페, 경마장, 테니스장, 골프장, 영화방, 피트니스, 뷰티숍 등을 활용하여 의료, 레저, 여가, 오락을 즐기는 복합단지 형태로 특화
  - (바덴바덴 온천의 입지적 특성)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슈바르츠발트 산지 북서쪽 기슭에 위치한 온천도시로 신경학적 치료로 유명
    - 바덴바덴 지역의 대부분 온천은 자연생성이며, 지역의 61.5%는 숲(자연림)으로 구성됨. 1819년 첫 증기탕을 건설했고 이후 온천 개발 활성화
  - (바덴바덴 온천관광지 특징) 바덴바덴 온천지의 큰 특징은 혼탕 문화 및 비즈니스트립 간 연계성에 있음
    - 독일 혼탕 문화는 로마 목욕문화로부터 유래. 휴식·건강을 위한 사우나는 대부분 혼탕으로 이루어지고 스파는 수영복 착용
    - 비즈니스트립과 연계성은 1960년대부터 조성된 다양한 인프라가 공원-보행로 간 연결됨에 따라 업무-휴식, 치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제공(이승욱 외, 2009: 141)
- 독일 바덴바덴 온천지역의 경쟁력
  - (미네랄 온천과 열탕) 바덴바덴 온천 및 관련 건강 리조트의 온천수 특징은 통증 완화의 치유력을 경쟁력으로 강조
    -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천연샘은 휴양지를 건강 분야의 최고로 만듦. 바덴바덴의 열수 광물 농도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함(이승욱 외, 2009: 142)

- (의료스파 강점) 바덴바덴의 의료 클리닉 및 의학스파는 독일 최신 첨단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최적의 장비를 갖춘 메디컬 클리닉에서 최고의 의료 전문가와 물리치료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즐길거리) 다수 관광객들이 바덴바덴을 찾는 배경에는 온천욕과 더불어 주변에 즐길거리(카지노, 무도장, 레스토랑, 카페 등)와 각종 질병(류머티즘 등) 치료 및 재활 의학 등 갖춰진 첨단 의료 시설·요양시설 등 온천욕 이외의 다양한 매력 요소가 있기 때문임
  - 바덴바덴은 골프·테니스 클럽, 경마 및 승마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마니아층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임. 여름에는 등산을 겨울에는 북유럽 스키어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제격임
  - 공원 조성이 잘 갖춰져 있음. 바덴바덴 중심부에 있는 공원 겸 수목원인 리히텐더 알레(Lichtentaler Allee)는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유명(이승욱 외, 2009: 143)
  - 바덴바덴은 온천 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즐길거리들에 대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예약·각종 활동들을 예약할 수 있기에 관광객들이 온천욕 외에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음

#### ○ 독일 바덴바덴의 온천과 연계한 활성화 전략

- (협회구성·운영) 1892년 4월 23일 독일스파협회는 라이프치히에서 스파 및 헬스리조트 관계자들이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 온천욕 방문객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웰빙-복지를 유지하며 삶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도움 제공
  - 협회를 통해 온천과 연계된 헬스와 웰니스 투어리즘에 중점을 두게 됐으며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큰 영향을 끼침

## □ (특화상품 개발) 온천 특화상품 개발 활성화

- 프랑스 아벤느 온천은 온천수 성분을 활용한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화장품 출시. 하이드로테라피 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가진 일반인과 아동에게 테라피 체험을 받게 함으로써 제품의 친밀도를 강화
  - (아벤느 온천 특징) 풍부한 광물과 미량원소가 축적된 중탄산염 온천으로 다량의 규산염이 있어 피부에 천연 보호막 형성
  - (피부치료센터) 아벤느 하이드로피테라피 센터
    - 1990년 설립되어 2004년 확장, 프랑스 국립온천운영 이사회로부터 Aquacert HACCP Thermalisme 인증
    - 피부과 전문의와 분야별 케어 전문가 상주, 최첨단 장비와 설비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 매년 성인 및 아동 2,600명의 방문하여 수(水)트리트먼트 체험
  - (피부치료 프로그램) 온천수를 이용한 입욕, 수압을 이용한 샤워, 온천수 음용 등의 치료와 아벤느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한 바디래핑, 마사지 등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법 운용
    - 상주하는 피부과 의사를 통해 일반적 34℃ 정도의 입욕 시설에서 20분간 입욕 또는 30℃ 정도의 미세분무를 15분간 전신에 받은 후, 각질이 심한 경우 치료사에 의해 고압 분사 과정을 따로 집중 치료(이제연·임태경, 2020: 85)
    - 온천치료와 Therapeutic patient education 프로그램을 동시 진행
  - (온천수 화장품) 모든 제품에 천연 암반 온천수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아낌없는 연구·투자로 제품 개발하는 브랜드로 유명함
    - 2018년 IQVIA의 시장 조사에서 유럽 약국 화장품 부문 판매 1위 차지, 주요제품으로 오 테르말(Eau Thermale 온천수 스프레이), 시칼파트 플러스 S.O.S 크림(Cicalfate Plus S.O.S Cream),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 등
- 체코에서 ‘먹는 온천’으로 유명한 카를로비바리(Karlovy Vary) 온천은 특이하게 녹냄새나는 탄산 온천수임에도 이와 함께 ‘콜로나다(Kolonada)’ 과자를 함께 먹는 것이 유명해져서 이제는 “체코 국민과자”로 인식

- 일본은 온천물에 넣어 천천히 익혀 만든 온센타마고(おんせんたまご, 온천 계란)가 영양식과 다이어트식으로 인기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일본에 가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인식
- **(문화·역사·관광자원의 산업화) 온천의 역사·문화·지역 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 영국의 바스(Bath), 일본 유노미네 온천마을 등은 온천지구 일대를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
  - 프랑스의 비시(Vichy) 나폴레옹 3세와 제2제정의 역사와 접목한 다양한 상품, 지역축제를 통해 나폴레옹 3세의 휴양지로 이름을 알리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온천 휴양 유행을 주도
  - 일본 미사사온천(三朝温泉)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백랑설화’, ‘기생 개구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형물과 갖가지 판촉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풍부한 기념거리를 제공
  - 일본 벳푸온천(別府温泉)은 온천도시답게 벳푸 시내에 온천장이 밀집해 있어서 (벳푸 팔탕온천), 온천 88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온천 명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벳푸온천 관광지의 특징) 자연적인 요인으로 갖는 특성(다양한 온천수와 지옥탕 등) 외에도 지역 사회가 조성한 특징이 있음(이승욱 외, 2009: 130)
      - 벳푸 시는 항구 도시와 인접함에 따라 개방적·포용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이와 같은 지리적 영향으로 다국적 유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포용하는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였다는 특징
      - 탕치문화, 불마츠리 등 일본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벳푸 지역만의 온천문화자산을 재탄생시켰다는 특징
      - 탕치문화(湯治文化): 벳푸의 온천은 본래 탕치(湯治: 한번 또는 단 하루에 끝나는 온천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온천을 통한 치료과정으로 일본에서 온천은 이러한 치료를 위한 치료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음)로부터 발전하여 무사와 군인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관련 연구기관 등이 조성됨. 탕치를

- 체험하기 위해선 최소 2주의 치료과정과 입욕 규칙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현대인에게 적합한 관광상품으로 개량하면서 3일 체험 상품이 개발. 최근 헬스 앤 웰니스 관광 트렌드와 맞물려 전통 탕치문화를 콘텐츠로 한 관광상품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승욱 외, 2009: 133)
- (벧푸 온천명인) 벧푸시 관광청에서 온천 관광 장려를 위해 도입한 제도. 벧푸 팔당 중 88개를 다녀와 벧푸 ‘온천여권’에 총 88개의 도장을 모으면 온천 명인이라는 칭호를 부여(이승욱 외, 2009: 134)
    - 벧푸 온천 명인은 총 8개의 단으로 구분. 8개의 도장을 모으면 1단, 16개의 도장을 모으면 2단, 24개의 도장을 모으면 3단으로 승급함
    - 88개를 다 모이지 않아도 8개 단위로 도장을 모아 벧푸 온천 명인에 입단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계속 도장을 모으면 온천 명인에 등록 가능
  - (온천 마라톤) 2018년 제104회 벧푸 온천 마츠리 중 신규 도입된 제도. 벧푸 온천 마츠리가 열리는 5일간 지정된 온천 완주를 의미(이승욱 외, 2009: 136)
    - 총 3종류의 코스로 구성: ▲하프코스 마라톤(21,195km) ▲풀코스 마라톤(42.195km) ▲초 풀코스 마라톤(88,195km)
    - 벧푸 온천을 상징하는 숫자 88을 상징화하였으며 마라톤의 각 코스당 정원은 88명으로 제한
    - 벧푸 온천 여권을 지니고 각 코스를 돌면서 온천을 즐기고 마라톤 완주를 하는 일정으로 구성
  - (불 마츠리) 산을 태우는 의식으로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 신선한 목초지를 만들고 화재위험 방지,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개최(이승욱 외, 2009: 136)
    - 오기야마 산(벧푸)은 ‘불 마츠리’ 중 하나의 산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위해 활용되는 전통문화 콘텐츠임
  - (온천수 음용과 지옥온천찜 요리) 칸나와 온천은 몸으로 즐기는 온천과 함께, 온천 증기를 활용한 찜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입구에 조성된 온천 시음장에서 지옥온천의 온천수를 마실 수 있음. 온천수 특유의 냄새와 맛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특색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
- 채소부터 해산물까지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써서 먹을 수 있고, 베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유명

○ 해외 온천 사례를 다음과 같이 특성화하여 정리

[표 4-4] 온천도시 해외사례의 특성화 요인

특성화	국가명	도시명	우수사례
의료 · 관광	프랑스	아벤느(Av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벤느 온천센터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제공</li> <li>• 수치료시설 활용해 피부 미용에 특화된 온천 프로그램 제공</li> </ul>
		비쉬(Vic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를 활용한 테마별 건강프로그램 유명</li> <li>• 메디컬 스파와 마사지 프로그램 유명</li> </ul>
	독일	바트 나우하임 (Bad Nauhe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의 온천, 병원군연구소 등 위치</li> <li>• 소금온천, 크나이프 요법 등 온천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li> </ul>
		바덴바덴 (Baden-Ba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치료 시설 및 프로그램 활용한 관광-온천 연계한 80개의 온천치료 프로그램 운영</li> <li>• 극장·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시설 구축하여 헬스투어리즘 산업 특화</li> </ul>
산업적 연계	프랑스	아벤느(Av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성분 활용한 화장품으로 유명</li> </ul>
		비쉬(Vic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CHY란 브랜드를 통해 온천성분 기반으로 개발된 비쉬 탄산수 유명</li> </ul>
	독일	바덴바덴 (Baden-Ba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파용품 연관 산업을 동시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육성 중</li> </ul>

출처: 행정안전부(2021) '2021년 온천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차경자·정태홍(2022)

### 제3절 온천도시 유형화를 위한 발전모델

####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로부터 유형화를 위한 3가지 발전모형을 제시

- 온천 기반 ① 관광(문화·역사 및 체험·레포츠 등) ② 메디컬·건강(의료치료 및 재활치료 등) ③ 산업(코스메틱 등 제품개발, R&D 등)의 3가지 모형으로 정형화 될 수 있음
  - 3가지 모형은 지역별로 단일 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온천도시에서 상기 3가지 유형을 기 추진해 왔고 또한 추진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이 세 가지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온천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개별 온천도시에 있어서 각 유형별 활성화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 온천도시를 거점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기능 구축
  - 온천 효능을 체험하면서 온천도시 주변에 문화·역사 관광, 레포츠·체험 등 즐거움을 가미한 체험형 관광으로 온천관광도시 인지도 확립
  - 온천 주변에 역사적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 자연환경 등 풍광이 수려하고 캠핑·아웃도어까지 더불어 체험할 수 있는 제반공간을 갖춘 도시
  -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대도시 인근의 온천도시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임 및 전시회, 대규모 행사, 학회 등의 MICE 산업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이 가능
- 온천도시 모형 ②: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 온천도시 주변에 양의·한의학 전문의료시설을 확보하여, 온천의 의료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치유 집중형 도시기능 구축
  - 온천수 치료기관 및 보양온천을 중심으로 온천을 활용한 의료효과 극대화 제공. 다른 유형과 달리 의료적 치유 목적에 대해 선택과 집중한 도시
  - 특히, 온천도시의 각종 인프라 및 치유기능과 연계하여 각종 스포츠 행사의 유치·개최 및 전지훈련지로서의 특화 등 연계전략이 필요함

## ○ 온천도시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모형

- 온천수의 피부·코스메틱 효능을 활용한 화장품 중심 산업 육성 도시
-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도시를 구축하고, 제품 생산-유통-판매-소비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구조 구축
- 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육성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고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제품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도시
- 또한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 외에, 온천공의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온천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조성 등의 추진

## 1.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 □ 온천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 충남 아산, 부산 동래, 대전 유성 등 유구한 온천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체험관광 상품개발
  - (아산 온천) 대한민국 온천역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온양행궁 재현, 온천 유물의 보존과 홍보를 위한 온천박물관 건립
  - (동래) 온정개건비 등 동래온천과 동래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재, 산책로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특정 매니아층을 타깃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온천지구별 특화된 관광자원(웰니스, 역사·문화, 스포츠·캠핑 등 액티비티)과 이벤트 요소를 발굴하여 독창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표 4-5] 온천지구별 특화된 관광자원 및 이벤트 요소에 의한 체험형 프로그램

온천지구	특징	타깃	적용 프로그램
강원 속초	• 워케이션 최적지로 부상	워케이션族	• 장기체류형 홈스테이 온천 프로그램 개발
경남 창녕	• 창녕 스포츠파크 조성 • 동계전지훈련의 메카	스포츠 매니아	•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힐링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대전 유성	• 회의, 학술대회 등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 많음	블레저族	• 비즈니스 이후에 온천으로 편안함과 휴식을 만끽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부산 동래	• 풍부한 온천이용 시설(71개) • 교통 편리	이벤트 매니아	• 온천을 두루 방문하게 하고 완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명인제도 시행

출처: 대한온천학회·(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11)

□ 온천 휴양단지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및 온천여행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휴양 숙박시설 건립
  - (속초) 솔로 여성, 가족 단위 관광객 안심형 온천 베드타운 조성
  - (예산) 노인을 위한 고령 친화 온천(스파) 에코 빌리지 조성, 전 가족을 위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2. 모형 ②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 온천수 치료기관 및 보양온천 활성화

-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7개 온천이용 시설 중심의 온천수 치료 기능 강화
  - \* (7개 지정 보양온천) 속초 설악워터피아(2009.7),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2009.7),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2009.12), 동해 그랜드관광호텔 온천(2010.7), 창원 마금산 원탕관광온천(2015.7), 울진 덕구온천(2015.1), 거제 거제도 해수 온천(2018.3)
- 보양온천의 개념(온천법 제9조 등)
  -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

- \* 제도도입 취지: 관광·레저 위주의 온천문화에 휴양·치료·요양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도모(한국온천협회 누리집), 차별화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 \* 지정권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 (참고) 보양온천 지정 기준

- 관련 근거: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의거)」 〈별표1〉
- 보양온천 지정 기준
  - 온천수 기준: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내부시설 기준: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정도 - 보양온천 해당 지역의 온천수 특성(온도)

- 보양온천 해당 지역의 온천수 특성(온도, 성분 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수치료 프로토콜 개발
- 시설 내 설치되어 있거나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긴밀한 공조
- 방문 관광객의 요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 서비스 제공
  - 건강체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의 또는 건강관리 지도사 등 자격증을 갖춘 상주 전문인력 배치
  - 장기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할인하거나 주변 관광지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 □ 의료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질환 치유 프로그램 특화

- 온천지구 내 또는 근접한 곳의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진료과목을 활용하여 질환을 특화하거나, 주변 환경 또는 복지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특유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제공
- 산림, 해양 등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의료 인프라의 특성을 활용한 질환 특화, 의료복지사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특화 등으로 다양화

○ 의료적 특성 및 환경(1): 생태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특화

[표 4-6] 생태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구분	온천지구	의료적 특성 및 환경
산림요법 연계	충북 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위담통합병원 등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활용</li> <li>• 치유숲길 조성으로 온천요법+산림요법(크나이프 요법) 적용</li> </ul>
해양요법 연계	경북 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자원, 해수자원, 산림자원 풍부, 청정도시</li> <li>• 해양치유센터 활용 한국형 치유단지(쿠어오르트) 조성·운영</li> <li>• 온천요법+탈라소테라피 적용</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69)

○ 의료적 특성 및 환경(2): 의료인프라 활용 질환 프로그램 특화

[표 4-7] 의료인프라 활용 질환 프로그램

구분	온천지구	의료적 특성 및 환경
피부질환	충남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향대 PMC 센터 등 피부질환 연구 인프라 우수</li> <li>• 대학(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 등)-병원(충무병원 등)-기업(㈜아로마뉴텍, (주)정코스메틱 등) 피부질환 관련 산·학·연·병 플랫폼 구축</li> <li>• HESPA 등 피부질환 관련 첨단 분석장비 활용 가능</li> </ul>
근골격계 및 통증	부산 동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래 온천지구 근방에 척추·관절·통증 의료기관 집중</li> <li>• 우수 대학, 연구소가 있어 효율적인 기초, 중개, 임상연구에 적합</li> </ul>
재활 및 노인 요양	대전 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성 온천지구 재활과 노인 요양 특화 병원 등이 자생적 집적화</li> <li>• 온천수를 이용한 수중 재활치료 시행 중으로 노하우와 경험 축적</li> </ul>
정서장애	경남 창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온천지구 중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낮음</li> <li>• 자연환경으로 온천요법을 통해 심신 안정 및 정서장애 치유에 적합</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69)

○ 의료적 특성 및 환경(3): 복지사업 활용 치유 프로그램 특화

[표 4-8] 복지사업 활용 치유 프로그램

구분	온천지구	의료적 특성 및 환경
노인의료복지 사업	충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로 지역 내 노인 비율(32.1%)이 높음</li> <li>• 의료기관 수는 부족하나, 다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li> </ul>

출처: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2021: 269)

### 3.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모형

#### □ 지역 특성 반영한 온천수 화장품 개발

- 온천수 성분 중에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주름 개선 또는 피부질환(아토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된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
- 향토 특산물과 결합한 독창적인 뷰티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 (충주)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탄산 온천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 (아산) 도고온천수의 유황성분을 이용한 유황·아토피 전용 화장품 개발
  - (울진) 덕구온천수 함유된 천연 미네랄과 올리고 키토산 등의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화장품 개발
- 온천수에 함유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활성 성분을 특화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
  - (아산) 순천향대 PMC 센터의 온천수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
    - \* 아벤느 회사에서는 온천 암반에만 존재하는 아쿠아필러스 돌로미애 (*Aquaphilus dolomiae*)를 분리·정제한 후,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활성 성분을 이용하여 화장품 개발

#### □ 온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 온천 융복합 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 온천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 프로토콜 개발 및 기초·중개·임상연구 실시
  - 온천 융복합 제품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사업화 추진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추진(건강보험 급여화 지원)
- 입욕지도사, 온천 재활 치료사 등 다양한 온천(스파) 전문 인력 양성

#### □ 온천시설, 제품, 서비스 등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

- 온천 제품의 호환성, 서비스 질 향상, 안전·건강·환경 보호 등을 위해 온천산업의 전반의 표준체계 구축

- 위드-코로나 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생·소독 등의 청결을 중요시하고 독립적인 프라이빗 공간을 요구하는 미래 수요에 대응
- (아산)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온천수, 온천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 및 단체표준 제정, 제품의 시험검사법 및 인증기준 개발 추진
- (울진)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천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청정·프라이빗 시설 인증제 도입

#### □ 온천수의 공공관리 및 친환경 온천 열에너지 활용

- 이를 위해서는 온천도시 차원에서 온천공의 공공관리를 통해 우수한 온천자원의 오·남용과 고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온천열을 활용한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및 과학적인 온천수 관리를 통한 산업적 활용의 기반을 조성
  - (충주) 수안보온천 지구의 온천공에 대한 공공관리를 통해, 각 온천업소에 온천수를 공급
- 높은 지열 에너지 또는 온천수가 갖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주거단지에 지열수를 공급하여 지역난방에 활용
  - (창녕) 부곡 온천지구의 공공관리를 통해, 최고 78℃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확보하고 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건설을 추진

#### □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 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정 연령층을 타겟팅한 온천 파생 상품개발
  - (부산) 신세대를 겨냥하여 동래온천의 백학 설화에 기반한 기획상품(굿즈) 및 마스크트 개발
  - (유성) 어린이와 어덜키즈를 위한 스파 특화상품 개발

## 제4절 온천도시 후보지에 대한 유형적용 방안

### □ 온천도시 유형화 개요

- 온천도시 추진의 기본원칙은 같이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온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여 ▲온천관광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업 연계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 전 절에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온천도시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이에 기반한 유형화를 시도함
  -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 온천역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정 매니아층을 타깃으로 맞춤형 온천관광 프로그램 개발·제공, 온천 휴양단지 조성 등 반영
    - 비즈니스 모임 및 행사 등 MICE 산업과 연계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모형 ②)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 온천수 치료기관 및 보양온천 활성화, 의료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질환 치유 프로그램 특화 등 반영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연계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모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천수 화장품 등 코스메틱 개발, 온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온천시설·제품·서비스 등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등 반영
    - 온천수의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열 재생에너지 타운, 스마트팜 조성 등
- 온천도시 후보지의 특성(지리적·문화적 및 도시환경 등)에 따라 하나의 온천 도시에서 단일 모형만이 아닌, 3가지 모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실제적인 효력을 갖춘 모형을 탐색하면서 특화된 온천도시의 발전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의 특정 모형에 기반한 온천도시 ▲하나의 모형이 주도적이거나 다른 하나의 모형이 향후 태동할 가능성이 있는

온천도시 ▲두 개의 모형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동반성장한 온천도시 등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특정한 한 개 모형(관광도시 모형)이 두드러진 사례로, 일본은 유후인, 벳푸, 쿠로카와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는 부산 해운대구, 경북 포항시, 강원 속초시, 충남 예산군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두 개의 유형이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을 통해 온천도시를 성장시킨 사례로, (관광+메디컬도시)를 융합한 독일의 바덴바덴은 관광·레저 등 지역환경 특성과 관련 인프라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온천을 활용한 의료·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옴. 또한 프랑스의 아벤느·비쉬는 온천수를 활용한 메디컬 도시를 중심으로 음용수(탄산수) 및 코스메틱 산업과 같은 파생산업을 동반적으로 발전시켜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임

#### □ 국내 온천도시 후보지역에 대한 유형화 적용 방안

- 온천도시 후보지 15곳에 대해 유형화 모형을 대입한 결과, ▲모형 ①(온천+관광도시) ▲모형 ①+②(온천+관광도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①+②+③(온천+관광도시+메디컬도시+산업도시)로 유형화할 수 있음
- 15개 후보지 중, 53.3%에 해당하는 8개 온천도시가 모형 ①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온천도시는 지역의 관광자원(역사·자연환경·레저 등)을 활용하여 온천을 기반한 복합휴양·휴식을 지향하는 온천산업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천도시 후보지) 부산 해운대구, 경북 포항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속초시, 경북 문경시, 경기 화성시
- 모형 ①+모형 ②의 복합형 온천도시는 4개 도시(26.7%)로 조사됨
  - 온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메디컬을 융합하여 지역발전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온천도시 후보지: 대전 유성구) 교통 편리·수도권에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와 온천관광 연계 특화. 메디컬 온천으로 유성 온천지구 재활과

노인 요양 전문병원 등이 자생적 집적. 온천수 활용으로 유성온천만의 수증 재할치료를 노하우·경험 축적

- (온천도시 후보지: 경남 창녕군) 유구한 온천역사 및 역사 기반의 온천문화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온천관광 특화.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온천메디컬 산업을 확대 운영. 특히 메디컬 온천 산업으로 자연환경 온천요법을 활용한 심신 안정·정서 장애 프로그램 제공  
※ 창녕군은 추후 온천공의 공공관리를 통해 온천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파생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모형 ③을 포괄하는 복합형으로 발전가능성이 존재
- (온천도시 후보지: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 및 부산 동래의 지역적 특색·다채로운 역사 및 문화재 등을 기반으로 온천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교통 편리성과 동래온천의 명인제도 운영 등. 메디컬 온천 산업으로 동래 온천지구 근방에 척추·관절·통증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 집적
- (온천도시 후보지: 충남 예산군) 노인을 위한 고령 친화 온천 에코 빌리지 조성 및 가족단위를 위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메디컬 온천 산업으로 고령화(노인) 중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집중 운영

○ 모형 ①+모형 ②+모형 ③의 복합형 온천도시는 3개 도시(20.0%)로 조사됨

- 온천 및 온천자원(온천수 등)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천도시 후보지: 충남 아산시) 온양행궁 등 온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 및 이를 활용한 관광 및 의료산업 활성화 도모. 아산소재 대학-병원-기업 간 협업(산·학·연·병)을 통해 피부질환 특화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개발. 고도온천수의 유허성분을 활용하여 유허 및 아토피 전용 화장품 개발. 순천향대PMC센터는 온천수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을 통해 코스메틱 산업 활성화 도모 등
- (온천도시 후보지: 충남 충주시) 물의 도시 충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관광 활성화 도모. 치유숲길 조성으로 온천요법과 산림요법(크나이프 요법)을 적용한 온천상품 제공. 한방온천치료 중심의 메디컬 시티에

특성화. 메디컬 온천 특징을 바탕으로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육성. 특히 충주시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탄산 온천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산업화 등 시도

- (온천도시 후보지: 경북 울진군) 온천자원과 해수자원,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하여 한국형 치유단지(쿠어오르트, Kurort) 조성 및 운영. 온천요법과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를 접목시켜 메디컬 프로그램 제공. 산업적 측면에서 덕구온천수가 함유된 천연 미네랄과 올리고 키토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원료 배합의 화장품 개발·산업화

○ 이상 15개 국내 온천도시 후보지역에 대한 유형화 적용 방안은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4-9] 온천도시 후보지역별 유형화 적용 방안

후보 도시	유형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②: 온천+메디컬도시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부산 동래	①+②	동래 온천의 명인제도 운영을 통한 온천관광 상품화	동래온천의 척추·관절·통증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집적, 치유센터 등 앵커 시설 구축 필요	
부산 해운대	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온천관광산업 활성화		
대전 유성	①+②	교통 편리성 및 인근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임·MICE 온천관광 특화전략 필요	노인 요양 전문병원 자생 집적 및 온천수 활용을 통한 유성온천 수중재활치료 특화	
경기 화성	①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강원 속초	①	1인·가족 단위 안심형 온천 베드타운 조성 및 장기 체류형 홈스테이 온천프로그램 개발 등 워케이션(worcation) 최적화		

후보 도시	유형	모형 ①: 온천+관광도시	모형 ②: 온천+메디컬도시	모형 ③: 온천+산업도시
충북 충주	①+② +③	물의 도시 충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관광 활성화 도모	치유숲길·산림요법 활용한 온천상품 개발, 한방온천 치료 중심의 메디컬 온천 도시 특성화	지역 농산물·온천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열 활용 인프라 구축
충남 아산	①+② +③	온양행궁 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온천도시 브랜드화	앵커기관로서의 (재)헬스케어 스파진흥원 및 온천도시 치유센터의 설립·운영	산·학·연·병 협업을 통해 피부질환에 특화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생산 등 온천 자원을 활용한 코스메틱 산업 활성화
충남 예산	①+②	고령 친화 온천 에코빌리지 조성 및 가족단위 온천 휴양 마을 조성	고령화 중심의 노인의료 복지시설 집중 운영, 관련 앵커시설 구축 필요	
전남 화순	①	리조트 개장·운영 등 온천 관광객 지속 유입을 위한 종합 온천 휴양지 개발		
경북 포항	①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온천관광 프로그램 제공		
경북 경주	①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자원 연계한 온천관광산업 추진		
경북 문경	①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경북 울진	①+② +③	금강송 등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스포츠 인프라 활용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 연계 관광	온천자원·해수자원·산림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치유 단지 조성 및 운영, 온천 요법과 탈라소테라피 프로그램 구성·운영,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와 연계	온천수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온천열 회수를 통한 스마트팜 등 활용 가능
경남 창원	①	복합 휴양·휴식 지향의 온천관광산업 특성화		
경남 창원	①+② (+③)	자연환경 온천요법 활용한 심신 안정 및 정서 장애 프로그램 제공, 인근 우수한 생태자원과 연계전략	스포츠 인프라 활용,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유치와 연계 한 온천 치유프로그램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친환경 온천열 에너지 타운, 스마트팜 조성 등 가능



## 제5장

#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추진과제

제3절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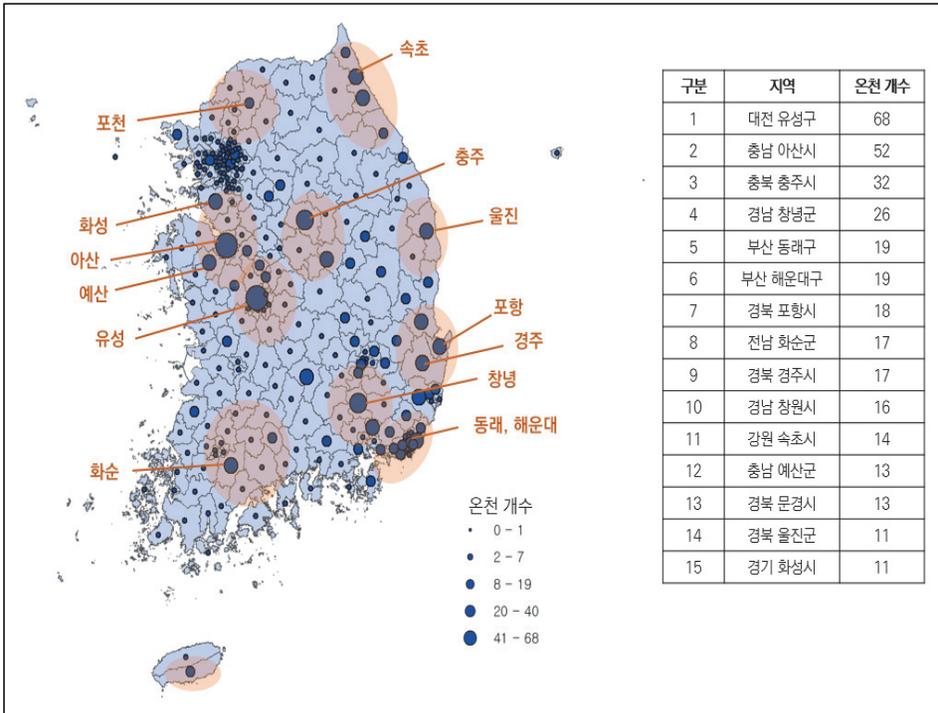
제4절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제1절 기본방향

○ 다음은 전국의 온천자원 분포 및 온천도시 후보지로 가능한 지역 및 권역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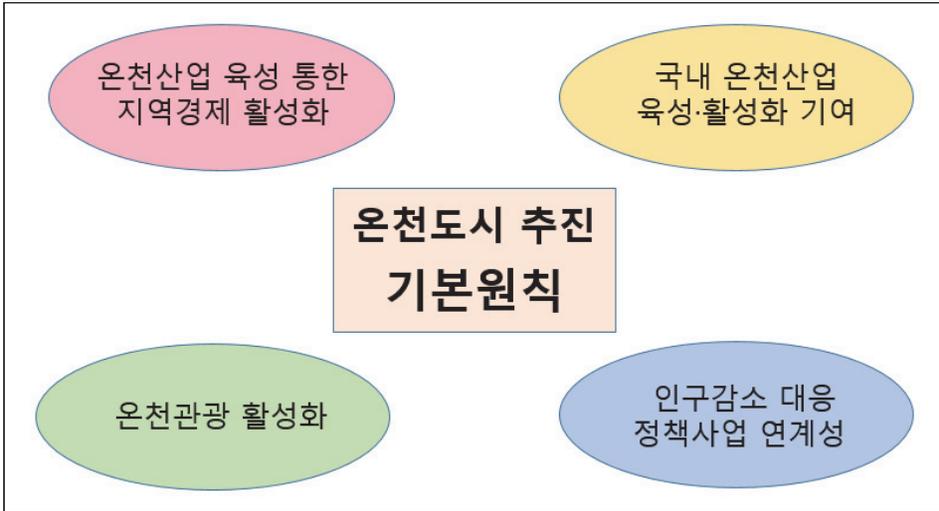
[그림 5-1] 전국 온천자원 분포 및 온천도시 후보지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온천도시 추진 기본원칙

[그림 5-2] 온천도시 추진 기본 원칙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함
  -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온천도시 지정에 대한 현재 기존 사례가 없고 정부지원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반면, 자치단체의 지정에 대한 열의가 높고 온천도시의 관광이미지 혁신 등의 계기가 필요하므로, 지정제도와 더불어 지정에 앞선 “(가칭)예비온천도시” 지정제도 등을 고려
- 국내 온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여
  - 건강·뷰티·치유 등 증가하는 웰니스 관광, 수증 재활치료 등을 활용한 온천 사업 활성화와 위축된 온천산업에 활기 부여

- 기존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탈피하여 유럽 등 온천 선진지의 지속 가능한 온천문화·온천산업으로 전환 도모. 특히 온천도시의 치유기능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관(치유센터 혹은 대형의료센터·의료연구기관 등)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파생되면서 클러스터링을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
- 2020년 「온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을 통해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의 온천수 이용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의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천치료의 개념정립과 의료보험혜택의 적용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온천관련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은 현재 치료·치유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료관련 활성화가 병행될 때 효과적임

#### ○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 생활환경 변화, 집과 인접한 입욕시설 보급으로 단체 관광객 위주의 온천관광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 호황을 누렸던 온천지구들이 근래 대부분 쇠퇴하는 실정을 해소하고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
- 기존 온천지구에 숙박시설·식당 등 관광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최근 치유와 휴식을 중요시하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웰니스관광(건강, 치유, 뷰티 등)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온천관광 활성화의 기회가 됨
- 상당수 온천자원이 풍부한 온천지구의 경우 노후화가 심하며, 온천관광의 행태적 변화에 따른 쇠락과 업종변경, 시설투자 등이 심각하므로 온천도시의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의 병행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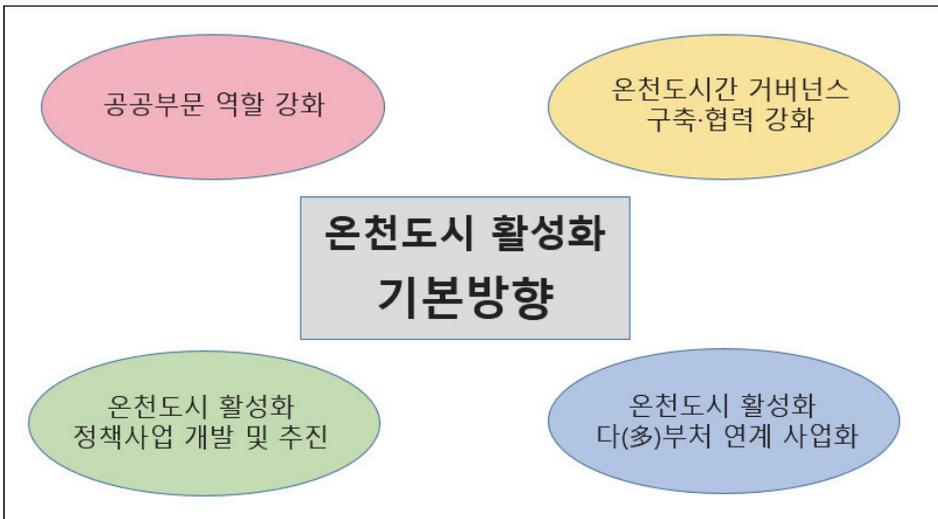
#### ○ 인구감소대응지역의 정책사업과 연계성 확보

-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전국 89개 기초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기초지자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됨
- 행정안전부는 위 107개 인구감소관련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각급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
- 온천지구가 위치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정책사업과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온천도시의 지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온천도시간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의 노력을 통해 공동의 정책사업 발굴·추진, 온천도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온천관광 활성화, 온천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온천도시 활성화 기본방향

[그림 5-3] 온천도시 활성화 기본방향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온천도시 지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온천 관련 전문적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능 확대 및 관련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구축, 온천도시와 관련된 온천협회 기능 강화(온천도시협의회 구축) 등
- 온천법 및 온천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의료관련 법률 및 보험인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온천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개혁 등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인증제 운영에 따른 온천도시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홍보체계 마련(온천의 날 제정, 기존 온천축제 및 온천산업박람회 등의 확대 등)
- 공공재로서 온천자원의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에너지회수 포함): 온천수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오·남용 및 고갈 방지차원에서 온천도시 온천공의 공적관리 시스템 전환 유도, 온천열(지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회수 시스템 구축
- 온천도시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핵심적인 온천도시 시설로서 치유센터 설립, 관련 도시공원 및 치유연계 여가·레저·스포츠 시설, 온천도시의 컨벤션·MICE 시설 및 문화예술 시설 등

## ○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 온천도시협의회 등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정 온천도시 (및 예비온천도시 포함)를 중심으로 한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 온천도시 포럼 설치 및 활성화: 온천도시 우수관행에 대한 공유 및 확산, 연계 프로그램·상품개발 등 연구개발 촉진, 관련 산업화 및 거버넌스의 확대, 중장기적 학회·연구회로의 발전 등
- 각종 정부지원사업과의 정책 연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기금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문화관광부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온천도시 지정사업을 통한 다양한 정부공모사업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

## ○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온천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기존 낙후 이미지의 탈피 노력 필요, 특히 쇠락한 수십년 전의 온천관광 행태를 탈피한 새로운 시설과 이미지 구축을 통해 온천도시의 명품화를 시도
- 온천업 시설 리모델링 지원 및 온천 주변 환경개선: 공적 투자에 의해 개별 온천시설의 리모델링 및 지원은 용이하지 않으나, 개별 온천업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족욕탕, 온천수 및 관련 프로그램 체험관, 전시관 등 중심적인 앵커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온천도시의 민간투자를 유도
- 필요시 온천도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지원을 “온천도시 특구” 지정제도 등을 통해 규제특례, 앵커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BLT·BOT 등)를 고려
- 또한 온천도시의 민간업자 거버넌스를 통한 “(가칭)온천도시 활성화 기금” 등의 구성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온천도시 내에 통용되는 상품권(지역화폐 형태, 온천시설 이용시 할인 또는 온천도시 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
- 다양한 온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산을 위한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업체계 축진(MOU 등 장려)
- 인구감소대응기금(사업)과 온천도시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 검토 등

## ○ 온천도시 활성화 다(多)부처 연계 사업화

- 개별 온천의 활성화가 아닌 온천도시의 활성화는 온천이 밀집되어 형성된 도시적 특성을 가짐
- 온천도시 활성화의 측면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 등 온천도시의 특성을 살린 복합된 생활거점으로 성장이 중요함
- 따라서 단순 온천과 온천산업 및 온천관광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도시내 다양한 생활인프라의 확충과 연계된 온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온천도시 활성화 사업을 다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의 지정확대 및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 다부처 통합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지역활력타운의 한 모델로서 온천도시형 지역활력타운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2절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추진과제**

□ 개요

-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5-1] 온천도시 활성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 온천도시 지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온천 관련 전문적 연구개발 기능 확대
	• 온천협회의 기능 강화
온천법 및 온천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관련 제도개선
	• 온천도시 특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개선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공공재로서 온천자원의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	• 공적자원인 온천공의 공적관리 강화
	• 온천수 정기적 수질검사와 성분검사
	•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자원의 보존과 다각화된 활용
온천도시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 온천수가 함유하고 있는 열원의 이용 증진
	• 온천도시에 온천치유센터 설치 및 홍보 활성화
	• 온천도시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 온천도시 지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존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온천도시” 지정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를 통해 온천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합리적 온천도시 선정 평가 시스템: 온천도시 지정 및 심의절차, 평가항목, 기준표 등을 마련

- 온천도시 지정 활성화 및 단계적 확대: 온천도시를 매년 1-2개 이상 신규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정수준(10여개 온천도시)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필요시 온천도시 지정을 예비지정과 본지정으로 구분하고, 예비온천도시의 선정을 통해 온천도시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온천지구별 차별화된 온천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독려하고, 온천 이해당사자들의 다자간 협의기구 활용하여 온천도시 특화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온천도시 활성화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온천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온천도시 공동의 홍보활동 지원, 온천대축제(온천산업 박람회) 도시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 ○ 온천 관련 전문적 연구개발 기능 확대

- 온천도시와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지리적 온천특성에 맞는 온천의 치유적, 의료적 효능 규명(인증)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개발 필요
- 현재적으로는 연구개발 등 투자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의 산발적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온천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는 매우 희박함
- 국내 대부분 온천지역에서 각자 효능을 홍보하나, 온천 효능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연구 부족
-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재)를 연계하여 연구개발 등의 전문조직화 검토
- 관광·레저 위주의 온천문화에 치료 및 요양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양온천 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효능 근거 부족으로 보양적 측면보다 고급화된 리조트 시설(워터파크, 부대시설, 파도풀 등)이나 온천수 상태(고온, 자연용출 등)를 강조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현실
- 온천 융·복합 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책 마련 및 시행 필요

#### ○ 온천협회의 기능 강화

- 현재 온천협회는 온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온천 관측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수준의 업무를 수행중이나, 온천협회를 온천도시협의회(가칭) 사무국화 하는 것을 검토

- 향후 온천도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분포가 이루어진다면, 온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온천협회의 지부(지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지부(지회)가 온천도시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온천 관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준을 넘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온천 시설, 온천 관련 제품, 온천 서비스 등 표준화 및 안전성을 확대하는 역할 부여
- 아울러 일본의 “온천명인” 제도와 같은 인증제, 온천도시의 여행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

#### □ 온천법 및 온천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 ○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 관련 제도개선

- 온천의 개발 및 온천수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온천 신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온천에 대한 명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각 업소마다 온천탕을 녹차탕, 거품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이는 방문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온천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온천과 온천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온천도시 특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개선

- 지방규제 혁신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온천수를 음용하기 어려운 문제와 의료 행위와 연계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 온천치유센터를 설치하더라도 단순 목욕업으로 분류되어 온천의 이미지는 저하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 온천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 및 학회 등의 온천도시의 숙박, 회의공간 사용 촉진

## □ 공공재로서 온천자원의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

- 공적자원으로서 온천공의 공적관리 강화
  - 온천공 현황 및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하여 관리
  - 온천수 지하유동 모니터링 및 온천공 휴년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온천수 고갈에 대한 대비,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 강화
  -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기능 고도화, 온천공 전문검사기능 연계하고 정기적 온천자원조사 및 정리
- 온천수 정기적 수질검사와 성분검사
  - 온천법 시행규칙에 온천수 수질검사와 성분검사에 대한 간략한 검사주기와 검사항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명확한 시험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부재한 상황
  - 성분 검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온천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수요자(의뢰자) 요구에 맞추어 시험 분석하고 각기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
  -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온천공 공공관리를 통한 온천자원의 보존과 다각화된 활용
  - 충주시 수안보온천과 같이 온천공의 공공관리를 통해 집수 및 보관, 유통 시설의 구축을 장기적으로 유도하여 온천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함유성분과 수량 등의 고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즉 자치단체 소유 또는 온천관광 민간업자들의 결사체(협동조합 또는 재단법인 등) 등의 관리를 통해 온천자원을 보존하고, 나아가 음용 및 치료용 활용 등의 온천자원 활용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창녕 부곡온천 단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천수의 공동취수 및 배분을 통한 온천열(지열)을 활용한 지역에너지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활용
  -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천도시의 이미지에 21세기형 가치의 부여를 통해 신세대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 □ 온천도시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치유센터, 에너지타운, 스마트팜, 문화예술·MICE 복합시설 등

- 온천수가 함유하고 있는 열원의 이용 증진
  - 높은 지열 에너지 또는 온천수가 갖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생산 또는 주거단지에 지열수를 공급하여 지역난방에 활용
  - 창녕 부곡 온천의 경우 최고 78°C 열에너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우 강제적 온도저하를 통한 잉여열의 낭비가 심함
  - 높은 열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또는 잉여열의 난방열로의 이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잉여열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
- 온천도시에 온천치유센터 설치 및 홍보 활성화
  - 온천지구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온천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우선적으로 모든 온천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 및 온천수를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웰니스)관광\* 등에 치유센터의 허브 역할이 중요함
  - 아울러 경북 울진군과 같이, 인근의 생태·자연자원과 결합한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온천과 해양 및 산림 치유가 결합된 온천치유센터, 해양치유센터, 산림복합치유센터 등과 같이 지역적 특화가 바람직함
  - 온천도시에 특화적으로 설치되어지는 온천치유센터에 대한 공동의 홍보 강화를 통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유입시키고, 내·외부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 온천도시는 의료·산업, 관광·휴양,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컨벤션·MICE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각 온천도시마다 해당 활동 중 상대적 비중의 차이 존재하나, 실제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활동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앵커시설이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의료·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치유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앵커시설의 조성을 통해, 관련된 파생시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지역대학, 연구소 및 의료기관, 지역기업의 연구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 □ 개요

○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5-2] 온천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강화 방안

구분	협력강화 방안
온천도시 협의회 및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온천도시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온천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화
	• 온천도시간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온천도시로 발전 도모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 및 활성화	• 온천도시간 상호 교류 및 방문 활성화
	• 혁신적인 온천문화 콘텐츠 개발과 온천문화 혁신을 통한 마니아층 형성 노력
	•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온천문화 확산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정부정책사업의 온천도시 활성화 연계 추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와 협업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사업 연계 추진
온천도시 정책의 다부처 연계 사업화	• 온천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온천도시 지정 확대 및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대응 및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통합공모 추진

#### □ 온천도시 협의회 등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온천도시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온천도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일정한 수에 이르면, 온천도시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온천도시협의회회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sup>1)</sup>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성장을 검토함
- 아울러 온천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고시(2021.10)에 의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온천도시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특별부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온천도시협의회를 통한 공동의 홍보 노력
- 온천도시협의회회의 사무국으로 온천협회를 활용하고, 온천도시 선도모델 연구 및 사무국은 온천도시간 상호협력 정책을 지원

#### ○ 온천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화

- 온천도시를 지자체의 일정한 범위의 온천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이외의 개별 온천과 인근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온천을 온천도시와 연계
- 온천도시를 생활인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화 함

#### ○ 온천도시간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온천도시로 발전 도모

- 온천도시협의회와 온천도시 사무국(온천협회) 등을 통하여 온천과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홍보전략 시행
-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및 시티투어, 지역특성에 맞는 온천과 온천도시 힐링체험, 온천도시 스탬프 투어, 온천도시 할인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시행

### □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 및 활성화

#### ○ 온천도시간 상호 교류 및 방문 활성화

- 온천도시간 상호 인적교류 및 정책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도시간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 행사 추진

1)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온천도시 활성화 포럼을 설치하여 온천도시간 돌아가며 포럼을 유치하여, 해당 지자체 온천을 체험하고 온천관련 정책을 교류 협력함
  - 혁신적인 온천문화 콘텐츠 개발과 온천문화 혁신을 통한 마니아층 형성 노력
    - 온천도시와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온천축제,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온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
    - 지역적 특성이 없는 획일화된 행사 구성과 온천문화 연계성이 부족한 콘텐츠는 한시적 관람객만을 유치할 뿐임
    - 다양하게 분포하는 온천들의 중심지로서 온천도시의 위상을 형성하고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지역 특성을 살리는 혁신적 콘텐츠 및 온천문화 혁신이 필요, 이를 통해 생활인구의 증진을 도모
    - 다양한 공공기관 및 학회의 온천도시내 숙박 및 회의 공간, 전시공간 등의 활용을 촉진하여 온천도시 생활인구 증진을 도모
  -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온천문화 확산
    - 국내의 온천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여 해외 방문객의 지방도시 방문시 온천 도시 방문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 외국인의 온천관광 지역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내판 등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정부정책사업의 온천도시 활성화 연계 추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와 협업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
    - 국내의 온천과 온천지구는 대부분 대도시 보다는 군단위나 소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
    - 인구감소대응법에 의하여 온천지구와 온천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개발하여 특례를 부여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감소지역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지자체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에 온천도시를 포함하는 지자체는 온천 및 온천도시와 관련한 투자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입안하고 편성,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과 관련한(또는 포함한) 지방인구감소대응 계획의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사업 연계 추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기금: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기초지자체에 7,500억원, 광역지자체에 2,500억원)씩 지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 사업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
- 문화관광부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쇠퇴한 온천지구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및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
-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됨.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임

#### □ 온천도시 정책의 다부처 연계 사업화

##### ○ 온천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온천도시 지정확대 및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

- 온천도시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다부처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다부처 연계 온천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의 하나로써 온천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 인구감소대응 및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통합공모 추진
  - 인구감소대응 정책추진은 한두개의 부처만의 노력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향후 지정될 온천도시가 대부분 지방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온천도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속할 것임
  - 인구감소대응의 정책사업의 하나로써 온천도시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대응 및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을 연계하고 다부처 통합공모를 추진함
  - 다부처 연계 공모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건립,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 등)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제4절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 개요

-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5-3] 온천도시 활성화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방안

구분	추진방안
온천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기존 낙후 이미지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의 고유한 이미지, 브랜드 형성, 낙후된 이미지에서 탈피 필요</li> <li>• 온천도시와 온천도시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의 적극적 활용</li> </ul>
온천업 시설 리모델링 지원 및 온천 주변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지구와 온천도시의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시 지원</li> <li>• 온천도시내 유희공간 전수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지원</li> </ul>
온천도시 브랜드화와 신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살린 온천도시 브랜드화</li> <li>• 온천치유산업 생태계 조성</li> <li>• 온천산업 및 온천상품 개발 활성화</li> <li>•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및 고령화시대 대비 치료과정 연계</li> </ul>
다양한 온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가 온천 활성화 정책사업과 행사 발굴 및 추진</li> <li>• 온천도시에 다양한 온천관련 시설자원의 연계</li> </ul>

### □ 온천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기존 낙후 이미지 탈피 노력

- 온천의 고유한 이미지, 브랜드 형성, 낙후된 이미지에서 탈피 필요
  - 현대의 온천은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획일화된 온천문화, 새로운 온천문화 콘텐츠 개발 미비로 인한 방문객의 시대적 문화욕구 및 니즈에 뒤처지는 낙후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
  - 온천지구와 온천도시내 또는 온천도시 인근에 병원, 쇼핑시설, 카페, 경마장, 테니스장, 골프장, 영화관, 피트니스, 뷰티숍 등을 연계하여 의료, 치유, 레저, 여가, 오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적 성격의 온천도시가 되어야 함

- 즉, 온천욕뿐만 아니라 온천도시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부대시설이 중요하며, 온천과 연계된 헬스케어와 웰니스 투어리즘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 온천도시와 온천도시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의 적극적 활용
  - 다양한 형태의 온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가령 온천명인, 온천마라톤, 온천수 음용, 온천수 활용 수영 및 치유타일 등 온천자원의 연계 활용
  - 아울러 홍보적인 차원에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SBS)’, ‘극한직업(EBS 다큐)’, ‘생활의 달인(SBS)’, ‘허영만의 백반기행(TV조선)’, ‘백종원의 골목식당(SBS)’ 연계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탐방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 적극 활용

#### □ 온천업 시설 리모델링 지원 및 온천 주변 환경개선

- 온천지구와 온천도시의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지원
  - 온천의 낙후된 이미지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업제한 및 경기 침체 등에 의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각종 온천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 환경의 낙후가 진행됨
  - 온천 및 온천도시의 낙후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형태의 온천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기본적인 주변 환경 개선이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온천 시설의 리모델링시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관광부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온천도시내 유휴공간 전수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지원
  - 한편 온천지구 및 온천도시내 다양한 규모의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많은 부분 유휴공간으로 존재하거나 중복적 기능(연회장 등)으로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유휴공간 및 저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지역사회와 온천도시의 발전을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원할 필요

- 조사된 공간들은 온천도시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온천업자, 해당 지자체에 의해 공동 및 상호 이용을 위한 협약체결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 □ 온천도시 브랜드화와 신산업 육성 지원

- 지역특성을 살린 온천도시 브랜드화
  - 낙후된 이미지와 획일화된 온천지구에 지역특성적 요소를 특화하여 브랜드화 하고, 의료와 치유 그리고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온천도시로의 발전 모델 구현
  - 국내 온천 10선, 온천 홍보마케팅 적극 지원
- 온천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 온천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보양온천제도 실효성 강화, 온천 효능검증 연구개발 확대 등 필요
  - 온천 고부가 산업 육성: 온천 산업표준 제정, 온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확대, 온천산업 사업화 지원 확대
- 온천산업 및 온천상품 개발 활성화
  -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건강·미용상품 등 생산기업 지원
  - 온천수를 활용한 보습제, 입욕제, 족욕제 등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세대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및 고령화시대 대비 치료과정 연계
  - 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온천 파생 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질병예방 및 치료과정 등 연계
  - 암환자 등 중증환자 의료 연계
  - 재활의학, 의료스포츠 등 운동 연계

## □ 다양한 온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산

### ○ 온천 활성화 정책사업과 행사 발굴 및 추진

- 온천대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온천을 홍보하고 온천 이용을 증진시키는 행사(경진대회 등) 발굴 및 추진
- 보양온천을 지역의 소거점화된 온천 브랜드화

### ○ 다양한 온천관련 시설자원의 연계

- 첨단의료시설, 요양시설 등 온천욕 이외의 매력적인 콘텐츠의 발굴 및 활성화가 중요
- 수영장, 터키식 열탕, 온수풀 등 온천시설 뿐만 아니라, 스파티(Sprtty: 온천 파티)와 자동차 극장, 영화관 투어, 온천수 힐링체험, 온천 일광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이 중요
-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를 맞아 온천문화 관광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반려동물 숙박 및 놀이 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

## 참고문헌

- 고계성. (2018). 온천과 연계된 지역 관광특구 재생 방안 고찰: 경남 부곡온천 중심으로. 인문논총, 46: 27-44.
- 김성균·우석봉. (2018). 부산지역 치유산업 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110828).
- 김순양. (2008). 온천 건강보험정책 도입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김시중. (2016). 온양온천 관광지 방문객 만족이 재방문 및 추천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66-575.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07.30.). 쇠퇴한 대전 유성 온천 지구, 부활 신호탄을 쏜다: 2020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지 선정, 4년간 최대 국비 90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박현옥. (2008). 일본의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에 관한 사례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3: 283-301.
- 심승보·전용진. (2010). 아산지역 온천수를 활용한 피부개선 화장품의 개발. 201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500-502.
- 이덕구. (2022). 일본 온천의 뉴투어리즘 경영 전략. 일본문화학보, 93: 119-139.
- 이승욱·정연준. (2020). 온천관광지구의 활력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국토 정책Brief, No.790 (2020.11.16.)
- 이승욱·김태환·조판기·김중은·안소현·정연준·윤준도·임영식·T.Lee (2019).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보고서(19-31)
- 이주일·양해술. (2008). 보양온천을 활용한 온천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5): 1467-1478.
- 이제연·임태경. (2020). 온천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2020-20).

- 서만식. (2014). 내발적(內發的)발전을 통해 본 벳푸핫도온천박람회(別府八湯温泉泊覽會)의 온천지역 활성화 연구. 일본언어문화, 27: 655-674.
- 장문희·고가연·안요찬·안택원. (2013). 아토피 피부염 유발 NC/Nga mouse에서 도고 온천수 유황 성분의 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6(3): 36-53.
- 장병문·권은숙. (2008).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한 온천지구 개발요소의 중요도 평가. 새마을·지역개발연구, 20: 1-21.
- 정종태·최만진. (2011). 국내 보양온천 활성화 방안 연구: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권2호(통권46호) 89-96.
- 정종태·최만진. (2012). 국내 보양온천 시설 현황 및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4호(통권52호) 69-76.
- 조성호·이경자 (1998). 한국 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4권 제2호 165-182.
- 조수연·김경철. (2020). 한국의 온천과 온천문화.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49-62.
- 조수연·김경철. (2021). 일본의 온천법과 온천문화.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1-19.
- 최정자·김진흥. (2016). 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이해관계자 인식: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한 질적 연구. 관광경영연구, 20(6): 519-539.
-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누리집. (<http://www.hespa.or.kr/>, 2023년 3월 22일 확인).
-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제2차 온천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2022. 12.
-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온천의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021. 11.
- 차경자·정태흥. (2022). 국내 온천의 의료적 활용에 관한 사업현황과 과제: 보양온천과 온천도시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3호(통권91집): 775-797.
- 한국온천협회. (2022). 2022년 온천종사자 교육자료. (<http://www.hotspring.or.kr/>, 2023년 3월 22일 확인).

- 한국온천협회. (2019). 2019 온천산업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019. 12. 16. (<http://www.hotspring.or.kr>, 2023년 3월 22일 확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06.07.).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선정.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행정안전부. (2022). 2022 전국 온천 현황.
- 행정안전부. (2021). 온천법령 질의해석례.
- 유네스코와 유산(UNESCO & HERITAGE)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B%9F%BD%EC%9D%98-%EB%8C%80-%EC%98%A8%EC%B2%9C-%EB%A7%88%EC%9D%84%EB%93%A4/>